

2022년

다원예술 TF 백서

20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TF

I. 다원예술 TF 백서 발간사	1
II. 다원예술TF 개요 및 활동경과	7
1. TF 구성 배경 및 활동 요약	9
2. TF 위원 구성과 임기	11
3. TF 위원 소개	12
4. TF 활동 결과	14
III. 다원예술 정책지원 제언	25
IV.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녹취록	33
1.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개요	35
2.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회차 [사회 김장연호]	36
3.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2회차 [사회 박경주]	58
4.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3회차 [사회 박지선]	78
5.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4회차 [사회 김건희]	97
6.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5회차 [사회 임인자]	117
7. 2022년 다원예술 포럼	143
V. 다원예술TF 회의록	177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I

다원예술 TF 백서 발간사





PART I

다원예술TF 백서 발간사

박 경 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21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사업 ‘리부트’에서 시범 도입됐던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지원심의 제도(이하 동료평가 제도)는 1차 심사결과 발표 시 지원자에게 공개된 심사평에서 상호비방과 폄훼,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된 점이 알려졌고,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된 이후 예술인의 소리에서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새롭게 시도한 심의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해 10월 25일 국회 문광위 종합감사에서 이상현 의원이 익명을 악용한 인격모독적인 심사평,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호장치 전무, 지원자들에 대한 무상노동 강요 등 크게 세 가지를 동료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예술위에 요구했습니다.¹⁾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예술인들은 동료평가 방식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고 상호 비방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모욕을 초래했다며 ‘오징어게임’ 속이나 있을 법한 정책 실험을 벌였다²⁾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평을 받고 충격을 받은 예술인 중 몇 명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작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다원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연극과 무용 등 타 장르가 포함된 400여명의 예술인들이 불륜을 높였습니다. 국회 문광위 종합감사장에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음성으로 증언한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듣게 된 예술인들의 비판과 문제제기로 동료평가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술위는 깊이 깨닫게 됐고, 12월 2일 예술인의 소리측과 개최한 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다원예술TF의 구성은 예술위가 사과문을 통해 현장 예술인들에게 약속한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1) 이상현 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라인드 심사 제도, 개편 필요”(울산종합일보)
<http://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855788422>

2) “예술가 지원한다며 동료 평가요구…오징어게임인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4055300004?fbclid=IwAR2UOwoobUpBHbSL4zpw_B-sqoDVsuUAs30_JU23vFng1EOtuADBbkIUgtB0

그러므로 7기 예술위 다원예술TF는 위원회의 의지가 아닌 다원예술 현장 예술인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위는 다원예술TF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TF 운영으로는 블랙리스트와 선부른 제도 실험으로 연이어 두 번의 상처를 입은 다원예술인들에게 온전히 용서받아 다원예술 현장과 예술위의 신뢰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원예술은 장르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백서에 명기된 11명의 다원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된 안팎의 예술인과 기획자, 프로듀서, 매개공간 운영진 등 다수의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폐지됐던 6년의 기간 동안 새롭게 예술계에 입문한 청년 예술인들은 관료주의적 장르개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창작의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매개공간과 대표적인 축제가 사라지면서 다원예술 생태계의 그물망은 절단됐습니다. 이로써 다원예술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르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2조 문화예술 범주에 '다원예술'을 명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르 사업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예산을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이 정시공모에 포함돼 선정자들은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예산도 추가 확보돼 지원율 대비 7.8%(2021), 3%(2022)이었던 선정률이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2년 운영된 다원예술TF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앞으로 8기 예술위가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원예술 담당위원을 중심으로 사무처와 예술현장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예술행정가와 창작자가 협력하고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이 잘 안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예술위원회는 창·제작과 발표에 집중했던 기존 지원사업을, 예술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였습니다. 예술기금을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이 아닌 예술인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결과물을 발표할 의무가 없으며 지원금은 일종의 급여로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7기 예술위는 창작과정의 지원사업을 개설하기는 했지만 예술인의 직접지원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다원예술은 창작과정과 연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원예술 분야에서 만큼은 창작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창작기금이 지원돼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이 가능한 미래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원예술 리부트 사업에 도입됐던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문³⁾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원자들은 공모사업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와 달리 다른 예술가들의 사업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위뿐만 아니라 타 재단의 지원사업이나 심의방식이 지원자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됐다가 6년 만에 어렵게 복원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그동안 힘들게 다원예술 현장을 지켜 온 예술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점, 예술위 첫 번째 다원예술 담당 위원으로서 다원예술인들을 잘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 2022년 8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음. 인권위는 다만 예술위가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 동료평가제도를 폐지하였고, 동료집단 심의에 참여한 전원에게 심의사례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정사건을 기각하였음.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II

다원예술TF 개요 및 활동경과

1. TF 구성 배경 및 활동 요약
2. TF 위원 구성과 임기
3. TF 위원 소개
4. TF 활동 결과



PART II

다원예술 TF 개요 및 활동경과

1. TF 구성 배경 및 활동 요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2021년 4월, 6년 만에 ‘다원예술활동지원 리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초예술다양성 증진 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복원했다. 예술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심의방식으로 최초로 지원자 상호평가 방식의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제’(이하: 동료평가제)를 다원예술활동지원사업에 시범 실시하였다.

1차 심의평가 결과가 발표된 6월, 지원자는 혐오와 모욕 등이 담긴 심의평을 받게 됐고 심의평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⁴⁾ 동료평가제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술위는 다원예술 동료 집단 심의 평가 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여 7월 27일 최종 심의결과 발표와 함께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부트 동료심의 제도 시범 도입 관련 입장문’⁵⁾을 공지하였으나, 8월 5일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예술인의 소리’에서 발표⁶⁾되었다. 예술 위는 이후 ‘예술인의 소리’ 측과 총 2회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1년 12월 2일 제2차 간담회에서 동료평가제의 폐지 결정을 현장과 합의하였다.

2022년 1월 초, 예술위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복원 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원예술 TF를 구성하였다. 이는 12월 20일 발표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4) [단독] “페미성향 강해 올바른 예술 의문”...정부 예술지원사업에 돌아온 피드백,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7519134?OutUrl=daum>

5)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oard/view/4053?bid=&page=1&cid=1803307&searchValue=%EB%8B%A4%EC%9B%90%EC%98%88%EC%88%A0&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6) [내일을 열며] 예술 지원제도 개혁하라.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5380&code=11171348&cp=nv>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⁷⁾에서 약속한 사안으로써, 예술위가 현장과 소통하며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원예술 TF를 구성하였다.

TF는 예술위 내부에서는 다원예술 담당위원인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팀장을 맡고 흥태림 위원이 참여했으며, 외부 위원으로는 2021년 예술위 사업혁신TF 다원예술 분야 자문위원이었던 김장연호(아이공 대표)와 임인자(독립 기획자), 예술인의 소리 측과의 간담회에서 다원예술 현장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예술위에 전달한 박지선(프로듀서 그룹 도트), 2021년 다원예술활동지원 리부트 사업의 심의위원이자 모니터링 위원인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등 총 네 명이 다원예술 현장을 대표하는 TF 위원으로 사무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다. TF 운영은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총괄부(부장: 정준화)에서 전담하였다(별첨 자료 참조: 한국문화예술위원다원예술TF 구성(안)).

다원예술TF는 다원예술의 복원의 의미를 살피고 2022년 현재 다원예술 분야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22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의 공모안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총 5회의 라운드 테이블, 1회의 오픈 포럼⁸⁾을 통해 다원예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였다. 또한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과제의 방향설정 및 기획안을 검토하였고 '21년 지원사업에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지원자를 위한 심리상담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7)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oard/view/4053?bid=&page=1&cid=1804033&searchValue=%EB%8B%A4%EC%9B%90%EC%98%88%EC%88%A0&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8) "다원예술, 블랙리스트로 숙성될 시간 빼앗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2_0001895026&clD=10701&pID=10700

2. TF 위원 구성과 임기



☑ 위원 구성

구분	성명	소 속
내부 위원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 TF 팀장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외부 위원	김건희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
	김장연호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대표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임인자	독립기획자
사무처	정준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부장

- 다원예술TF 간사
 - 이한솔 지원총괄부 주임(1월~3월)
 - 오성근 지원총괄부 대리(4월~6월)

☑ 활동 임기 : 2022년 1월 14일 – 2022년 6월 30일

3. TF 위원 소개



☑ 김건희 위원(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청 사업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각예술과 다원, 융복합 분야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기획으로는 <Project Unfold X>, <Dialogue X>과 지원사업 <청년 예술공간지원>,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 등을 기획운영 했다.

☑ 김장연호 위원(문화학 박사, 대안영상예술 기획자)

미디어예술학과 문화연구학을 수학했으며 한국 디지털 비디오예술의 지형도와 함께 실천적 영상 문화기획 및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다원예술상 수상, 구 뉴미디어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으며, 홍대앞 미디어극장 아이공 디렉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며, “서울국제뉴미디어아트비엔날레” 평가위원을 지냈다. 주요기획으로 “페미니즘 비디오 액티비스트 비엔날레”, “대안영화 오노요코 기획전”, “마야 데렌 기획전”, “상탈 아커만 기획전”, “빌 비올라 기획전”, “대항기억과 몸짓의 재구성” 등이 있다. 논문으로 ‘규격화되지 않는 영상들의 극장술’, ‘2000년대 한국 포스트 다큐멘터리의 자기-재현 전략’, ‘윤리적 타자가 출현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시점에 관한 연구’, 대표 출판물로는 ‘디지털 영상예술 코드읽기’, ‘카메라를 든 여전사’, ‘한국 뉴미디어아트의 십년’, ‘사:대항기억과 몸짓의 재구성’ 등을 기획하고 책임 편집했다.

☑ 박지선 위원(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연극, 무용, 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축제, 레지던시 기획, 공연예술작품 제작 및 국제 네트워크(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경계, 기술과 예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활동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임인자 위원(독립 기획자)

인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성장했다. 연극 이론과 연출 및 예술경영을 전공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을 역임

했다. 월간 <한국연극> 편집위원,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민간)검열백서위원회, 광장극장 블랙텐트 운영위원,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협치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 TF 활동 결과



☑ 주요 활동

- ① 2022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 논의 및 확정
- ②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 논의 및 추진
- ③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과제 방향 설정 및 기획안 검토
- ④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과 온라인 포럼 진행
- ⑤ 기타 다원예술 현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통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논의와 조치

☑ TF 회의 및 주요 안건 : 총 13회

일자	회차	주요내용
2022.1.14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TF 활동 계획(안) 논의
2022.1.16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진행사항 보고 • 동료심의제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 • 다원예술 현황·지원방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포럼 추진 논의
2022.2.16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정책연구 관련 진행사항보고 및 논의 • 동료심의제도 후속조치 <예술인심리상담> 관련 주요조사(안) •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 공모계획(안) 검토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성 계획(안) 논의
2022.2.23.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성 계획(안) 논의
2022.3.16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세부 논의 • 다원예술 후속조치 <예술인심리상담> 관련 세부 논의 • 다원예술 포럼 준비 일정 논의
2022.3.29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정책연구(가제)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과업 세부 논의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추진 관련 세부 논의

일자	회차	주요내용
2022.4.1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정책연구'(가제)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과업 세부 논의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회차 추진 결과 리뷰 및 개선점 논의 • 다원예술 TF 활동에 대한 위원 사례 지급 기준 등 설정 논의
2022.4.21	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포럼 일정 및 세부진행 방향 논의 • 다원예술 TF 계약 관련 논의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추진 결과 관련 의견 공유
2022.4.28	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심리상담 수요 조사 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논의 • 다원예술 지원방안 연구용역 과업설정 논의 • '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모니터링 결과자료 공유
2022.5.13	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최종본) 논의 • 2022년 다원예술 포럼 준비사항 논의
2022.5.26	1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준비 관련 세부 계획 논의
2022.6.10	1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리뷰 및 TF 백서 발간 관련 논의
2022.6.24	1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활동 최종 리뷰 및 정책제언 관련 논의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성 : 총 5회

일자	세부분야	참여자	
2022. 3.31.	#다원예술가그룹 #시각미디어	사회	김장연호(다원예술 TF위원)
			김성호(미술평론가, 큐레이터)
		패널	김현주 달로(영상미디어작가, 미술작가)
			오재형(미술작가, 영화감독, 피아니스트)
			심혜정(영화감독, 퍼포먼스예술가)
			설경숙(다큐멘터리감독, 영상미디어작가)
			안정윤(영화감독, 미디어아트작가)
			이다은(미술, 퍼포먼스)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다원예술 TF	박지선(다원예술TF 위원)
			임인자(다원예술 TF위원)
			정준화(예술위 지원총괄부 부장)
		사무처	오성근(지원총괄부 대리)

일자	세부분야	참여자	
2022. 4.8.	#사회적예술 #소수자예술 #예술행정	사회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패널	고주영(독립 프로듀서)
			김윤환(예술사회연구소 대표)
			김지연(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샤사 폴레(Sascha Pohl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교수)
			성용희(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담당 학예연구사)
			황지운(예술단체 마리모)
			이일록(예술위 현장소위 위원)
		다원예술 TF	헤디 포르투나(Heady Fortuna, 배우, 통역자)
			김장연호(다원예술TF 위원)
		사무처	임인자(다원예술TF 위원)
			정준화(예술위 지원총괄부 부장)
2022. 4.11.	#다원예술가그룹 #공연예술	사회	박지선(다원예술TF 위원)
		패널	김보람(미디어, 게임씨어터)
			박민희(음악, 정가, 보컬리스트)
			윤자영(퍼포먼스, 현대무용)
			이양희(현대무용, 퍼포먼스)
			정세영(연극, 현대무용, 퍼포먼스)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다원예술 TF	김건희(다원예술TF 위원)
			김장연호(다원예술TF 위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팀장)
			임인자(다원예술TF 위원)
		사무처	정준화(예술위 지원총괄부 부장)
			오성근(예술위 지원총괄부 대리)
2022. 4.12.	#기획 #프로듀서	사회	김건희(다원예술TF 위원)
		패널	김미소(주식회사 알프스 대표)
			김보경(프로듀서)
			김신우(프로듀서)
			이소영(프로듀서)
			전진모(신촌극장 대표)

일자	세부분야	참여자	
		다원예술 TF	김장연호(다원예술TF 위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박지선(다원예술TF 위원) 임인자(다원예술TF 위원)
		사무처	정준화(예술위 지원총괄부 부장) 오성근(지원총괄부 대리)
2022. 4.13.	#지역 #매개공간	사회	임인자(다원예술TF 위원)
		패널	김소연(평론가) 남하나(불나방,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 대표, 전 다원예술매개공간 디렉터) 송부영(대전 구석으로부터 디렉터, 서면참여) 오석근(사진작가, 복숭아꽃 대표) 제람(시각예술활동가, 암란의버스 저자) 허영균(1도씨 출판사 대표, 전주문화재단 웹진 '온전' 편집장)
		다원예술 TF	김장연호(다원예술TF 위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박지선(다원예술TF 위원)
		사무처	정준화(예술위 지원총괄부 부장) 오성근(예술위 지원총괄부 대리)

2022년 다원예술 포럼

- 제목 :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 일시 : 2022년 6월 2일 (목) 오후2시
- 장소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온라인 웨비나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다원예술TF
- 프로그램

순서	시간	내 용				
개회	14:00-14:10	개회 및 소개				
		인사말씀 :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14:10-14:20	경과보고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이후 후속 조치 경과보고(지원총괄부)				
	14:20-14:30	질의응답 후속조치에 대한 포럼 참여자 질의응답				
발제	14:30-15:00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 보고				
		<table border="1"> <tr> <td>사회자</td> <td>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td> </tr> <tr> <td>발제자</td> <td> 다원예술TF - 김건희(다원예술TF위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 박지선(다원예술TF위원, 프로듀서 그룹 도트)*대표발제 -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 </td> </tr> </table>	사회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발제자	다원예술TF - 김건희(다원예술TF위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 박지선(다원예술TF위원, 프로듀서 그룹 도트)*대표발제 -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
사회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발제자	다원예술TF - 김건희(다원예술TF위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 박지선(다원예술TF위원, 프로듀서 그룹 도트)*대표발제 -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					
휴식	15:00-15:10	중간휴식				
토론	15:10-16:40	‘다원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table border="1"> <tr> <td>사회자</td> <td>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td> </tr> <tr> <td>모더레이터</td> <td>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td> </tr> </table>	사회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모더레이터	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
		사회자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TF 팀장)			
모더레이터	김장연호(다원예술TF위원, 아이공 대표) 임인자(다원예술TF위원, 독립기획자)					
<table border="1"> <tr> <td>토론자</td> <td>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김소연(연극평론가) 박해강(예술공간 돈키호테) 이다은(시각예술작가) 제람(시각예술활동가) </td> </tr> </table>	토론자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김소연(연극평론가) 박해강(예술공간 돈키호테) 이다은(시각예술작가) 제람(시각예술활동가)				
토론자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김소연(연극평론가) 박해강(예술공간 돈키호테) 이다은(시각예술작가) 제람(시각예술활동가)					
폐회	16:40-16:50	폐회 및 위원회 향후 일정 공유				



보고안건

다원예술TF 구성(안)⁹⁾

박경주, 홍태림



☑️ 추진 목적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이후 후속 조치 실행
- 다원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
- 2022년도 다원예술 지원 사업안 논의 및 확정

☑️ TF 구성 및 운영

- 내부위원(2인) : 박경주(팀장), 홍태림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김장연호(아이공대표)
 - 박지선(프로듀서 그룹 도트)
 - 임인재(독립 기획자)
- 사무처(2인) : 정준화(지원총괄부 부장) 외 간사 1인
-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워킹 그룹형 TF로 운영하되, 현장의 다원예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자문의 형태로 청취하는 간담회 운영
- 운영기간 : 2022.1~2022.04

☑️ TF 주요 역할

- ① 2022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 논의 및 확정
- ②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 논의 및 추진

9) 본 안건은 2021년 12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회의에 논의안건으로 제출되었고 2022년 1월 11일 위원회 사무처 내부 결재가 되었다.

- ③ (가칭)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 ④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 포럼 진행
- ⑤ 기타 다원예술 현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통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논의와 조치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21.12.16.(목) :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 안내문(안) 보고 및 결의/ 다원예술 활동지원 동료집단심의 사례비 지급(안) 서면 의결
- 2021.12.20.(월) :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 안내문 예술위 홈페이지 공지 *별첨 안내문
- 2021.12.29.(수) : TF 구성(안) 보고
- 2022.1. : TF 구성 위원회 의결 예정
- 2022.01.10.(월) : 1차 회의 개최 및 사업 및 일정 논의 예정
- 2022.1. : 다원예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 논의
- 2022.2. : (가칭)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안 논의 및 포럼 진행 / 2022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안 확정 /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 논의
- 2022.3. : (가칭)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안 확정 / 포럼 자료집 예술위 홈페이지 공개/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안 확정
- 2022.4. :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안 추진
- 2022.5. : 활동보고서 발간 및 예술위 홈페이지 공개

붙임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

2021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던 다원 예술 지원 사업을 6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예술위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복원하면서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고려와 예술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미흡한 상태로 동료평가의 의미를 지원자 간 상호평가로 협소하게 해석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이하 동료심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여 예술 현장과 동료평가 과정에서 혐오·차별 발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신 예술인 그리고 동료평가 심의제도를 동의할 수 없음에도 이 제도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거나 사업지원 자체를 포기하신 예술인과 올해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께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셨던 예술인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예술 현장이 이번 공론화를 통하여 예술위가 2021년에 시범 도입한 동료심의 제도의 도입 과정과 제도 자체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술위는 2021년 8월 3일에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다원예술 동료평가 심의제도 현안 대응 TF(이하 다원TF)를 구성하고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한 후, 9월 23일에 ‘예술인의 소리’ 측과 첫 번째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심의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 2일에 진행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동료심의 제도 폐지 여부와 후속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예술위는 ‘예술인의 소리’ 측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동료평가 제도 폐지, 동료평가 제도도입 경위와 사과 및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공지문 발표, 동료평가 심의 참여자에 대한 심의사례비 지급에 대한 논의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위는 지원자 간 상호평가 방식의 동료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기존의 전문가 평가제도를 복원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올해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동료심의 제도를 시범 적용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습니다.

1. 동료심의 제도에 동의할 수 없는 예술인은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응모에 대한 기본적 접근성과 선택권을 침해했다.
2.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심의를 수행한 예술인들에게 심의사례비가 책정되지 않았으며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원자 1인이 42개의 지원서를 심의토록 했다.
3.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창작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4. 심의 평가 방식과 윤리성에 대한 안내가 기존 심의 수준으로만 진행되어, 동료심의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사 윤리성 보장이 미흡했다.
5. 블랙리스트로 큰 피해를 입은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자 간의 상호평가를 하도록 심의제도를 설계하여 다원예술 생태계 내의 신뢰에 균열을 야기했다.
6. 2차 본심대상 49개 단체(인)에게만 7월 9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결과발표 지연에 대한 공지를 하였으며, 전체 공지가 없었다.
7.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에 동료심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요약 결과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각화하고자 했으나 미진했으며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에 복잡하게 시각화한 설문자료를 삽입하여 동료심의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예술현장이 동료심의 제도가 다른 지원 사업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오해를 할 여지를 남겼다.
8. 예술위는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용된 동료심의 제도의 문제에 대한 첫 입장문을 별도 공지로 발표하지 않고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의 하단에 삽입하여 예술위가 동료심의 제도 문제에 대하여 방어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9. 예술위가 동료심의 과정에서 혐오·차별표현에 노출된 사례를 공론화한 피해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소통하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예술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현장과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차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2.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3.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가칭)다원예술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4. 기존 예술위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5.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 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현장과의 더 긴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음이 이번 동료심의 제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문제의 원인이 됐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예술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예술위는 기존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앞서 열거한 후속조치들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원예술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포용하면서 사회와 교감해왔습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다원예술의 가치가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III

다원예술 정책지원 제언





PART **III**

다원예술 정책지원 제언

- 정부가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에서 “다원예술”을 통한 다양성 증진 신규 지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예산이 협소하게 배정됨에 따라 그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다원예술 분야는 ‘다원예술’ 용어가 삭제되고 관련 사업이 모두 사라지는 등 다원예술 생태계에 가장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기초예술분야의 다양성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
- 특히 복원시점에 다원예술 사업에서만 시범 실시된 동료평가제도로 인해 예술현장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감
-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생적 기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임
- 본 제언은 TF 회의, 라운드테이블, 포럼 내용을 수렴해서 작성했음

1 다원예술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① 블랙리스트 보완장치 마련

※ 다원예술은 사업명이 계속해서 변화하였고 2021년 사업이 복원된 이후에도 다원예술 전담 사업부서의 부재로 인해 다원예술 사업의 폐지는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참고 『2022 다원예술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06.02.)

② 새로운 ‘다원예술 분야’ 기구 회복 및 사업 재편성

※ 2022년 공공예술 지원사업, 아트앤테크놀로지 지원사업은 2000년대 초 다원예술 분야에서 시작한 정책들로 통합적 예술로서의 다원예술 하위 단위로 재편되어야함.

참고 『2007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새로운공공예술의 공공성』(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06.04.),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12.)

③ 다원예술 담당 위원 선임과 다원예술소위원회 상시 운영

- 다원예술 담당위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와 다원예술 현장과의 상시적 소통

- ※ 다원예술 담당 위원 선임은 7기 위원회 구성에 맞춰 시작됐음. 폐지됐던 사업이 예술현장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하여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다원예술 분야 담당 위원의 선임이 중요함
- ※ 다원예술 소위 운영의 명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정에 이미 명시돼 있다. 올바른 복원을 위해 다원예술 소위를 운영하여 현장의 대표성을 가진 예술가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참고 『2022 다원예술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06.02.)

- ④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현장 간의 상시적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2 문화예술진흥법에 다원예술 명시

-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다원예술' 명시하여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

-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문화예술 범주의 변화
 - 1972년 8월 14일 공표 당시: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한정함
 - 1987년 11월 28일: 무용, 연극, 영화가 추가됨.
 - 1995년 1월 15일: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됨.
 - 2013년 7월 16일: 만화가 추가됨.
 - 2022년 9월 27일: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추가됨

- ②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다원예술인이 '다원예술'에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문예연감에 '다원예술' 분야를 별도로 조사하여 자료화하도록 개편

3 다원예술 생태계의 재구성

- ① 창작지원 확대 :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 다원예술가의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 개선 및 시스템 구축

- 화가의 예술은 그림, 음악가의 예술은 음악, 미디어예술인의 예술은 미디어예술로 평가되어야 함. 현재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지원방식은 오랫동안 그림, 음악, 영상 등 예술의 언어 소외
- 지원신청서는 그림, 음악, 영상 등 예술이 아닌 문자로 변환하여야 인정받는 시스템. 예술가가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장르별 예술 방식이 지원시스템에서 배제
- 예술가의 작품 경력을 인정하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강화하여 예술가가 예술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평가 방법 개선 및 시스템 구축
- 한국다원예술상 신설 : 창작 지원 방식 - 약 1천만원 상금으로 지급
 - 사업비가 아닌 상금으로 지급하여 다원예술인이 현장에서 다원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사례 : 202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전문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다원예술의 특성상 다원예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② 다원예술 활성화 구축 : 행사지원, 매개공간 지원

- 다원예술의 대표 행사 발표지원사업 : 10년 계획 단위
 - 예술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안 확보 : 활동예술인의 5개월 사례비 책정
 - 지역주민과 다원예술인의 인프라 연계 활동 지원
 - 20년 이상 된 다원예술 대표 행사 지원 방안 : 매년 한 축제당 약 1억~2억 지원 필요
 - ※ 특이사항 : 축제 5년간 포트폴리오 제시로 심사 간략화
 - 국제적인 한국 다원예술 인프라 및 담론 형성
- 기준 강화 : 최소 20여 작품 이상 소개, 국제 및 전국 지역 작품, 5년 이상 매년 개최된 축제 및 행사, 다원 예술 활성화를 위해 타 지원금 중복 가능
- 다원예술 매개공간 지원사업 : 다년 지원 사업
 -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 항목 포함
 - ※ 공간 임차료, 예술인 사례비 등
 - 지역주민과 다원예술인의 인프라 연계 활동 지원(4번과 연계)

③ 비평지원

- 다원예술 비평 지원을 통한 담론 형성: 기존 예술 장르가 아닌 비정형 예술을 띠고 있는 현대예술로 적극적인 비평지원을 통해 한국 다원예술의 흐름을 조망하고 기록 및 담론의 토대 형성
- 국민에게 통합적 예술로서의 한국 다원예술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④ 매개공간 및 축제를 통한 지역 플랫폼 연결망 구축(문예위-지방자치단체)

- 지역 예술인 생애주기에 맞는 플랫폼 인프라 지원사업
 - 레지던시 사업 10개월 지원, 지역예술워크숍 5개월, 지역축제 준비기간 포함 5개월 지원하는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칠레의 한 지역 다원예술플랫폼 INVE 사례) 지역에서 예술인에게 유희공간을 제공하고 유희공간을 연구, 창작, 보급 및 교육 인프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지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다원예술 워크숍 및 행사를 함과 동시에 매개공간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문예위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주민과 연결되고 타지역과 소통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 구축 필요

사업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레지던시												
지역워크숍												
다원예술축제										축제		
게스트초청												

⑤ 다년 지원과 재발표 지원 트랙 추가

- 느린 호흡으로 창작할 수 있는 다년 지원사업 트랙을 통해 작품 완성도 향상
- 기존 창작물의 완성도를 보완하여 재발표할 수 있는 신설 트랙 마련

4 예산 확보와 목표치 설정: 연도별 목표

① 지원선정률 현재 3.3% → 33% 조정필요(타 장르 평균 지원선정률 33%)

- 2015년 10억, 2021년 4억8천, 2022년 4억8천, 2023년 9억(22년 8월말 기준, 기재부안 9억 편성 확정)으로 시각, 기술예술융복합, 공공예술, 공연예술 등 타 장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예산
- 지원선정률도 21년도 7.8%, 22년도 3.3%로써 평균 33%인 정기공모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실정

② 2025년 30억 사업비 확보

- 하나의 장르지원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예산 증액에 노력하여 2023년도 예산(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총 8억8천만원)에서 21억 증액하여 최소 3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
- 다원예술활성화지원사업(매개공간, 행사발표)(사업비 5억)과 다년간 지원사업(5억), 재공연·발표 지원사업(5억) 등 2024년 10억, 2025년 11억 증액 필요

③ 매년 지원을 대비 선정률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증액 필요

- 창작준비와 쇼케이스 지원사업은 작품창작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원예술에서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
- 향후 5년 안에 다원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총량을 40억 규모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지원총괄부 아닌 별도 담당부서 필요

5 다원예술 심의제도 개선

① 동료평가 용어의 왜곡 및 기본권 침해

- 2021년도 다원예술 복원 시점에 실시된 지원자 상호방식의 동료평가제도는 유럽과 호주 등 문화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예술가그룹의 동료평가에 대한 용어 왜곡이 있었음
- 무엇보다 심의사례비를 책정하지 않은 심의제도 설계와 지원자가 심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자신의 자유 의지를 침해받은 것은 노동법과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과 행정을 도입할 때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현장예술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자 함

② 현재 지원심의위원 심의방안 개선

- 심의의 공정성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인 분야이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자를 동료로 지칭하는 대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심의위원 풀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심의방안을 연구 필요

③ 심의 불복에 따른 재심의 예비비 확보

- 심의에 불복할 경우 지원자는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행정적으로 심사평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심의위원들에 의해 재심의를 이뤄질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구축도 필요

④ 전담 심의위원 참여 보장

- 다원예술 분야가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의 심의에 다원예술분야 전담 심의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존 장르 안에서 외곽과 경계에 존재하는 창작자의 지원을 고려해야 함

⑤ 예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하는 포트폴리오 심사 강화(50%) 사업 필요

6 기타 제언

- ① 기초예술다양성증진을 위해 단기사업, 중장기사업으로 정책사업 실행
- ② 단기사업에는 예술인의 창작연구개발, 예술인의 작업의 주제와 형식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다원예술상 등 배치
- ③ 중장기사업에는 퍼실리테이터, 대표행사발표지원사업(10년 계획), 매개공간지원사업, 지역의 다원예술육성사업, 우수작품 연속지원사업 등 배치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IV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녹취록

1.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개요
2.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회차(사회 김장연호)
3.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2회차(사회 박경주)
4.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3회차(사회 박지선)
5.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4회차(사회 김건희)
6.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5회차(사회 임인자)
7. 2022년 다원예술 포럼



PART **IV**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녹취록

1.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개요



☑ 배경 및 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2021년 6년 만에 복원했으나, 지원자 상호평가 형식의 블라인드 동료평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현장 예술인들의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는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블라인드 동료평가제는 최종 폐지되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이 복원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원예술 TF를 구성하였으며, 라운드 테이블, 오픈 포럼을 통해 다원예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며, 추후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등을 통해 다원예술 복원의 의미를 살피고 2022년 현재 다원예술 분야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 라운드 테이블은 기획, 예술가, 매개, 지역 등 여러 단위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을 녹취 정리하여 자료집 발간 및 오픈 포럼에서 현장 예술가들과 공유, 토론하고자 함

☑ 라운드테이블 공통 질문

내	용
①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 개인적인 혹은 현재 예술계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시각과 정의 - 지원사업 내 다원예술사업의 복원 의미	
②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요? - 현 예술계에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앞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가야할 방향과 개선점	

2.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회차



▶ 사회_김장연호(다원예술 TF 위원)

-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31일(목) 오후 1시 / 비대면 온라인(줌)
- 사회 : 김장연호(다원예술 TF 위원)
- 패널 : 김현주 달로(영상미디어작가, 미술작가), 오재형(미술작가, 영화감독, 피아니스트), 심혜정(영화감독, 퍼포먼스예술가), 설경숙(다큐멘터리감독, 영상미디어작가), 안정윤(영화감독, 미디어아트작가), 이다은(미술, 퍼포먼스), 김성호(미술평론가, 큐레이터)
- 다원예술 TF위원 : 박경주, 박지선, 임인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총괄부 정준화, 오성근

- **김장연호** : 시각미디어 패널로 사회를 보는 김장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원총괄부 사무처와 TF 위원님들, 그리고 시각미디어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주최인 문화예술위원회부터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경주** :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다원예술 담당 박경주라고 합니다. 다원예술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원예술 사업이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사업 안에 있어서 지원총괄부에서 사업을 모두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다원예술 TF도 지원총괄부에서 책임지고 계세요. 사무처 담당 부장님이신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 **정준화** : 안녕하세요. 지원총괄부의 정준화입니다.
- **박경주** : 그리고 TF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박지선 위원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 **박지선** :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 **박경주** : 임인자 위원님, 잠깐 인사 가능하세요?
- **임인자** :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예술 TF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경주** : 오늘 김건희 위원님은 시간이 안돼서 참여를 못하셨어요. 다섯 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여기서 모인 의

10) 이하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통일.

견으로 4월 28일 포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원예술 TF 위원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하나씩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시각과 미디어 파트, 그 경계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이후 진행은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장연호** :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시각미디어 쪽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시각예술 쪽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협업하거나 복합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예술인 패널을 모셨고요.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김성호 미술평론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시각미디어 예술인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김현주 작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 안녕하세요. 미술 작업하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뽀뽀’이라는 디지털 마을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네. 다음으로 설경숙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설경숙** : 저는 설경숙입니다. 지금 네마프(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에서 몇 년째 부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돕고 있고요, 영상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다음으로 김성호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 **김성호** :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평론하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가끔씩 전시기획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다음으로 심혜정 선생님.
- **심혜정** : 안녕하세요. 저는 심혜정입니다. 미술작가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업의 장르로는 다양한 장르를, 다원예술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영상 위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다음 안정윤 선생님.
- **안정윤** :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작업하는 안정윤입니다. 가끔씩 즉흥/현대무용가, 즉흥/실험음악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다음 오재형 작가님.
- **오재형** :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작업 베이스로 주로 연주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오재형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다음으로 이다은 작가님.
- **이다은** :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각예술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고,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외부 협력자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김장연호** : 오늘 다원예술 분야 라운드 테이블에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원예술 분야가 복원됐는데,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이 정책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화면을 잠깐 공유할 건데요. 제가 여기 참여하신 패널

분들께 이 문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그 사유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기보다 사업 자체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약간 파행적인 운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겨우 복원을 했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원예술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공통되는 어떤 라운드 테이블, 시각미디어 라운드 테이블만이 아니라 매개 공간 축제, 기획자, 행정가 이런 다양한 채널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첫 테이프예요. 시각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이 첫 테이프를 끊고 아마 4월에 다른 분야의 라운드 테이블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다 기록이 돼서 자료집에 실릴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료집에 실린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라운드 테이블마다 서로 다른 질문을 하면 내용이 조금 어수선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된 질문과 함께 각 라운드 테이블마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주제가 따로 있다고 내부에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문서에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공통질문은 다원예술에 관한 거예요. 다원예술이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됐기 때문에, 왜 다원예술만 없어졌는가. 시각예술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원예술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다원예술은 과연 무엇인지. 다원예술의 배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여해 주시는 예술인분들께서 생각하는 다원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들어보고. 지원 사업 내에서의 다원예술이 복원됐는데 올해 800건 정도로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술가분들이 지원 사업을 내셨는데, 그 정도로 다원예술에 대한 기대치가 현장 예술인들에게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김성호 선생님부터 가능하실까요?

- **정준화** : 죄송한데 잠깐 공지사항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눠주실 소중한 의견을 문체부에서 기록물 형태로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분이 참관 형태로 들어와 계시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며, 녹화 내용은 녹취록이 작성되는 대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처음에 소개할 때 빠졌는데 저희 사무처의 다원예술 담당인 오성근 주임입니다.
- **오성근** : 안녕하세요. 오성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김장연호** :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할 때 선생님들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화면에 문서 공유를 한 상태가 좋으신가요?
- **설경숙** : 문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장연호** : 네, 그럼 화면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김성호 선생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개최한 예술비엔날레...
- **김성호** : 트리엔날레...
- **김장연호** :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예술가분들을 많이 보셨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성호** : 아마도 예술사적으로는 20세기 초반에 다양한 새로운 장르의 예술들을 찾는 이증적인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한 1960년대가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상과 예술이 겹칠려 맞물리면서, 예전에 예술이 일상과는 별리 되어 구별될 수 있었던 시기를 이탈하면서부터 복합적 예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일상과 예술이 만나 점점들이 융화되어 일상도 예술같이 되는 경향들. 아마도 이런 것들이 큰 바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쉽게 말해, 다원주의 예술은 근원이 여러 개 있는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멀티플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게 되는 다양한 장르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예술 장르들의 범주들을, 경계를 이탈하는 탈경계라던가 또는 이전에 존재했던 경계들을 믹싱하는 혼성의 경계들의 영역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것은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미술을 찾으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재료,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들이 있던 가운데 촉발된 것도 있고. 그다음 가장 큰 것은 사진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미디어가,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그 매체가 문화 예술 저변을 흐르고 있으니깐 그것을 활용하는.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예술들이 등장하며 예술의 언어가 좀 새롭게 변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예술의 어떤 일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며 혼성과 탈경계, 그다음에 경계의 혼종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촉발되는 계기가 이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서구에서 1960년대 등장하기 시작했던 포스트라고 하는 현상들이, 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혼성과 경계, 탈주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장르를 분류해 봤었거든요. 다원주의 예술의 형식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예술과 비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술이라고 취급받지 않았던 과학이라던가 일상이라던가 언어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게 한 종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특히 시각예술이 베이스가 돼서 다원예술이 조금 많이 끌어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문학이나 음악이라던가, 정형화된 어떤 예술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 예술 유형들이 대부분 다 예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은 연주의 능력이 있다던가 문학은 글쓰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문학은 조금 많이 변했으나... 미술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재현이라고 하는 협소한 예술의 언어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는 잘 그리는 사람만이 예술가였는데, 이후에는 개념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어떤 태도로 예술을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술을 굳이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술가로 등용하는 시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각예술 베이스에서 비미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술의 문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공연이라던가 무용이라던가 퍼포먼스라던가, 이와 같은 원래 비미술적인 예술 요소들이 들어와 미술과 접목하게 되면서의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보고...

또 중요한 건 유형이라고 하는, 미술의 베이스가 거의 유형이었어요. 만질 수 있는 오브제적인 결과물이라던가. 여기에 무형의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시각예술 베이스의 공간예술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며 시간도 들어오고 과정이 들어오며, 결과적으로 오브제적인 결과물이 남지 않는 예술들이 그런 어떤 다원예술의 지침들을 마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아트라던가 개념예술이라던가. 결과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시간상 흘러갔는데 소멸되고 마는 예술 유형들도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사회학적인 담론들과 접목이 되면서, 커뮤니티 아트라던가 사회학적 담론들을 가져다 아이디어 콘텐츠로 풀어서 예술화시키는 작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형과 무형의 콘텐츠가 믹싱 되는 것들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으로 아마도 90년대에도 등장했던 예술 종말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촉발시켰던 예술의... 미술에서는 크라우스의 조각 담론에서, 조각이 가져갈 담론들이 주위의 맥락들을 끌어안으면서 여러 가지 비조각적인 요소들을 함유하며 조각의 다양성을 흐렸던 것처럼, 다원예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이며 혼성과 융합의 형식으로 등장하고 발전해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의를 확실하게 경계 지을 수 없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뭉뚱그려 다원예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2가지 정도 있

는 것 같고요. 이를테면 테크놀로지 발전사에서 자꾸 새로운 이종의 예술 유형이 드러나는 거죠. 모바일아트라던가 위성 아트라던가 GPS를 활용한 예술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아트 등장했고. 한편으로는 아까 무형의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퍼포먼스 위주의 커뮤니티아트 유형들. 주로 이런 것들을 오늘날, 한쪽이 미디어아트 유형 한쪽이 퍼포먼스아트 유형을 일반적으로 다원예술이라고 칭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장연호** : 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김현주 선생님?
- **김현주** : 앞서 김성호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사실 중복될 부분들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로서, 제가 느끼는 다원예술이란 소위 작품을 표현하는 어떤 예술 매체, 그것을 구현하는 장소, 실행하는 주체, 예술가. 다시 말해 예술창작의 구성체로 이야기될 수 있는 표현 매체나 장소, 예술가의 성격이 하나로 정의되거나 고정된 방식이 아닌 예술작업의 주제 및 성격에 따라,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관객의 입장에서 감각을 극대화하고 입체화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작품을 구현하는 예술가들의 매체적 성격이 시각미술이나 무용, 이런 한 장르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예술적 장르에 열려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작가들이 다원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원예술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장소 또한 극장이나 과거 전시장과 같은 닫힌 형태의 장소에서 예술이 감상되었다면, 이제는 기존 작품을 구현하는 영역이 특정 지역이나 자연 공간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것을 예술가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실험적 특성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은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하는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기존의 어떤 서사 방식 이런 것에 가뒤편이 제한된 공간에서 보는 수동적 감상자였다면, 다원예술 작품에서는 오히려 나의 감상적 위치나 시간성을 이동하며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감상자에게도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방식을 제안해 주는, 그런 예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이 다원예술과 관계한 어떤 작품을 상상하게 됐고 어디서 이런 자극을 받았는가 생각했을 때. 일단 사실은 퍼포먼스 형태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가고, 어떤 음악이나 무용과 같은 신체적 장르들을 끌어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2002년도에 독일 남부 쪽 트리어라는 아주 작은 고대 로마 유적이 남아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원형경기장에 가면 항상 정례적인, 말하자면 연극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그 고대 원형경기장에서 연극배우 한 사람을 따라 원형경기장을 쭉 투어하며 기존의 서사, 그곳과 관계한 어떤 이야기들을 감상하고 나오는 어떤 형식인 거죠. 사실 단순히 말하면 투어일 수 있는데, 그 투어가 원형경기장과 관계한 여러 복합적인 내용들을, 정보들을 받으면서도 예술작품 하나를 감상하고 나오는. 또 하나는 그냥 역사적 맥락이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서사에 의해,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들. 그 장소를 확장해서 부분부분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연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여기서 서사를 지우고 원형경기장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장소로 이동한다면,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매일 걸어 다니는 골목길이 될 수도 있다'는 영감들을 막연하게 받고. 닫힌 공간의 퍼포먼스들을 2000년대 초반에 이래저래 작업해오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의식중에 쭉 있다가 구체적인 작업으로 연결된 게 2007, 2008년부터인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사실 영상이라는 작업, 퍼포먼스 영상, 아무튼 그런 형태의 영상 퍼포먼스 형태, 퍼포먼스 영상 형태,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장르가 음악적인 거 신체적인 거 공간적인 거, 영상 자체가 굉장히 융합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형태의 작

업들을 닫힌 공간이 아닌, 참여자를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술가로서도 작업을 해왔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지역주민까지 끌어안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교육 활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결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체 하나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다원적인 형태의 감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들을 계속 고려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짰다거나... 그런 특징이 제 개인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장연호**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심혜정 작가님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다원예술인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심혜정 작가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혜정** : 네, 심혜정입니다. 아까 김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예술을 계속하고 있는, 영상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 지원서도 써보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다원예술 사업에 참여도 해보고,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같이 써보기도 했는데요. 아까 김성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전에 예술은 통합적이었잖아요. 그게 모던이라고 하면서,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사실 교육과정도 옛날에는 통합교육이었는데, 근대라는 모던을 통과하면서 수학, 영어 하며 굉장히 세분화되잖아요. 세분화되는데 요즘은 다시 그런 교육과정도 융합이니 통합이니, 통합되는 과정으로 다시 가는 방향.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 다원예술 지원서를 쓰다 보면 마치 다원예술이 하나의 장르인 것처럼,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그래서 다원예술도 마치 하나의 장르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예술의 경향성이 다원예술로 확정되어 있는데, 다원예술을 지원하다 보면 그 카테고리의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시각예술 쪽에도 지원하다 보면 다원예술에 버젓이 이 정도, 다원예술 쪽에 활동하는 사람은 이 정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면서요. 미술이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하는 장르잖아요. 미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를 벗어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다원예술이 미술을 하는 작가들 위주로 주도가 됐다고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무용 베이스인 사람도 다원예술에 전혀 다른 실험적인 방식으로 공연예술을 가져오고, 공연 방식이 아니어도 가지고 오고. 또 공연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원예술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도 다원예술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요구들과 많은 실험, 창작 의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다시 복원되면서 반갑기는 하지만 좀 더 확장되고 그런 의미를 다시 재배치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 **김장연호** :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안정윤 작가님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 **안정윤** : 저는 영상 베이스로 개인 작업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즉흥/현대무용, 즉흥/실험음악가와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게 다원예술이라고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다원예술 작업을 기획하고 관련 지원사업 기획서를 써본 경험도 없어요. 무용가, 음악가, 거리예술가 분들이 제 작업과 협업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면, 작업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공통 주제에 맞게 영상을 만들고 다시 다른 장르의 움직임, 소리의 요소들과 융합시키기 위해 영상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연예술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다른 장르 예술가와 협업한다고 생각했지, 이게 다원예술에 속한다거나 다원예술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앞두고 다원예술 관련 자료나 작품을 찾아보면서 이런 작품도 다원예술인가, 이런 작품들이 다원예술지원사업을 받아 활동하는구나 하면서 놀랐고, 제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과 활동이 다원예술 분야에 속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융합, 통합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다원에

술 안에서는 다른 분야 간 각 분야의 고유한 요소와 매체가 끊임없이 오고가는 움직임에 의해 서로의 경계를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김성호 선생님 말씀처럼 일상과 예술 간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삶을 이해하고 읽어내기 위해서 예전의 기존 장르만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 장르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각 장르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장르 간 요소가 서로 침투하면서 어디서 보지 못한 낯선 영역이 나타나고 그래서 비주류라는 영역이 생겨나는 같은데, 결국 주류를 벗어나는 것이 다원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성격의 작품을 보면 이런 다원예술 활동이 지금 사회를 더 다각도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이 다원예술을 정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원예술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작업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 **김장연호** : 네, 감사합니다. 예술인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원예술에 대한 어떤 의미,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 너무도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경숙 선생님, 오재형 선생님, 이다은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경숙** :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짧게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존에, 사실 이게 아카데미에서 나온 분류를 많이 기초로 한 것 같아요, 예술의 장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나 매체가 다양한 것으로 향유되고 이용되는 그런 예술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아까 김현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주체의 다원성이 지금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제도적인 거라던가 플랫폼이 되는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의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장연호 대표님이 하시는 '아이공'만 해도 영화와 같은 비디오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을 벗어나는 것 하나만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아직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고 계신 분들의 그런 감각을 제도가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필해서 바꿔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영화 쪽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좀 하고 전년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아이공'에서 영화라는 말도 폐기처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 대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관계가 엄청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아무리 협의를 하고 창작 과정에 같이 포함시키든지 그런 노력을 해도, 그 근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참여형 예술,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것도 좋은 다원예술을 장려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예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그 틀도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일상과 예술이 밀접해지는 그런 변화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상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분들의 예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걸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우고, 발견하는 노력도 거꾸로 행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했던 예술의 형태를 그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해 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죠 물론, 다양한 것을 접해보면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말씀하실 오재형 작가님이 전에 수화 넣고 자막 넣고 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서 또 더 나아가서 화면을 설명하시는 배리어프리 작품도 만드셨고.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 나이, 계층. 그분들의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해보세요라고 소개하는 것 말고, 그런 방식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저도 답은 없습니다만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오재형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 **오재형** : 저도 처음에 질문지를 받고 다원예술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지하게 다원예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고. 특히 동시대 작가들은 여러 가지 소스나 재능을 자원 삼아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의 경계나 정의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로 딱히 뭐라고 잘라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원예술을 포함해서 여러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동시대 다원예술의 흐름이 어떤 건지 부지런하게 살펴보는 사람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얽은 감각으로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을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를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한때 융복합이라는 단어로 많이 거론되었던 예술들. 그러니까 가령 소설을 베이스로 무용 공연을 하는데 영상 스크리닝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VR이나 증강현실, 센서 기반으로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SF적인 스토리와 이미지를 구현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언뜻 떠올랐고, 그런 것들을 국공립미술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띄게 스펙터클하게 기계적으로 얽혀있는 장르들을 지원 주체에서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눈에 띄게 '나 다원예술이야'라고 안 해도, 영상 하나만 봐도 사운드와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살짝 비껴간 것도 다원예술일 수 있고, 공연 자체도 많은 장르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짝 비껴보면 다원예술일 수 있어서, 그런 작업들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 **김장연호** : 오재형 작가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활동 자체가 다원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재형 작가님은 이런 지원 사업을 내본 적이 없으세요. 문화예술위원회 예술 지원 사업 같은 데 내본 적이 없는데 패널로 참여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지원 사업을 내지 않게 됐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재형** : 지원 사업은 아예 안 내본 건 아니고. 신진작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도 여기저기 내고 했는데... 일단 저는 페인팅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영화 쪽으로 옮겨가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 보이시죠. 영상을 상영하는데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지원 사업을 요즘에 내지 않느냐면... 다원예술이 폐기됐다가 다시 온 것도 몰랐어요,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나중에 지원 제도에 관한 현황이나 문제 개선점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뭐랄까요. 저는 지원 제도 자체는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예술계의 커다란 생태계, 지원 제도로 시작되는 창작과 발표까지의 어떤 흐름이 예술계의 큰 생태계가 됐다는,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원서를 그럴싸하게 잘 써야 하잖아요. 지원서의 퀄리티가 점점 상향 평준화되면서 서류 작업 같은 것에 노동력이 드는 게 점점 너무 부담이 되고. 이 생각까지 해본 적 있어요, 이 시대에는 작업을 잘하는 아티스트보다 지원서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돈을 잘 받고 발표까지 이어지니까.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작업을 남들에게 유려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작가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작가들은 지원 제도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지원서 쓸 바에야, 쓰는 시간을 들일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에 작업을 하자고 생각한 지 좀 오래됐고.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지원서만 쓰다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자생적으로 한 번... 이렇게 큰 자본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갤러리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자체 공모를 해서 작가들 전시를 시켜줬다면 요즘에는 지원 사업을 획득해서, 소위 지원금을 물고 오는 작가들이 대관을 하게 되고. 영화도 그래요. 영화제에서 지원을 해주면 피칭을 하고, 그게 당선이 되면 그 영화가 발표에 우선권이 보장되고. 돈 문제가 아니라 지원 사업을 통과해야 발표 기회까지 생기는, 조금 이상하

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사업을 통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발표 기회가 조금 적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원사업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작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이다음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 **이다은** : 오재형 작가님 말씀에 너무 동감하며 들어가시고. 제 이야기가 딴 데로 썰까 봐, 일단 지금 다원예술에 대해 하는 거니까, 그건 지원 제도 문제 할 때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원예술은 학제 간 예술이고,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는 학제 간 접근법으로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작가들 역시 다른 예술 분야나 장르 간의 일종의 횡단적 연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다원예술이 단순히 장르별 혹은 분야별 나열이나 분업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도 창작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은 현장에 있는 활동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작업 방식 자체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개입해서, 교류해서 나오는 형태가 저는 다원예술의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태도가 꼭 매체나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형식에 관련돼서만 다원예술이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또는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과도 많은 연결이 되는 게 다원예술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시의성을 놓치지 않는 다양한 작품 주제도 포함되면서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활동가, 당사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동시대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다원예술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약간 단순히 크로스오버 장르라든지 융합예술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지를 받고 작년 리부트 선정 작가들, 매체 같은 것들도 서치해 봤는데. 선정 팀 매체 같은 것들을 보면 다원예술 작업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매체와 매체 간의 융합으로만 읽혀진 사업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너무 기술, 테크놀로지와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작가들 중 한 명이지만. 기술이 당연히 다원예술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 동시대 기술 자체가 워낙 다양한 외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로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 저는 꼭 그런 첨단 기술이 크로스오버 되어야 다원예술이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적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어떤 전통적 예술의 주제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의 외부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형태라면. 그것이 바로 형식과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바꿔 말하면 어느 장르에 붙여도 다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장르의 예술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에 지원 사업을 많이 냈었는데, 질려서 올해서 하나도 내지 않기는 했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다원예술 분야 지원을 받았고, 문화예술위원회 아카데미에서는 시각분야를 받았는데, 시각도 사실 거의 다원예술 형태의 작업으로 이뤄진 작업들이었고. 난민이나 감염병 이미지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수사 형식을, 일종의 이미지를 퍼포먼스로 바꿔보는 실험을 한 번 해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실제 난민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문화인류학 전공자라든지 독립 연구자라든지, 예술가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네트워킹을 이루고 그 아이디어의 개입 속에서 만들어진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꼭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의성이나 사례적인 메시지를 가진 예술 작업, 예를 들면 학술적 지식이나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로만 환원되는 그런 것들은 좀 거부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런 명제적으로 뭔가 특권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해체하는 방식을 지향하면서 작업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작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작업들이 시각예술이나 어느 특정 장르의 방법론이나 혹은 특정 분야의 시각에서만 이루어지는, 비평으로는 온전히 해석될 수 없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다원예술 작업 자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비평과 논의가 이뤄져야지, 그것까지가 다원예술 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창작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보는 비평들이 이 썬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은 그렇습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약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지의 다음 공통질문이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커다란 질문 안에 지금 현재의 예술계에서 다원예술 지원 제도의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2023년도에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기도 하고 TF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러보려고 합니다. 이다음 작가님이 아까 리부트 사업에 관련된 것도 잠깐 코멘트해 주셨는데, 지원 사업도 내보셨고 하니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다은** : 저도 지원 제도 문제점.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원예술 자체가 독립된 장르에서 벗어나 규정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모호한 다양성 예술을 다루는 것인데. 이 다원예술을 이런 공적 지원 제도의 틀 안에서 과연 다 수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첫 번째로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형식과 규범이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불가능성 위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했구요. 구체적 예시로 작년에 다시 복원된 다원예술 활동 지원 리부트 사업을 예로 들자면, 사실 그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다원예술의 가치들을, 제일 문제가 됐던 블라인드 동료 심사제도에 이 것이 사전에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이를테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라인드라고 하면 언뜻 공평해 보이고, 동료 심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수평적인 구조인 것 같고, 기획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워딩 자체에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수식어들이 너무 안이하고 편리한 개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약간 그런 의심도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다원예술에 대한 각자의 정의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가치들이 너무 다양한데, 이 토양이 살짝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또 한편으로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어쨌든 6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이 유입되면서 특히나 다원예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부터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인지 자체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종합적인 전체가 뭔가 지원 제도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유입된 다양한 장르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여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리부트 사업에 선정돼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던 동료 작가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봤는데, 여러 장단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기획서를 보면서 기획의 완성도나 기획서 작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대답을 해줬는데, 동료 작가들의 말 중에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인상적이었냐면, 어떤 기획서의 완결성으로 평가되는 지원 사업이라면 기존 다른 분야 창작 지원 사업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했고. 어쨌든 다원예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의 내릴 수 없고 비가시적이고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빈 공간의 예술작업의 가치. 이 기획서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런 근원적 의미, 다원예술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원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다원예술을 실제 수행하는 창작자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작년 리부트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심혜정** : 리부트 사업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저는 사실 작년에 기획자는 아니고 참여 작가로, 기획자분이 리부트 지원 사업을 냈는데 저희는 떨어졌어요. 지금 이다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기획서를 본다는 게 사실은 다원예술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되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거꾸로. 사실 그거 아이디어잖아요. 남의 아이디어를. 수없이 많은 페이지들을 노출시킨다는 건 사실 작가의 작업이, 아이디어가 위험해지잖아요. 시나리오라든지, 다른 지원 사업은 철저하게 지원서는 완전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됐었고요. 물론 리부트 사업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블라인드 심사를 안 하고 다시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다원예술이 이것저것 그냥 어떤 실험만 하는 것 새로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원예술도 꽤 긴 시간이 지났고 긴 미술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가 쌓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다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의 작업의 현장에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평이나 심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빈약하게 느껴진다고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다원예술을 그냥 새로움? 실험?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것도 작품의 퀄리티라고 이야기하면, 말에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좋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필드 안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심사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의 어쩔든 같은 연결점들... 사실 지원금 받아서 한국 문화 예술이 더 좋은 작업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이다은** : 네, 저도 기획서를 공개해서 블라인드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 **심혜정** :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동의해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획서 쓰는 게 되게 지치고 힘든 일이죠. 저도 기획서 잘 안 쓰거든요. 누가 쓴다 하면 응원해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다원예술에 작가로 참여하지 기획자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기획자로 다원예술 지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충이나 이런 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는 다원예술 페이퍼가 다른 시각분야 페이퍼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원예술 경력을 쓰라고 하는데, 다원예술 경력이라는 게 다원예술만 하는 작가들은 별로 없고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콜라보를 통해 다원예술도 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어떤 분은 공연 쪽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각예술의 평가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기획서 쓰고 평가하고 결과보고서 쓰고 이런 게 쉽지 않다. 좀 더 다른 다원예술의 기준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는 되게 공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 **안정윤** : 이다은 작가님과 심혜정 작가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면서 작년 리부트 사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사업에 관심을 안 두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내용을 볼 때마다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져요. 다른 작가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지원사업 내용을 읽으면 뭔가 큰 사업을 벌여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소규모의 과정 중심적인 작은 실험을 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잘 들여다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로 연구나 과정 중심의 작은 사업이나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열어놓은 지원사업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다은 작가님이 들려주셨던 작업 경험처럼, 저도 예술 장르가 아닌 다른 분야인 인문상담학연구원과 죽음과 애도에 관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작업이 다원예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소액다کم이라는 굉장히 소규모이지만 작업주제와 형식을 열어둔 사업에 지원을 받아 제가 하고자 하는 기획대로 전시와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은 어마어마해 보여서 제가 감히 지원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동료평가제'에 얽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심사할 때만 동료들끼리

평가하게 할까,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서가 아닌 사업과정에서 서로의 작업과 활동으로 교류하고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심사 단계에서도 서로의 작업을 존중한다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원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 간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고, 다원예술가, 비평가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이나 워크숍 등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 지원사업에 매달리고 선정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너무 급급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시각예술가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각예술분야는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기획서의 방향을 수정해서 다원예술 분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작업 내용을 수정해서 공연예술형식이나 퍼포먼스 형식으로 최종결과물을 내는 경우도 봤는데, 이게 진짜 예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이었나, 예술가들이 지원사업에 의해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장연호** :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밑바탕에 깔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집에도 실리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오재형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초대하신 작가님들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되게 멋진 작업을 선보이시고, 새로운 어떤 장르들을 계속 구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작가님들이신데. 그런데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노고, 작업보다 기획안을 더 잘 써야지 되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되는 노고. 그다음 행정업무까지 영수증 업무까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소모 대신 차라리 내 작업에 소진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나 어떤 작업이나 다른 식의 펀드를 구해서 작업을 만드시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지원 사업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나오느냐에 가장 중요한 평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 사업을 잘 쓰면 결과 콘텐츠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는, 약간 그런 식의 구성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작가님들도 이야기를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재형 작가님 조금 더 가능하실까요?
- **오재형** : 저는 아까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어떤 방식이 편하냐면... 주변 아는 기획자들이 그런 지원 사업을 내서 돈을 따냈다, 작가로서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면 저는 그냥 작품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되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는 한데, 작품 자체만 집중하고 정산이나 기획서나 이걸 기획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편했고. 최근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금의 수혜를 간헐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기획서의 경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영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렇게...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작가님들 의견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 **김성호** :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시각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에 속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지원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개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각예술 분야 안에 분과별로 다원예술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부활했다는 의미는 뭔가... 아까 이다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장르를 특정하거나 설명하기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의 어떤 예술 유형들, 그리고 신생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예술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최근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방향들을 보니까 되게 경쟁을 복돋아서, 마치 국립현대미술관 '오늘의 작가상'처럼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시키고 대부분 탈락시키고, 그중에 남는 알짜배기 작가들 몇 분을 컴패션 해서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인 것 같아요. 다원예술도 시각이나 문학처럼 일반예술 지원 사업처럼, 그쪽에 특정하기 힘든 분야의 예술을 실험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다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일반지원금 제도 방식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 기획사업으로 기획자가 동반

하는 다원예술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술위 차원에서 기획해서 지원 사업을 공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인 지원은 그냥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술 활동을 인정하고, 새로운 예술기획에 대해서 지난번의 예술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식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특정하기 어려운 장르에서 작업들을 계속 수행해왔는가. 그 작가들이 대부분 다원예술인데. 저도 다원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지원 심사를 해보면 대부분 시각예술 파트에서 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무용 파트에서 무용 작업 하시는 분들을 끌어안고 콜라보로 협업하는 전시기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시는 따로 있고 부대 행사 격으로 공연이 들어온다던가 퍼포먼스가 얹힌다든가 자신이 특성화되어 있는 예술 장르를 그냥 인원들이 참여해서 콜라보가 되는 거죠. 아까 오재형 선생님도 제안했듯이 기획자가 그런 것들을 믹싱하는 작업들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원예술이라는 본연의 예술 성향을 이끌어내는 기획자 역할도 있기는 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원예술은 오늘날 특정하기 어려워서, 계보학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예술 장르로 앞으로도 열려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어떤 예술 장르 같아요. 회화의 유전자를 물려받거나 조각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의 새로운 예술 유형이고 어떤 태도라고 하는 말 할 수 없는 지점의 예술들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재기 발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예술가들 또는 스타급의 작가들 예비스타들을 키워내는 장으로 다원예술을 지원 제도에서 육성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협업이나 콜라보를 제안하는 기획서들은 제동을 거는 방식의 일반지원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원 사업에서 새로운 전시 방향에 대한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획도 중요하지만, 다원예술 분야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작업을 했던 작가인지를 알려주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심의를 강화, 지원서 쓰는 항목에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 재단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진짜 기획안만 있어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는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기획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작가가 어디서 몇 회 개인전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한 2줄 정도 직접 기술할 수 있는 방식에 작가가 사심으로 거짓 정보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에 어떤 개인적 특성이었다고 설명해 주는 작가의 진술도 필요할 터이고요. 시각예술 작가인데 다른 작가와 콜라보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다원예술가다'라고 하는 작가를 자꾸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심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 **김장연호** :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련해서 아직 이야기 못하신,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주 작가님, 설경숙 작가님이 아직 이야기를 못하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기도록 할게요. 김현주 작가님.
- **김현주** : 사실 뭐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김성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심사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저는 이다음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다원예술이라는 게 소위 아버지가 모호한 예술이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도 한 사람의 기획에서 완결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현재 다원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의 기획에서 완결된 그런 창작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창작을 목표로 여러 다양한 예술가들이 만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도, 말

하자면 이 지원 사업의 다른 한편에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콩플렉스 카파르나움'이라는 소위 미디어 거리극을 하는 예술가 단체가 있는데, 주요 멤버들은 있고 그 과정 안에서 공연에 필요한 어떤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섞이고, 어떤 그런 느슨한 공동체로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들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다원적인 실험들이 매번 공연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에 이들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콜라보로 작품을 각각 리옹이라는 장소와 서울의 노들섬이라는 장소를 거점으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각예술가, 무대미술가, 연극 연출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었고, '콩플렉스 카파르나움' 안에서도 예를 들면 사운드 아티스트, 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단하게 다원적 형태로 멤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역량 강화 이런 것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을 실제로 참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을 그 주제나 완성해 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였거든요.

또 재미있던 건 이게 누구 주체의 한 사람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것보다, 오히려 작품 자체가 그 구성원들이 모두 같이 합세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내 작품이 리옹으로 갔다가 그 작가들이 만져가지고 오고, 그 작가들이 한 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지고, 사실 제가 이런 형태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상하다, 내가 맡은 어떤 룰들이 항상 정해져 있었던 반면 이들과의 교류에서는 던지고 핑퐁 하면서 새로운 어떤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실험적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늘 매력적이고 어떠한 현장에서든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관객이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질문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공모 방식, 포트폴리오도 약간 미약하고 혹은 기획서상에서도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검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의 역할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양한 작가들이 열려가지고 이것들을 계속하려면 우선은 이 지원 방식이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게 사라졌었는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술가들한테는. 다원예술이 지원 사업은 없어졌지만 계속 여기저기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 주체로서 완결된 작품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정말 새로운 형식의 것들을 만드는 실험의 장도, 한 컨으로는 사업 안에서 그 장을 마련해 준다면 예술가들이 되게 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장연호** :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혹시 설경숙 선생님도 더 하실 이야기가가...
- **설경숙** : 저는 특별히는 없고요. 김현주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고. 저는 다원예술 창작가로서 여기저기 지원해 본 경험은 많이 없고, 영상예술 베이스인데. 마지막에 나왔던 포트폴리오와 다원예술가로서 역량평가 부분은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런 데서 기획자나 큐레이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다원예술에서는.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가 특히 다원예술로 딱히 규정되어지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영상예술이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는 특히나 좀 닫혀있는 그런 분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미술 쪽 분들이 많이 하셨던 거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묶어주는 어떤 장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이유 플러스 기존에 했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시도로, 일부러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경우도 보기는 했거든요. 물론 그 작가의 역량 문제는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향후의 가능성?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지원 주체나 생산 주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짧은 코멘트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장연호** :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역량평가뿐만 아니라 그 출품자의 어떤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 **설경숙** :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심사 풀에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 **김장연호** : 다들 공통질문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셔서 한 시간 반 정도 흘렀어요. 이제 라운드 테이블 개별질문 두 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시각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 활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 분야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에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이 없어지면서 그 사이에 새장르공공예술 지원 사업이라던가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는 있는데. 이런 사업과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 좀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점은 무엇이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지금 현재 있고, 이 지원 사업에도 다원예술... 예술인들이 사실 많이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김성호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기술 쪽, 테크놀로지 쪽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김성호** : 이 부분은 개별질문이 아까 공통질문하고 조금 연결되는. 그래서 특별하게 또 같은 이야기를 드릴까 봐... 어쨌든 매체가 발전하게 되면서 예술의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 가지는 지점은 예술 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정체성이나 위상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콜라보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각 장르에서 다른 예술을 하면서 또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어떤 다원예술의 장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한 작가가 다원예술적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작가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원예술을 다른 예술들과 어떻게 차별성으로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매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예술 유형과 다른 지점이, 뭐 시간이나 개념의 유입이 혼성화되면서 창출되는 예술 유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원은 다원이라고 하는 말처럼, 근원이 어떤 하나의 유전자를 타고 내려오는 하나의 계보이기보다는 좀 여러 곳인 건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관점이 되겠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지각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 시각예술이라서 눈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미술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런 유형들이 좀 다각화되었지 않는가. 그런 걸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까지 공감각적인 요소가 다원예술을 수용하는, 어떤 감각의 확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예술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다원예술의 범주 및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 **김장연호**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운드 테이블 개별질문에 시각미디어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 디지털미디어로, 거의 대부분 카메라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김성호 선생님도 미디어 아트나 이쪽에서 되게 꾸준히 기획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상화가 됐잖아요.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상화가 다원예술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술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에서도 그런 유형의 새로운 장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원받는 사업에서도. 그럼 이것은 같은 것인가.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의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VR 아트라던가 VR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예술 형태의 작업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원예술 같은 경우

에도 디지털미디어가 워낙 일반화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비슷하지만 조금 뭔가 다른.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술의 형식에 기술 매체 중심이 아니라 예술 중심인 게 사실 다원예술인 것 같아요. 약간 트랜스적인 그런 작업들이 보여져도, 기술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먼저 보이는 게 사실은 다원예술이라는 생각이 저는 틀더라고요.

- **김성호** : 그 부분에서 다원예술의 범주 및 차별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김장연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과 기술 융합을 다원예술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다원예술이다'의 '정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 그리고 다원예술은 그런 매체와 기술의 키워드 말고도 다른 부분의 키워드들이, 아까 다원예술이 무엇이나라고 정의하며 나왔던 담론과 겹치듯이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마무리해 봅니다.
- **김장연호** : 혹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다는 작가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 **이다은** : 저도 공통질문이라 너무 많이 연계돼서 반복될까 봐 그러는 거긴 한데. 저도 기술 테크놀로지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건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 외부 협업자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선택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안 그런 작업들도 있지만, 최근 다원예술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아까 김성호 선생님도 굳이 기술적인 그런 게, 그것도 역시 다원예술이지만 그것만 다원예술인 것은 아니듯이. 저도 어쨌든 너무 매체와 매체 간의 어떤 융합이나 매체의 형식 실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아야지 다원예술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연구 방식에 개입될 수 있어야 되면서 통합적이고 다원적인 의미를 도출해 내어야지만 그게 다원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사업 선정작들을 봤을 때 작업이 되게 자본주의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공통적인 현상인 거... 특히나 다원예술이나 융복합 쪽을 보면 되게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선정되고 있고, 그게 다원예술에도 되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자본이 많이 투입돼야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기술 개발에 특화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기술접근성이나 정보적 측면이나 자본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선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장연호** : 시각미디어 채널 라운드 테이블이다 보니까 공통질문에서 시각미디어에 관련한 내용이 사실 거의 다 나왔어요. 시각미디어 예술인으로서 다들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공통질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별질문에서 다원예술과 예술과기술융합 지원이 상당히 중복된다 이런 의견이 또 있거든요, 정책하시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동안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이 없었을 때에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젠다라던가. 아니면 다원예술 분야가 조금 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술인분들한테 한 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정된 작업들이 디지털미디어가 개입되지 않은, 이 매체가 개입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디지털미디어가 기본 베이스로 매체가 깔려있는 작업의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달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 질문을 좀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더 첨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아니면 이 주제 말고도 다원예술 부분에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다른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박경주** : 임인자 위원님이 잠깐 손드셨는데.
- **임인자** : 저는 발언권이 혹시 없나요?
- **김장연호** :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라운드 테이블은 패널 분들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처와 다원 TF는 경청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임인자 선생님 이야기하셔도 되죠.
- **임인자** :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예술 TF에 참여하고 있는 임인자이고요. 저는 오랫동안 '변방연극제'라는 연극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소년의서'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연예술 베이스다 보니까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손을 든 이유가, 제가 조금 있다 나가야 돼서 죄송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공연은 항상 협업 기반으로 항상 창작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예술 가분들과 만났을 때 이런 협업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쭙보고 싶었고. 저는 말씀 들으면서, 블랙리스트로 다원예술이 사라졌잖아요? 그 시간의 공백이 굉장히 크구나. 6년이 정말 만만찮은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변방연극제'를 하면서 연극제라는 이름이지만 연극이 아닌 것들을 하려고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로서의 예술 활동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활동이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며 굉장히 많이, 사실은 많이 분노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많이 공감되고, 저도 다원예술 TF로 참여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나 이런 만남들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네요.
- **김장연호** :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하죠, 네.
- **임인자** : 네, 이상입니다.
- **김장연호** : 박지선 선생님도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 **박지선** :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술... 지원 제도 안에서의 어떤 예술가들의 삶과 고민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다원예술이 사실 지난 6년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 제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술가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생존해야 됐고 어떻게 그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어떤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있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다원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좀 확장된 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장연호** : 다원예술 위원이신 박경주 위원님도 한마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경주** : 오늘은 패널 분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 신청을 안 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원 작업을 하시는, 근본적으로 그쪽 기반인 분들은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저는 많이 느껴지고요. 저도 안 했거든요, 저 초차도. 위원 되기 전에 5~6년 다원예술 작업을 못하고 다문화 뮤지컬을 했습니다. 의미는 있는 작업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다원예술을 못하고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 하고 내 거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문화예술위원회 안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고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상황에서 '작가들은 막막하게 자기 일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복원됐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대신 사과드립니다, 대신 사과드리고요. 저희 TF가 되게 짧은 기간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 모아서 다원예술 내에서도 의논이 되지만, 아까 박지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체계 자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팬데믹이 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작가에 대한 지원은 되게 많고 프로젝트성 사업은 이제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독일쪽 뉴스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위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독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왔어도 오히려 저희가 제도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데요, 또 막상 예술위에 들어와서 보면, 저희가 기부금 관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고 예술가들은 힘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지원서 안 쓰시겠다는 심정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장연호** : 지원 사업이든 시각예술, 어떻게 보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다원예술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술인분들이 6년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은 확실히 맞고요.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원예술 분야가 현장의 어떤 실제에 맞게끔 지원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원 사업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합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안정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획안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100건 중에 1건 정도 될까 말까니까, 보통 지원서를 잘 쓰지 않는 이상 선정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선정되신 분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기획안을 더 잘 쓰겠죠. 그래서 지원 사업에 반복적으로 선정이 되는 작가분이나 예술인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그냥 1년 내내 사업을 내도 선정이 안 되는 어떤 작가분들이 또 있는데, 사실 다원예술이나 되게 애매한 예술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예술인은 다원예술 쪽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 똑같이 비슷하게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6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씬 없이 해왔던 작가들의 작업들을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예술가분들은 작업에 가장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소모가 아니라 사실 나의 가치거든요, 예술작품에 내가 한 어떤 실행이. 그런데 거기에 행정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예술가분들이. 행정 부분 자체를 되게 간소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행정 부분 담당을 아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 기관에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든. 지금 3.3%든 원천징수든 회계감사든 고용보험이든 이런 것을 예술인이 다 직접 발로 뛰어서 정산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일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심혜정 작가님.

- **심혜정** : 정산 관련해서 임인자 선생님도 그렇고, 다 정산해 보시면. 사실 다들 정산 때문에 다음에 지원서 안 낸다고 짜부러지는 사람이 많아서. 왜 유독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정산 관련 어드바이스나 세무 관련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왜 안 하는지 사실.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안 해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쭙보는 거예요. 되게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와있는 문제이고, 다들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특히 요즘 작년에 공공미술, 재작년 하고 많이...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신 작가들도 다시는 공공사업 지원 안 하겠다고, 정산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1년 동안 정산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고. 세무 관련

이나 정산 관련해서 담당자가 있어서 도와주고 하는 외국 같은 사례도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하셔서 좀 한 번 여쭙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 **김장연호** : 부장님.
- **정준화** :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계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법인이 붙어서 정산 처를 다 봐주는 제도는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수증 다 보면서 정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e나라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녀석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실 때는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그 부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운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제가 지금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획재정부¹¹⁾를 가면 예술계의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산보고서 간소화하고 자부담 10%, 자부담 자체를 폐지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기재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왜 당신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만, 그 상위에는 보조금법이 있어요. 문화 예술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조금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 현장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그걸 열어 주는 데는 대단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예를 들어 국무총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건의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는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게, 그렇게 되면 왜 예술 분야만 그렇게 해주냐는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답을 못 주시는 상황이에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장연호** :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심혜정** :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 **김장연호** :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2시간 정도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심혜정 작가님부터 한마디씩 들어보고, 다원예술이 어떻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 **심혜정** :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하죠. 지원 사업 같은 걸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 중간에 끊기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기획자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어쨌든 다시 복원돼서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이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나눠서, 저도 많이 들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 **김장연호** : 네. 그 다음 김현주 작가님.
- **김현주** :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건, 아무튼 예술과 기술 융합 부분이 3년간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았고 다원적인 부분들과 교차됐던 이유는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술과 기술이 융합해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지금 팬데믹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예술로서 감각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시기에 교육에서의 그런 변화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모두들 이제 좀 건강하시

11) 이하 '기재부'로 명칭 통일.

고. 갑자기 건강을 기원하니까 좀 씩스럽긴 하지만. 네. 우선은 저는 이 다원예술 분야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지속이 돼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어디에도 한 축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한 오늘 자리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 **김장연호** : 안정윤 작가님.

● **안정윤** : 김현주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던 예술과 기술 융합에 대해 좀 더 덧붙이자면, 팬데믹 이후에 제 자신의 삶과 작업이 기술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고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이 다원예술 지원사업과 또 다른 점은 인간과 기계, 기술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지 사유한다는 점, 거기에 더 초점을 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앞두고 다원예술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며 작업에 대한 고민을 갖는 시간이 있어 좋았고, 비대면이지만 이름만 들었던 작가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작업하고 어떤 점이 힘든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김장연호** : 오재형 작가님.

● **오재형** : 저는 말씀들 들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많은 지원 사업에 냈고 받은 건 아니지만 가장 좋았던 걸 떠올려보면 예술 인복지재단에서 주는 창작지원금 있잖아요, 300만 원 주는 거. 격년제로 응모할 수 있고 정산 거의 없고 그냥 간소하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 중심의 어떤 지원이겠죠? 그게 체계는 가장 큰 도움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위주의, 자기 경력을 근거 삼아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프로젝트 기획성이라는 지원 제도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성 간소화된 지원이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저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소액이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까 김현주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원이라는 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이라는 게, 심리적 지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의 작업을 정말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술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들에 너무 각자 떨어져서 외로운 섬처럼 작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판만 마련해 줘도 되게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꼈습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김성호 선생님도 한마디해주세요.

● **김성호** : 네.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다원예술이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어떤 특정, 유형화되지 않고. 아까 이다은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히 자본화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정의하는 문제가 또 재정적 되고, 또 재정의 될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특수한 유형의 예술 장르, 그 경향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이 더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국 미술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저도 여러 선생님들 얼굴 뵈고 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많은 의견들도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장연호** : 네. 이다은 작가님.

● **이다은** : 저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작업을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작품, 사업 후에도 혹은 심사위원 풀에도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다원예술이 저는 정말 어

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원예술 작업장이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트러블도 많고, 되게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원예술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들 응원하는 마음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어쨌든 다원예술 사업성과나 의미들을 논의하고 비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서 예술의 가치나 핵심적인 함의가 축적돼가지고 예술을 하는 창작자들이나 창작자들을 벗어나서 일반 대중, 사회에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설경숙 선생님도 한마디해주세요.
- **설경숙** : 저도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기술과의 융합이... 지금 든 생각이 정서적 지원, 자본의 지원, 뭐 회계 지원까지 많이 나왔는데 기술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왜냐하면 다원적인 기술을 예술가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작업 관련해서 뭘 찾다가 발견한다던가, 예를 들면 과학자가 현미경만 들여다보다가 그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으로 예술을 하고 싶어서 한 그런 게 있는데, 이미지 자체로 너무 아름다웠으나 사실 의미적으로는 1차원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예술가로서 더 주목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식의, 특히 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과 매칭할 수 있는 지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다원적인 분야의 기술이나 뭔가가 사용됐다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다원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다원적인 사람들은 끌어들이 수 있는가. 그런 효과 면에서도 많이 평가되고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장연호** : 감사합니다. 오늘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다원예술 관련 라운드 테이블을 시각미디어 쪽 채널로 진행했는데요.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원예술은 현장에서 보면 3가지 트랙이 있는 걸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중간중간 더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 작가가 다원예술적인 어떤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창작자의 형태인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오재형 작가님, 이다은 작가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특성으로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작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큐레이팅으로,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업해서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 내는. 다원예술인데 협업 작업들 이런 형태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개의 어떤 프로젝트, 매개 축제라던가 매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다원예술의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미술가도 참여하고 음악인도 참여하고, 약간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축제로는 네마프 같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어떠한 매개의 장소에 모여 서로 교류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들과 에너지들이 다원예술 작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사실 그동안 다원예술의 어떤 분야에 약간 트랙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로 참고가 돼서 내년 2023년도 지원 사업에 다원예술이 더 복원되고, 예산도 좀 더 증액되고, 예술인들의 작업에 활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둘 수 있도록 잘 반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시각미디어 트랙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위원님 한마디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박경주** : 사실 다원예술, 그 사업도 중단됐지만 다원예술 담당 위원이 없었던 것도 지난 5~6년 동안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 다원예술 담당 위원으로서 좀 어렵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다원예술 담당위원이 현장과 라운드 테이블 하고 포럼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예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분들이 8, 9기 위원에 지원 신청하셔서, 오히려 다원예술이 문화예술위원회 안의 분위기 바꿔줄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만약에 블라인드 심의 방식, 동료 평가

방식을 다른 장르에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원예술가들에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철학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좀 힘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현장에 다시 연결이 되고, 다원예술 현장 생태계가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싹을 돋우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쁜 일은 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하자면 8기 위원을 또 뽑으니까요. 제 임기는 5월 4일까지거든요. 오늘 계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분들이 경쟁해서 정말 괜찮은 분이 또 위원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장연호** : 네, 그럼 오늘 공식적인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2회차



▶ 사회_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 TF 팀장)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1시 / 비대면 온라인(줌)
- 사회 :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원예술 TF 팀장)
- 패널 : 고주영(독립 프로듀서), 김윤환(예술사회연구소 대표), 김지연(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샤사 폴레(Sascha Pohl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교수),
성용희(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담당 학예연구사), 황지운(예술단체 마리모, 사회적 예술),
이일록(예술위 현장소위 위원), 헤디 포르투나(Heady Fortuna, 배우, 통역자)
- 다원예술 TF위원 : 김장연호, 임인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총괄부 정준화, 이지현

- **박경주** : 안녕하세요. 본 라운드테이블 관련 연락 드렸던 박경주입니다. 저희 다원예술 TF는 작년 '블라인드 동료평가제' 실시 이후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많은 이의 제기로 그 후에 폐지되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TF이고요.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과 포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 작년에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예술인복지재단 통해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 와 계십니다.
- **정준화** : 안녕하세요. 지원총괄부의 정준화입니다.
- **박경주** : 다원예술은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사업으로 지원총괄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이지현** : 이지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주** : 저희 지원총괄부 대리님이시고. 그다음 저희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임인자 위원님 참가하고 계세요.
- **임인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인자입니다.
- **박경주** :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주영 피디님 참여하시고요.
- **고주영** : 안녕하세요. 공연 기획하는 고주영이라고 합니다.
- **박경주** :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연 큐레이터님.
- **김지연** :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전시기획하고 있습니다.

- **박경주** : 그다음에 사샤 폴레 교수님.
- **사샤 폴레** : 안녕하세요.
- **박경주** :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사진과 영상 관련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전담해서 많이 가르치시는데,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¹²⁾ 현장소통 소위원회¹³⁾에 민원도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용희 큐레이터님.
- **성용희** :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원예술 담당하고 있는 성용희 학예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경주** : 그다음 예술 단체 마리모 대표님.
- **황지운** : 안녕하세요. 예술 단체 마리모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소설 쓰고 있는 황지운이라고 합니다.
- **박경주** : 그다음에 저희 현소위 이일록 위원님 와 계시고요.
- **이일록** : 안녕하세요. 현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고, 2~3년 전에 부산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경주** : 오늘 저희 통역으로 독일어 한국어 영어 다 가능한 헤디씨, 중앙대학교에서 연기 전공으로 막 졸업하셨고 지금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라운드 테이블이 5회인데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두 개 있어요. 그 2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3개 정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진행하면서 시간을 보고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별도로 드린 개별 질문 중에 '지원기간의 행정지원 및 예술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을 저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이 듣고 싶어서요. 일단 공통질문 2개를 하고 뒤에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라운드 테이블 전체 공통질문이고요. 첫 번째 '오늘 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2가지, 개인적으로 또는 현재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에 대한 시각과 정의 또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내에서 다원예술 복원 사업의 의미. 이렇게 2가지를 고려하시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원예술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가 복원이 작년에 됐는데, 그 복원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원예술 사업을 왜 복원해야 되는지, 그게 저희 지원 사업 내에서나 전체 예술생태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화** : 말씀 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라운드 테이블 5번 진행하는데 나중에 자료집 형태로 결과물을 모을 계획이고요. 다원예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자료집을 만들 예정이어서 현재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녹취를 위해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녹화 영상은 녹취록 작성하는 데로 폐지할 예정이니 녹화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주영 피디님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주영** : 다원예술은 사실은 정의할 수 없어서 다원예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정의에 대한 요구나, 정책에서는

12) 이하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통일.

13) 이하 '현소위'로 명칭 통일.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다원예술 전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 제 스스로 저의 작업을 다원적인 작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술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관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기반 장르가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습을 좀 뒤집거나 확장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모인 장 혹은 그런 경향을 다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경주** : 네, 다음에는 김윤환 선생님.
- **김윤환** : 가나다순으로 제 차례인가요? 우리 박 위원님이 제 이름은 소개를 안 하셨어요.
- **박경주** : 정말요? 죄송합니다.
- **김윤환**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대신하고요. 아까 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원예술을 규정하기 어려운 예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예술 장르 개념이라든지 분야 개념, 현실적으로 말해왔던 경험적인 예술 실천들. 이런 것들을 일부는 서로 섞인다든지 융합된다든지 또 협업한다든지, 그래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원적 예술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원예술은 제게 있어서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경주** : 제가 아까 소개를 놓쳐가지고요. 김윤환 선생님은 지금 '예술사회연구소'의 대표이시고 포항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오아시스 스카트 프로젝트'라고 예술가들이 빈 공간 점거하는 퍼포먼스도 하셨고 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큐레이터님.
- **김지연** : 안녕하세요. 다원예술에 대해서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어의 등장 배경에는 틀림없이 지원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제도가 규정했던 어떤 장르 간의 구분, 그 틈 사이에 있는 많은 예술 활동들이 다원예술로 명명되었던 역사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다원예술은 장르적 개념은 아니고 태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브한 말하기는 하지만 언급하셨던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열려있는 것? 장르에도 갇히지 않고, 주제나 방법론에도 갇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런 열린 태도? '그런 것들이 기본에 있는 게 다원예술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주** : 제가 질문지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혹시라도 많이 부족하면 사샤 폴레 교수님은 제가 따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샤 폴레 교수님 차례인데요. 지금 괜찮을까요?
- **사샤 폴레** : First of all, I was a bit confused about the term "Dawon art" because I didn't understand what it meant. I asked some Korean artist friends and many translated it as interdisciplinary art. However, it doesn't literally mean interdisciplinary art, but multi-origins, right? I've also learned that it's more of a category made up of the foundation's application process for artworks or artists who don't fit into the classic art disciplines. But then I also learned again that the Dawon Art section focuses on performance-based and community art. However, I more understand the term interdisciplinary arts that artists combine with other industries, overlap, or work in the fields of science, theater, design, fashion, and crafts for example. In my own practice, it's very natural to work between media, although I wouldn't define myself a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I don't know exactly how I would like to define my practice,

and it also doesn't even matter that much.

- **헤디 포르투나(통역)** : 학제 간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정의입니다. 우선, 저는 '다원예술'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또한 몇몇 예술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학제 간 예술'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이 학제 간 예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이 되면 '멀티 오리진' 같은 뜻이죠? 저는 또한 이 정의가 신청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범주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예술장르에 맞지 않는 특정 예술 작품이나 예술가를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저는 한국의 다원예술 기금 신청 코너가 퍼포먼스 기반의 커뮤니티 아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술가가 과학, 연극, 디자인, 패션 및 공예 분야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거나 교차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학제 간 예술'이라고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을 다학제적 예술가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의 작업에서 미디어 사이와 경계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작업의 수련과정을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 **사샤 플레** : Perhaps interdisciplinary art often has something to do with learning, because we can always bring something from other disciplines into another. I worked with artisans. I like crafts. I want to say that it's basically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to me and maybe interdisciplinary art is nothing new. I mean, as we all know, if you go back to Leonardo da Vinci as an example, he worked in science but at the same time he was a painter. Interdisciplinary work is a lot of discovery in different fields in order to be redefined again and again, which is also something that is very natural for an artist. I think interdisciplinary art is a term... how old is that? I don't know exactly, around 15 years old. A term that may have been created for the sake of categorization. Otherwise I think it's something very natural, it applies to individual artists and also to groups of artists, collectives, collaborative practices etc.
- **헤디 포르투나(통역)** : 학제 간 예술은 우리가 또한 다른 학문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종종 배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인들과 협업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을 좋아합니다. 저는 또한 이것이 저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제 간 예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며 학제 간 예술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돌아가면 그는 과학 분야에서 일했지만 동시에 화가였습니다. 아마도 학제 간 실습은 다른 분야에서의 발견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고 새롭게 정의되는 것은 예술가가 해야 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제 간 예술이 전문용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다원예술)가 만들어진 것이 몇 년이 됐습니까? 약 15년 정도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관료적인 범주에서 어떤 것을 정의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별 예술가와 예술가 그룹, 콜렉티브에게도 적용됩니다. 용어 자체는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 **박경주** :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성용희 학예연구사님 부탁드립니다.
- **성용희** :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 기존의 장르나 과거의 관점이나 잣대로 정의할 수 없거나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동시대 사회와 현실에 대한 예술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정의나 '다원예술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원금 안

에서 이야기가 될 때는 누군가가 이것들을 영토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원예술이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정의하는 순간 그런 쪽에서 '이것만이 다원예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원예술의 기금을 받게 된다'는 영토화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구체적으로 혹은 특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완전히 열려 있고, 그전에 장르에서 좀 소외됐거나 아니면 벗어나 있었거나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누군가가 여기서 깃발을 꽂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경주** : 감사합니다. 다음 마리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 **황지운** :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많이 하셔서 딱히 내 차례가 돌아오니깐 뭘 더 말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앞에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처럼 다원이라는 게 정해지거나 어떤 경계 바깥에 어떠한 장르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현재 다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원예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것의 범위를 완전히 넓혀가는 그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가부키(歌舞伎)나 노(能) 같은 연극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900년대 초에 신파극이 탄생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에는 어쨌든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현재 우리가 보는 다원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일록 현소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일록** : 저는 다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는 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을 복원하면서 일어났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문제들 그게 가장 크게 떠오르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장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가지가 제가 지역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한 3년 전쯤에 부산 문화재단 기획팀에서 일을 할 때 백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작가들이 여러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떤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그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뭐가 좋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다원예술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재단에서 일하는 보람을 잘못 느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 마지막 한 장면은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옆 재단들을 스캔해봤거든요. 다원예술과 관련된 현재 담당자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 스캔을 해봤을 때. 의외로 제가 두 번째 장면에서 느꼈던 보람과는 상반되게, 이것도 아마 이후에 논쟁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원을 담당한다는 직원들, 재단의 스텝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듦의 이유가 뭐냐'하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제가 모니터링을 한 2~3개 재단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예술가분들이 다원에 대한 어떤 시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르 예술에 지원하고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 기획서에 한 장르 정도만 더 붙여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예술을 심의하거나 혹은 심의 전에 체크하는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다원예술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현시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원예술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도나 모험이나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기존 지원 사업 틀 안에서 탈락되거나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 좀 격하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상황들이 지역의 현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번에 모니터링하면서 들었던 세 번째 장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야기 속에서 제가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저희가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

인가, 그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6년 동안 폐지됐다가 그것도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왜 지원 사업을 복원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체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패널 분들이 계신지. 추가로 말씀을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없을까요. 그 사이에 다원예술 TF 위원이신 김장연호 위원님 들어오셨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윤환** :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원예술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맞죠? 박경주 위원님.
- **박경주** : 맞습니다.
- **김윤환** : 홍대 앞에 다원예술 공간도 운영하고 그랬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90년대까지의 예술 경향 대비 2000년 초반부터는 정부의 정책 자체도 상당히 다원화된 면도 있죠. 또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차원의 정책 개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흐름과도 유관하게 진행이 됐던 이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문화 예술에 굉장히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왔다는 면에서 다소 정책상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다원예술 분야는 복원돼야 하고 기존보다 더 확대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예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예술로 생각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주영 피디닝에게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블랙이 피해자가 됐다는 게 다원예술가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복원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블랙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복원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서 고주영 피디닝께서 조금 말씀을 더 보태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 **고주영** : 아마 다원 블랙리스트의 발단이 됐던 '안산 순례길'을 제가 기획해서 지정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다원에 대해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정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창작자의 삶이라든지 창작자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가장 여과 없이, 어떤 가공 없이 가장 사실적으로 목소리를 스트레이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르가 다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돼서 예술이 해야 되는 지금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을 당연히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공통질문인데요.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예술계에서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갖고 있는 현황이나 문제점. 또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복원이 됐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서 끊어졌다가 복원됐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당대 예술계의 생태계를 같이 잘 살펴보면서 지원 사업이 가야 되니까. 그런 방향성이나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이일록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 **이일록** : 아까 이야기했던 맥락에 이어서 제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조금 전에 복원의 의미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예술가분들도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그 현상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2021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알고는 계시지만. 꽤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은 그조차도 아직은 인식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다는 게,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조금 아이러니일 것 같기도 한데. 다원예술이 태생하고 생성되었던 장르 예술 중심의 환경 속에서 다원예술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면 좀 더 다양화되고 보편화되고 이래야 될 거 같은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은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니터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선정률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안 해봤지만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된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거 같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이나 이런 쪽은 지원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역재단이 다원예술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기획서가 들어오게끔 해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제도만 따서 예산만 확보하고 공고 내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루틴으로만 움직이다 보니 좀 더 고민하고 작업의 의미 부여를 활발하게 찾는 분들은 충분히 다원예술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 장르의 확장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장르 예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질 경우 거기에 조금 다른 장르를 붙여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것을 그냥 다원예술이라고 인식하는 어떤 틀이 규정되어버린 거 같아서 저는 사실 이번을 준비하면서 되게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포럼의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을 복원을 했고 올해도 쪽 사업을 하나갈 때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도 다원예술 사업비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아마 대부분의 광역재단들은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일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혹은 연계해서 사례라든지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어찌면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예산은 아마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다원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예산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다원작업의 결과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작업의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공유화되고 지역에도 전파가 되면서 다원예술이라는 게 저런 작업으로 할 수 있구나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 **박경주** :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별로 다원예술의 양상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이시고. 올해 2022년 공모부터는 다원예술의 지역할당제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다원예술 전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22년도에 833건이 접수가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3% 정도만 선정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7.8%였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확보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8기 다원예술 담당자분이 지역과 같이 심포지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꼭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모 단체 대표님 하시겠습니다.
- **황지운** : '다원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거의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약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원서를 쓰는 입장이고, 작년에도 2021년 다원예술 리부트를 썼다가 동료 심사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제일 고민이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것은 다원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없는 채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지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까 이일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다

른 장르에 다른 장르 하나 덧붙이는 게 다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디까지를 다원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장르로 봐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다원도 문학도 시각예술도 공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넣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각예술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문학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넣는데, 그럼 우리는 다원으로 넣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서를 쓴 예술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요. 명확하지 않고 경계가 없고 새로운 것이 다원예술이라는 건 정말 좋은 면이긴 한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기준이라도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경주**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지난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저희 원래 다원 예술 사업이 시작될 때 성장했던 예술가들이 지금 40대 이상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사이에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약간 막막한 게 있다는 게, 같이 연장선에서 느껴집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용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용희** : 저는 조금 다르게 방향을 한 번 잡아보자면 제 질문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 진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 제도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다원예술이 장르가 아니라고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지원 제도가 전부 다 장르 기반으로 되어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장르의 결과물로서의 지원 제도에서 마지막에 나와있는 다원예술이라면, 우리끼리는 다 장르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스템에서는 전부 다 장르처럼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런 간극과 문제 지점들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시스템 자체를 다룰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서 '다원은 이게 아니야' 혹은 '다원은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어' 해봐야 전체적인 모든 그림은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서 하나 빠져나와있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다원이라는 지점들이 마치 '재 왜 이렇게 유별나, 왜 그래'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혹은 얼마만큼 실천적으로 정말 작동할지가 궁금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장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중요한 지점들. 지금 많이 나와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작가들이 지속가능성을 다루는데, 그 자체에 대한 지원 형태는 없잖아요. 아니면 작년 다원예술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다뤄야 되고, 그런 류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되지 않지만 결국 장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장르에 결과로서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다원을 다룬다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원의 문제가 비단 다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원의 상황이라는 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너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지원 자체에 근본적인 불가능성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 지점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이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박경주** : 네, 방금 주신 의견도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이 안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되거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논의가 계속 반복돼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 있다가 저희 패널 분들은 어떤 의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샤 폴레 교수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샤 폴레** : I mean it's a little bit difficult for me to answer. As far as I know from my experience, I am not

very familiar with the Korean art application system. I can only say, that for me to distinguish between visual art and interdisciplinary art is kind of weird. And again, it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history of how institutions invented this terminology for bureaucratic needs. How can I help with this question? I just can compare it to what I know from Germany or from the Netherlands, where I have lived. As far as I know, there they don't have this distinction. There's just the term artist and then there are many categories to apply for such as residencies, commissions, specific projects, international presentations, stipends for starters, or basic stipends for research, experiments etc. It's all under the umbrella of visual art. If there were such a category for performance art, which I am not sure of at the moment it exists, it would only make sense if it involves more people, because of a different kind of budget plan. But generally, as a visual artist, as I said in the beginning, interdisciplinarity is always present if we understand art as something that naturally crosses disciplines. I don't know how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support interdisciplinary arts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I don't know how to answer this question, because it is as I said not different from others, honestly. If you mean stage performance art, theatre etc, then of course it's a bit different from visual art, but I also would like to know your opinion. Maybe you say something similar but in different words.

- **헤디 포르투나(통역)** : 제 말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예술 기금 신청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로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각 예술과 학제 간 예술의 사이는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어떻게 관료주의적 요구를 위해 이 용어를 발명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제가 독일이나 제가 살았던 네덜란드에서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라는 용어만 있고 레지던시, 커미션, 특정 프로젝트, 국제 프레젠테이션, 스타터를 위한 급여 또는 연구, 실험을 위한 기본 급여 등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각예술의 범위에 속합니다. 공연 예술 카테고리가 있다면, 현재 어떤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각 예술가로서 처음에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학문을 교차하는 것으로서 예술을 이해한다면 학제 간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현대 예술의 장에서 학제 간 예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솔직히 다른 예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공연 예술이라면 물론 시각예술과 다르겠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말할 것 같습니다.
- **샤샤 플레** : You asked about how interdisciplinary arts can compete in the art market. I don't know. But I think that the Korean Art Council or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seems to follow market mechanisms. The inherent logic is always that you have to produce a product and justify the support of it with some proof. Of course, this exists in other countries with arts funding too, but there's one crucial difference in my opinion: here there's no stipend given just for time! Or am I wrong? There is nowhere to get financial support for just a year or two without having to deliver at the end. Giving artists the time they often need to process and hatch something doesn't exist here, does it? I had this in the Netherlands, a two years stipend, I could just use. And it's a real gift I received. And I believe there is always something given back

in return by the artist, in one way or another, but this something is just not always calculable or countable. This is what I mean, by the market logic in the funding system. The money is going around from artists to art spaces, to institutions, etc, which is without any doubt great for the local art scene. However constantly applying for money, where everything has to produce results is stressful and can also influence the work process of an artist. On the other side sometimes writing a detailed plan helps to formulate an idea, which can help a project. I don't know what to say. But I just imagine there should be diverse categories in the support system for artists. Especially for young artists, or after finishing art school, to get one year the freedom and money support just to focus on their art, all with open ends. I believe it could create something different. That's what I really hope.

- **헤디 포르투나(통역)**: 예술 시장에서 학제 간 예술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물으셨죠? 몰라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예술 위원회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매우 시장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제품을 생산하고 일부 증거로 제품 지원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이 고정화된 논리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결과를 내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증명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술 기금이 있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단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틀렸나요? 지금 예술가에게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고도 1년에서 2년 간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네덜란드에서 2년 동안 급여를 받았고 그냥 조건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게 진정으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지원금의 보답으로 돌려주는 돌려주는 무언가가 항상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단지 계산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시장 논리가 기금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 예술계에 기여하는 돈이 예술가에서 예술 공간, 박물관 또는 기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과를 요구하는 기금을 끊임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공식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술가를 위한 지원 시스템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나 예술대학 졸업생을 위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해요. 그들이 예술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와 금전적 지원을 1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게 제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 **박경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지연 큐레이터님 말씀 들겠습니다.
- **김지연**: 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다원예술 심사 들어가면 다들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심사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다원예술은 늘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그 정의를 비껴나간 예술들이 등장하고 그 예술들을 안아줘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다원예술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원자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신선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그리고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다른 감각이든 이슈든 아니면 방향성이든,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확실히 이 작업의 내용이 과연 동시대에 의미 있을 것이냐. 물론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의미 있다 없음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궁금하냐 안 궁금하냐. 이 작업이 만들어졌을 때, 이 작업이 뭔가 다른 시사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융복합적인 장르의 특성? 그것이 다원

예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인 장르 간의 결합이나 기계적인 주제의 결합 같은 거 말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다원을 소화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험적이고 전에 없던. 그 어떤 다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다원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들이 조금씩 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토론을 하다 보면 유사한 가치나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자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말로 정의 내려서 정리하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동시대 예술 환경, 예술생태계를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창작자이거나 매개자라면 그 흐름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실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문서로 정리될 수 없는 어떤 세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모든 장르가 다원적이어서 시각예술계도 다원적으로, 문학 쪽에서도 요즘은 영상이랑 퍼포먼스를 써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도 되게 다원적인 방법론을, 소위 말하는 다원적인 방법론을 써서 창작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다원예술이라는 분야를 별도로 두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느냐는 질문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 다원예술 쪽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어논리랄까. 이것을 방어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생겨나는 사각지대. 그것이 방법이든 내용이든? 그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독려하는 도움의 손길로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좀 유효한 거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환:** 좀 더 활기를 위해서 먼저 손들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이야기와 연결될 거 같아서. 작년에 지원액이 확정된 액수를 보니까 5억 원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절대 부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파이가 작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지원의 어떤 시스템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고, 잘 풀어오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지원액 자체는 너무 적다. 그리고 지역할당제를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폭 '지역할당을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내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 장르들이 지원이 있고요. 그 외에 카테고리화되지 않는 것을 모아서 다원예술 공모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지연 선생님의 말을 이어서 말하자면 지금 각 장르별 지원에서도 다원적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현재 현실이 한 개의 장르로만 예술 활동 창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가지치기를 해나가니까 장르 간 경계가 어떨 때는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다원화시켜서 공모 카테고리화한 건데. 여기서 좀 다원예술을 진흥하자는 조금 이기적인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자면 카테고리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5억 원 남짓 정도면 소액이니까 어차피, 다원예술 공모분야 이 시스템은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각 장르가 다원적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장르 간 침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걸 근거로 해서 각 장르별로 다원적 예술 경향에 대한 할당제를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시각예술 분야에서 다원적 경향에 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각예술 지원 예산 내에서 소 카테고리화 해서 다원예술적 경향 지원으로 한 30%나 20%나 할당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원예술 지원의 범위와 예산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술이 매우 다원화돼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지역할당제 말씀은 매우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하니까 지역할당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구체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기초지역이라고 합시다, 기초지역들은 사실상 사회적 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예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

니다. 물론 예술가들은 현장에서 매우 다원적 성향의 예술 시도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초단위에서의 지원 시스템은 되게 미비해요. 기초지역에서의 문예 진흥 공모라든지 심지어는 생활 문화 방면의 지원들이 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원예술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기왕 지역할당제를 추진하실 때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했던 다원예술 지원의 노하우를 가이드북으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지역할당제로 진행할 때 교육도 시켜서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는걸, 그러니까 사업 지침화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도 기초(지역)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기초(지역)에서 하던 다양한 지원에서 다원적 경향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할당제 예산이나 내용까지 모아서. 그러니까 통합 확대해서 시스템화해서 하면 좋겠다. 그것을 지역할당제 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지역할당제 다원예술 어떤 공모 사업이 되든지. 그런 시스템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듣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고요. 죄송하게도 저는 매우 다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원예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어두웠는데 선생님들 말씀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주영 피디님 말씀 들겠습니다.
- **고주영** : 일단 지금까지 각자가 생각하는 다원은 굉장히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제도라는 것은 가치를 배제해야 되는 어떤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지원 제도가 가치 배제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떤 불변의 법칙, 원리 원칙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퍼뜩 떠오르는 건 저는 아름다운재단 같은데 지원 사업을 보면서 항상 가장 다원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변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 펀딩 이런 식의 어떤 가치지향적인 중심을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해서. 이런 지원 제도에 어떻게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을 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쨌건 다원예술 장르가 제도 안에서 이야기된 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됴도 불구하고 이 다원예술의 인프라라는 것은 왜 넓어지지 않을까. 다원예술 작업을 하는 예술가의 숫자도 커지지 않죠. 계속 바뀌기만 하죠. 사람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축적 되거나, 활동을 계속 지속하거나, 이 작업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유통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원 제도에 매년 많지 않은 돈이어도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서울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투여하고 있음에도 이 인프라가 왜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작업을 하다 보면 하게 돼요. 굉장히 다원이라고 하면 그 지원 액수가 적은 것도 사실은 일회성이다. 굉장히 쉽게 준비해서 만든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지원 액수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가장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 아니면 생애 주기를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 같고. 그런 원인에는 아까 부산(이일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이 소통되고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축제가 1~2개 그리고 다원이라는 장르가 지역문화재단에 다 있지만 저도 지역에서 심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어떤 문예회관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다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원에 대한 인식이나 인프라를 확산하는 것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지원 제도, 지원금 얼마를 주고 이런 거에 앞서서 이런 가치를 조금 더 확산시키고 인지시키고, 이런 가능성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경주** : 네,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일록** : 덧붙여서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방금 고주영 선생님 이야기도 그렇고 김지연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김지연 선생님이 심의위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지점들이 생긴다, 이 작업이 시대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면서 대부분 팀들이 모아지고 늘 새롭게 생겨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확인이 다원예술의 가치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되고 좋은 이야기긴 한데. 특히 지역에서는 모든 심의가 다 그렇겠지만 심의가 끝나고 나면 불만들과 민원들이 제기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다원 쪽이거든요? 제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다원 심의를 진행하고 심사평을 받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심의 과정에서는 세 분 혹은 다섯 분의 합의점이 찾아지기는 하는데, 떨어진 팀들에 대해서 어떤 워딩을 통해 설득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되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고. 단순한 장르, 기계적 장르 간 결합은 아니라는 건 합의가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지만. 다원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 풀도 좀 작기도 하고, 고주영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심사위원들을 전체의 30-40% 정도를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끌어 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다든지 그냥 소외되어 버리는. 그래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결과는 나오지만 100% 합의가 아닌 조금 찝찝한 형태의 결과가 나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다른 장르는 그래도 지역에서 이어져왔던 게 있다면, 다원만 놓고 보면 참여한 지원서를 낸 팀들의 불만이 타 장르에 비해 많아서 이게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경주**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라운드 테이블 개별질문으로 3개 정도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는데, 읽어보셨겠지만 어차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눈 맥락이 '다원예술의 범주나 차별성은 무엇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공통질문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신 것 같고. 특히 지금 주신 의견들 중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안에서도 다원예술이 가치지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장르라고 보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 소주제를 '사회적 예술이나 소수자 예술' 이렇게 제가 잡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이야기와 연장해서 다원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예술의 어떤 범주로서 어떤 의미가 전체 예술 생태계 안에서 있는지, 또는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담아내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마리모 단체가 작년 동료 평가에 대해서 작업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소수자나 어떤 다양성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리모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지운** : 제가 처음은 아니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희 마리모 같은 경우에 차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예술적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단체예요. 작년에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차별을 이야기하고 소수자를 이야기하고 계속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회적 예술이나 소수자 예술이 무엇이고, 너희가 왜 자꾸...'. 저는 다원예술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는 게 왜 다원인데?'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다원예술 쪽이겠지'라고 저희 단체를 지칭하는 이유는 가장 급진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다원예술 지원서를 내고 동료 심사평을 받았을 때 저희를 가장 화나게 했던 지점은 그거였거든요. '당신들이 하는 게 정치활동이지 이게 무슨 예술이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당신들이 하는 게 실현이 되면 예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생활이 예술이고 예술이 생활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예술이라는 경계라던가 사회적 예술이나 소수자 예술 같은 걸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가장 급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급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말하자고 하면 장르는 없지만

다원이라고. 지금 저희는 ‘굳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알 수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를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거나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지점에서 다원예술은 그걸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주** :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지원기관의 행정지원 및 예술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드린 기본적인 배경은 지원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어떤 한 분야를 만들 때, 현장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 많이 느꼈고. 그것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예고가 없다면 현장을 잘 읽어내지 못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안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앞으로 지원 기관에서 지원 제도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성용희 선생님 고개 끄덕이셔서, 네.
- **성용희**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전에 고주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돼서 제안을 하자면, 다원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개인적인 불만족이라든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가 1명이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나 혼자 열심히 다원예술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인프라 구성을 하고 유통과 지속적인 발전과 전체적인 다원예술 씬이 커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다원예술이 올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다원예술이 올해는 대충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들이 아마 기금을 받을 거야, 혹은 이런 작품들은 기금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돼서. 작가 1명이 가지는 개인적인 불만족 혹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내가 기금을 받아서 나 혼자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좁게 보지 않고, 크고 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지원금이 다원예술 작가가 아니라 다원예술이라든지 한국의 동시대 예술계 전체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논의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경주** : 네, 이 부분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 **김윤환** : 아까 제가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이어보면요. 그동안 쌓였던 문화예술 위원회의 지원 노하우를 역시 저는 매뉴얼화해서 보편적인 지침으로 시스템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축 하고요. 반면 또 필요한 것은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지역별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정이 다릅니다. 지역에 객관적인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편적 지원 지침은 주되 지역별로 지원의 자기 프로세서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침 하에서도 얼마든지 지역별 심사 기준이나 평가 기준, 실행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역의 성과로 다시 선순환할지 등등. 그러한 것을 자기의 프로세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별로 그런 프로세서 설계를 위한 워크숍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네요. 부가적으로 심사 시스템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저는 심사 시스템에 대한 걱정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편향되게 되는 경우는 퍼센티지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편이거

든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심사시스템 자체를 너무 더 정교하게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좋은 점을 잘 유도하면 오히려 부작용은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공모 프로세스를 밟고 또 심의위원회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지역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별로 자기를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개선하는 프로세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예술 계통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라고요. 소상공인 지원 부분인데 '손수가게'라는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심사 기준, 그러니까 '손수가게'는 모범적인 우리 토종 식재료로 식당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파는 식당, 그런 모범식당을 '손수가게'의 명칭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어느 A라는 동네가 있으면 A라는 동네의 '손수가게'를 지정하는 심사위원이 그 동네 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매우 현실적이고 엄격한 거죠. 심의위원회가 주부로 구성되고, 심사 기준을 가지고 희망하는 식당들을 심사 다닙니다. 그런데 잘 붙는 가게가 없죠. 소수만 붙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건, 이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돌아가고 그 '손수가게'는 매우 매출이 급상승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손수가게'에 대한 인기와 집중도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 숫자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급상승했던 거죠. 불과 2~3년 만에 그렇게 제도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지역의 자기 문제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제 이야기가 약간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 **박경주** : 이어서 이일록 위원님.
- **이일록** : 계속 이야기의 흐름이 같이 가는 거 같은데. 다른 장르와는 조금 다르게, 아까 중간에 누가 다원 같은 경우는 작업하던 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너무 힘들데요. 그냥 내 장르 안에서 국악이면 국악 연극이면 연극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원이라고 해서 시도했을 때 작가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에너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원래 자기가 하는 일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르라기보다 이 지원을 좀 더 키워내는 게 이 지원 사업의 어떤 목표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원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 우리는 또 견인을 해내야 되는 측면에서는. 물론 프로세스를 잘 만들고 지원을 하게끔 하고 지원금이 나가고,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 플러스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이 이 장르와 지원 제도에 좀 더 유입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지 그런 모니터링 과정. 아마 작년 '동료평가제'도 그런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도 해보는데. 기존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 심의 제도 하에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플러스알파 해서, 이 다원예술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작가들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조금 관심 가지고 '나는 저거와 상관없었는데'가 아니라 '지원을 한 번 해볼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치와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프로세스에 조금은 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행정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재단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경주** : 네, 이 맥락에서 또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중간에 주신 의견 중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맥락이 어쨌든 짧게 작품발표를 하고 다원예술가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원예술에 적절한 유통이 잘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연결하자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원예술 창작과 유통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원금 받아서 한 번 공연을 하거나 어떤 발표회를 하고 나서, 그 작품을 다시 유통할 만한 구조가 지금 다원예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실지 여쭙습니다. 어떠세요?

- **성용희**: 그냥 단순한 질문 하나만 하면, 다원예술이 작품 제작이라는 딱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아까 사샤 플레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리서치 기금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예술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는 축제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제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 **박경주**: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원예술이 복원되고 나서 예산 자체가 늘지 않아서 일단 늘리는 걸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 다원예술 TF에서도 플랫폼과 매개 쪽에 지원 사업이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논의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예산이 부족하죠.
- **성용희**: 그럼 예산을 많이 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네요.
- **박경주**: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다원예술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게 잘 먹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김윤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원들하고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타깃화 해서,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 소액이잖아요. 사실 몇 푼 안 되는데.
- **박경주**: 일단 저희가 지금 돈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중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프로그램 담당 학예연구사님도 계시고, 변방연극제 임인자 감독님도 계시고, '아이공'의 김장연호 위원님도 계시고,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그룹이나 개인작가가 기금을 받아서 또는 기금에 떨어졌어도 다원예술 작품을 완성해 냈을 때,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중간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중간 플랫폼에서 작품이 어떠한 형식이든 판매가 되거나 수익을 내서, 작품에 참여했던 작가들이나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원예술작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는 다시 미술작가로 돌아가야 되나?' 이걸로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니까. 또는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기의 작업이지만 연장선에서 뭔가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의 문화산업 쪽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어떤 큰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기관의 파트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어렵든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일록**: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다원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 다원 혹은 다원 안에 지원받는 개별 개별 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 이 질문은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답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냈고.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 부산 국제영화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커뮤니티 BIFF'라고 해서 시민들이 영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화의 전당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이 1년 내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영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복동에서 하기도 하고 서면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감독이 오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꾸며지는데. 영화제가 워낙 유명했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부산 지역 안에서 브랜드가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원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다원과 연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까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돌아오면 상주단체 사업(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지역재단이 하는 상주단체 사업이 1년 사업의 결과물을 축제 형태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1년 내내는 각 공연장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10월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A, B, C, D 공연장이 돌아가면서 계속 공연을 보여주면서 팸플릿도 같이 만들고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다원도 예산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한 개별 작업이 승부를 내서 뭔가 유통과 이렇게 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윤환** :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일록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정도 연결되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다원예술 지원은 새로운 창작에 꽂혀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창작.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 이후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일록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각도에서 보면 이 다원예술은 사회적 가치 추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사회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되든 안 되든 사회적 솔루션으로서의 예술의 시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보고요.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결돼서 지속성을 도모하려면 결국에는 마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본적인 지원 시스템은 새로운 창작, 그러니까 다원예술에서도 공모에 선정되려면 어쨌든 새로운 걸 자꾸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량이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카피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창작으로만 다원예술 진흥이 도모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다원예술의 사회적 효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 제안은 '다원예술 마켓'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구매자는 기업이나 공공영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다원 예술이 실험되고, 그중에서 쓸 만한 사회적 해결의 어떤 예술적 방법 또는 기술적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서의 모범 사례가 너무 새로운 창작 관념으로 생각하면 다시 반복을 못하겠어요. 도입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마켓 개념에서,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그 모델이 나왔으면 서울의 공공영역에서 그것을 사는 거죠. 실행도 그 예술 그룹이 한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화되고 전국화될 수 있는 성과를 모아 내는 것이, 예컨대 '다원예술 마켓'을 통해서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도 연결하고 공공영역이 필요로 하는, 자기 지자체에서 필요한 요소를 이 마켓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제 아이디어가 추상적인지는 몰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용희** : 저도 말씀하나 드리면 방금 김윤환 선생님과 이일록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과 죄송하게 약간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위원회가 플랫폼이나 마켓을 만든다는 등의 기획을 하는 순간 조금 음... 보통 그런 것들은 아티스트나 기획자나 민간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작 활동이 계속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너무 특정한 기획과 역할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이게 너무 절실하다 그리고 지역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고' 뭔가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과 현장과의 교란들이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동시대적으로 좋은 작업을 뽑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특정한 이슈들에 맞춰서 기존의 단순한 다원예술이 무엇이고 다원예술에 지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할당들과 개입과 이런 것들이 되는 순간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마치 기획 사업을 하는 데처럼

변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가시고. 제가 뒤에 말을 붙였습니다.

- **이일록** : 저는 성용희 선생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 그런 답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작가들이 다원예술에 접근해서 몇 년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 스텝을 밟기가 힘들다는 현장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연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꼭 플랫폼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 **김윤환** :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창작지원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도 약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의 카테고리와는 별개의 플랫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가지고 영업하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실 시장은 플랫폼 내에서 자율시장으로 돌아가는 걸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다른 부서가 실무적인 그런 뭐 연결을 해준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박경주** : 제가 두 분 의견 조금 정리하면, 그런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예술경영지원센터¹⁴⁾에 주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조금. 여기서 기획을 하는 건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기획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좋지만 저희가 이 라운드 테이블 결과로서 포럼을 또 여니까.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핵심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포럼 할 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분씩 짧게 마무리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주영 피디님부터 할게요.
- **고주영** : 이런 자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번, 특히나 다원예술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제발 정책제도에 조금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는 없습니다. 네.
- **김윤환** :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용적으로 먼저 필요를 느끼는 기관이 시도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건 예경이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경 업무니까 예경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필요성은 문화예술위원회가 먼저 느낀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는 이런 일은 우리 한국 사회의 속도를 반영한 굉장히 스피드하게, 플랫폼을 지원 사업 정도로 한 2~3억 정도 띄워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해서 제도화하는 부분은 제도화할 때 예경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저 공부 많이 됐어요.
- **김지연** : 확실히 그 무엇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게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 **성용희** : 저는 너무 다급하게 하다가 또 실수해서 또다시 해명하고 사과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지운** :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정말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굳은 마음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다원예술이 더 발굴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굴되고 발견돼서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이하 '예경'으로 명칭 통일.

- **이일록** : '쉽지 않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는 게 다원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고요. 박경주 위원님이 소개하실 때 '다원예술가'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저는 되게 좋거든요. 지역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중에서도 '다원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박경주** : 네, 저희 위원님들 계셔서. 김장연호 위원님과 임인자 위원님 오늘 느낀 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장연호** :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예술가 관련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었는데 창작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나 기획이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기획 쪽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몇몇의 아이디어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나 저도 다원예술 심사를 해보면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한 5~6년 지원이 안됐었잖아요. 제가 이후에 다원예술 지원을 해보니 5년 전 다원예술이 되게 루즈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술가분들이 다 떨어지고, 되게 유행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심사하면서도 들었거든요. 마음으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지원이 없어도 개인적인 어떤 걸 충당해서 어떻게든 작업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새로운 다원예술의 흐름들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발맞춰서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새로운 다원예술은 그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양가적인 느낌이 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다원예술이 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변방연극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 그런 예술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사샤 플레 선생님께서 많은 예술가들이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산업 주위에 기반한 예술 지원이 되고 있구나'하는 각성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공생,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지원 제도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술의 어떤 생태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예술가들이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런 지원 제도가, 정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오늘 여러 귀한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고, 저희 다원예술 TF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도 잘 작성을 해서 향후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주** : 부장님도 진지하게 듣고 계셨는데 혹시 마무리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정준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 말씀 중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관련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한 플랫폼 별도 지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이라도 넣어보려고 했으나 자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간 상태이고요. 아까 상주단체 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다원과 같이 시작했던 게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 별도로 퍼실리테이터를 뒀서 사업 단 중간중간에 네트워크하고, 상호 간에 간단한 스냅 토크 형태로 성과공유회도 하고, 사업을 종료할 때 성과공유 워크숍 같은 것도 했었는데. 다원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심의 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본 계획에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선정된 작가들끼리 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단 하나

애매한 것은 내년부터는 정시공모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별도로 공모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모를 들어가야 해서 그럴 여력이 있을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추가로 정시공모로 가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내년 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기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다른 공모사업들 다 끝난 다음 속된 말로 패자부활전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내년은 정시공모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시간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작가분들끼리 어떤 형태로든 자의에 의해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1월부터 준비게임은 시작했지만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사무처 안에 15억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한도 내 한도 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무처 안에 한도 내 값으로 15억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아마 12월 말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 사무처 안은 한도 외 값이 아니라 한도 내 15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반영을 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고요. 장르 관련해서는 다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사무처 내 관련 부서장들끼리는 근본적으로 장르 기반의 지원 사업 구조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이 많이 변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로도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을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의지보다 해당 예술 현장 필드에 문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꺾기만 하는 단계라면 어떤 기획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다원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실 장르라는 표현을 쓰기 애매하지만 단일 분야에 5억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기반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경주**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 현장과 만나면서 제대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잘 밟아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만 이렇게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간담회하거나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임기는 끝나지만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현장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오늘 결론을 잘 내서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기록에 남기고, 저희 TF에서 활동 보고서로 만들 거니까. 거기에 담아서 앞으로의 다원예술 사업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를 제안하는 내용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3회차



▶ 사회_박지선(다원예술 TF 위원)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1일(월) 오후 1시 / 비대면 온라인(Zoom)
- 사회 : 박지선(다원예술 TF 위원)
- 패널 : 김보람(미디어, 게임씨어터), 박민희(음악, 정가, 보컬리스트), 윤자영(퍼포먼스, 공연예술), 이양희(현대무용, 퍼포먼스), 정세영(연극, 현대무용, 퍼포먼스),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 다원예술 TF위원 : 김건희, 김장연호, 박경주, 임인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총괄부 정준화, 오성근

• **박지선** :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정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이구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을 간단하게는 설명드렸는데, 아마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계셔서 배경 설명을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다원예술 분야의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¹⁵⁾와 민간에서 다원예술 TF팀이 꾸려졌고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박경주 위원님께서 저희 TF팀과 문화예술위원회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가 여섯 분 소개를 하고 나서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경주**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박경주이고요. 다원예술 담당으로 위원회 위원 첫 번째입니다. 곧 임기가 끝납니다. (웃음) 첫 번째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왜 하는지는 박지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텐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없어졌다가 작년에 복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새로운 제도를 현장과 소통 없이 도입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 제도¹⁶⁾ 폐지 이후에 22년도 공모 준비부터 사과문과 함께 약속했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 후속 조치들을 하면서 다원예술 사업이 예술 생태계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총괄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박지선 위원님께서 진행하면서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박지선**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부장님과 오성근 주임님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 이하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통일.

16) 이하 '블라인드 동료평가제'로 명칭 통일.

- **정준화**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의 정준화입니다.
- **오성근**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담당하고 있는 오성근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선** : TF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방금 인사드렸던 박경주 위원님과 저, 그리고 세 분이 더 계세요. 먼저 임인자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임인자**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임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건희** : 안녕하세요.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현재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선** : 그리고 김장연호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여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는 저희 소개는 다 끝났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섯 분의 작가님들을 모셨는데요. 다원예술이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약간 공백기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며 현장에서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분씩 인사해 주시고요, 이따가 의견 말씀하시면서 개별적인 작업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병준 작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 **권병준** : 안녕하세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병준이라고 합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 나중에 따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 **박지선** : 네, 다음에 박민희 작가님.
- **박민희** :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극음악으로 공연 만드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선** : 네, 다음에 김보람 작가님.
- **김보람** : 안녕하세요. '무제의 길'의 연출로도 활동하고 있고, 김보람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게임에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박지선** : 네, 다음에 윤자영 작가님.
- **윤자영** :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공연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윤자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지선** : 네, 다음에 이양희 작가님.
- **이양희** :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가이고요, 공연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양희입니다.
- **박지선** : 네, 마지막으로 정세영 작가님.
- **정세영** : 공연 만들고 있는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선** : 밖에 봄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꽃이 보이는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봄은 개별적으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이 라운드 테이블의 배경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가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이 한동안 없었어요.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

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없어졌고 그것이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됐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원 사업이 여러 논의 끝에 2021년, 작년 6월에 다시 복원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 예술 분야에 많은 장르가 있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전통예술도 있고. 그런데 다원예술은 어떤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지원 분야가 통째로 다 사라졌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이름이 당시 블랙리스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전체가 다 폐지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 6월에 '어떻게 하면 다원예술의 현장 생태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 끝에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동료평가제라고 하는 형식이 현장의 예술가들과 많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없이 진행됐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예술가분들께서 상호평가 방식의 블라인드 동료평가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많은 논의 끝에 올해 그 제도는 폐기가 되었고요. 폐기된 것으로 끝나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지원 제도로 돌아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임시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원예술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잡음과 함께 진행됐지만 앞으로 이 다원예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장에 있는 예술가와 매개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올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기반으로 다원예술 현장에 맞는 어떤 정책들이,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술가분들께서는 '다원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막 저희 TF팀의 김장연호 위원님 들어오셨는데요.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장연호** : 안녕하세요. 올해 다원예술 TF로 같이 참여하게 된 김장연호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 잘 경청해서 내년 2023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선**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구요. 자료를 정리한 이후에는 바로 이 영상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4월 말에 오픈 포럼을 열 예정인데요. 그때 많은 작가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가 메일이나 연락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는데 질문이 좀 많아요. 질문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하면서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공통질문인데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가 개인적으로 혹은 현재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원예술 개념이 하나로 정의되어지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예술이 6년 만에 복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복원의 의미와 다원예술의 현재성, 지금 다원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렸을 때 다들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제 화면에서 가장 가운데 계신 정세영 작가님 먼저.
- **정세영** : 다원예술 처음에 시작할 때.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작가님들 다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각자 자기 베이스가 있고 그 구조 안에서 구현하거나 하기 힘든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만들어볼 수 있을까. 장르를 떠나려는 게 아니라 그 장르를 다르게 해석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안돼서 다른 방식을 찾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형식과 방식들이 기존하고 좀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는 처음 시작했던 분야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예 그런 다원예술가가 생겨버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예전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다원예술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느낌도 좀 있습니다.

- **박지선** :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보면 작가 본인을 다원예술가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걸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양희 작가님은 한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다원예술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 **이양희** : 저는 정세영 작가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어떤 예술가로서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할 때, 그때 모든 것은 저의 예술의 베이스부터 출발하여 거기서부터 질문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원예술이라고 정의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할까요. 분류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신무용이라고 하는 형식을 베이스로 프랙티스(practise)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한국무용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의 커뮤니티나 시스템 이런 것에서 질문하게 되면서 실천하게 됐던 것이 다원적인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전하고 실험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창작활동을 하였을 때 '이것은 독립예술이다, 이것은 청년예술이다, 이것은 기술융합이다' 이런 식으로 예술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의 정의를 먼저 한 채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작업을 계속 지속했었는데,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안무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무용교육의 전통적인 방식의 안무 스쿨을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케이스긴 한데. 확실히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저는 무용을 했고 한국신무용이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작업을 하자고 할 때, 뭔가 카테고리화(categorize) 되는 분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어디에 뭔가 확인하거나 분류하는 방식에 제가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렇지만 해외이거나 한국이거나 아티스트가 자신의 예술적 실천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예술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했는데 한국에 왔을 때 특히 카테고리화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류돼 있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 **박지선** : 네, 윤자영 작가님은 어떠세요?
- **윤자영** : 저도 앞에 정세영 작가님과 이양희 안무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원예술이라는 게 처음부터 특정 장르로 있었던 게 아니고 분과된 예술 장르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들을 재해석하거나. 양희 안무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실험의 방식들로 이것을 연구할 때 그게 기존의 장르 안에서 소화될 수 없었거나, 그 안에서 포섭될 수 없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작업들이 어쩌다 보니까 다원예술이라는 이름 안으로 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그런 실험의 과정들은 모든 예술가들한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왜 굳이 다원이라는 항목이 따로 생겨난 걸까? 이게 한국의 고질적인 어떤 특징이었던 걸까? 문제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처음 활동을 할 때부터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지원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항목이 있는 와중에 활동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가라고 지칭되고 있는 창작자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작업을 다원예술

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이 사라진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는 그런 작업을 하고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원이라는 항목이 사라졌을 때 내가 여기에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느끼던 해들도 있었습니다.

- **박지선** : 네, 권병준 작가님은 어떠세요.
- **권병준**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쩌다 나온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포션(portion)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결국 그게 기존 장르들의 기득권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연극, 무용, 영화 등등 각종 장르들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인맥도 이렇게 형성돼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솔직히. 뭔가 탄짓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대중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오디언스(audience)와 만나고 싶을 때.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예술행정 그다음에 결국 기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다원이라는 말이 꼭 쓰일 때가 언제냐면 기금 지원할 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원예술가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뭔가 지원할 때 '내 카테고리는 여길까?' 다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여기에 지원하면 더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요새 대학도 자율전공학부 이런 거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앞길을 모를 때부터 정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는 세상이 그것보다 많이 복잡해졌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꽤 길게 한 4년씩 주고 그러잖아요? 요새 다원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가, 예술 장르라기보다는 그런 분야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 **박지선** : 네, 이어서 김보람 작가님 이야기할게요.
- **김보람** : 앞서서 다른 작가님과 연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기는 해요. 저는 맨 처음에 박지선 사회자님께서 '다원예술가라고 누가 칭한다'라는 이야기에 사실 화들짝 놀랐는데, 저는 아직도 이 다원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을 설명할 때 만약 상대가 예술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탈장르 작업을 한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원 작업인데요'라고 시작하긴 하지만, 제 작업을 설명할 때 다원이라는 말을 사실 거의 쓰지 않거든요. 앞에 권병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원 제도 안에서 생겨난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제 작업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몫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다른 장르의 작업이 계속 맥락을 가지고 아니면 계속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원 제도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장르들의 여집합의 작업들이 다원예술이 아닐까라고 인식하는 상태이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것들이 놓여있을 거고, 지금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선** : 네, 박민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박민희** : 저도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도 다원예술은 행정용어라고 알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성예술의 분류 체계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지금 현재의 예술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술들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술계에 마땅히 포섭이 돼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해 빠져나간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컨템퍼러리아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예술. 장르와 도구, 수단 같은 것들에 묶이지 않고서 생각이 훨씬 중요한 것.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고서 다양하게 표현해 내는 그런 예술 행위를 일컫는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창작 논법을 새로 만들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장르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먼저 선행되고 그 생각을 위해서 장르를 해체하고 혹은 만들어내는 것이지. 만약에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기존 장르 문법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혹은 기존 장르 문법을 표면적으로는 구현해낼 때 기존의 장르 문법을 오히려 전복시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생각하는 것과 그것에 수반되는 태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의 다원예술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기존 한국전통음악을 바라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손쉽게 전통음악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원예술 분야가 없어졌을 때 전통예술 분야 지원을 받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기웃대보기도 했는데. 특히 창작산실¹⁷⁾ 같은 경우 다원예술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시기에 생겨난 거니까요. 창작산실에서 서류 지원까지 해본 적도 있었어요. 서류는 통과해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야 됐는데, 인터뷰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하려는 공연은 객석이 없고 박스형 표준형 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작업인데 그 형식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공연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어떻게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고 여쭙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설명 자체가,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당시 서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가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기존 방식에서 설명될 수 없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그걸로 밖에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지원하는 분야가 다원예술이기 때문에.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어떤 장르 용어나 자기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각을 도울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 **박지선** :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모신 여섯 분의 작가분 중에 다는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박민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통예술이라고 하는 기존 장르부터 시작이 된 작가님이시고, 양희 작가님도 한국무용이나 무용, 정세영 작가님은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명확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양희 작가님은 지금 현재 현대무용이나 무용 동료들의 활동들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다원예술이 없어졌을 때 제가 '왜 다원예술 분야가 없어졌나' 그때는 블랙리스트를 알기 전이죠. '어차피 모든 장르가 확산되면서 그 장르에서 다원예술까지 다 수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통예술이 확산돼서 진짜 컨템퍼러리아트까지 가고 연극이 확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그렇게 확산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르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양희 작가님이 있는 무용 쪽에서의 작가들이 다원예술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이양희** : 저는 일단 주변에 무용수로부터 출발해서 안무가로 본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신의 작업을 하는 동료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안무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용수 그다음에 무용단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워(work)을 10년 넘게 꾸준히 작게 크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해왔던 안무가들이 제 주변에 있는 걸 봤을 때. 아까 다른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견고한 무용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속해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그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릴레이션십(reationship)을 가지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되게 많이 창작 활동을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이것이 다원예술이 활발화 된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주변의 무용가 안무가들은 확실히 본인의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 이하 '창작산실'로 명칭 통일.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 방식이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금을 신청하거나 어떤 무용단에 있으면서, 국립현대무용단이던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안무가를 서포팅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적된 본인의 경험과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공연예술의 형식으로, 무용 공연의 형식으로, 다양한 매체와 접근을 실험하면서 본인들의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잘 컬티베이트(cultivate) 했다는 현상들은 저는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보면 기존의 되게 견고했던 전통적인 무용의 시스템으로 다시 제한되는 현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지금 독자적으로, 바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시스템 바깥에서 본인의 영역을 구축한 안무가들이 다시 평행적인 위치에서 서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정세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무용과 연극과 다원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서울문화재단의 다원예술 지원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지원했었던 다원예술 분야가 지난 6년간 없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작업들을 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 **정세영** :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공공기관의 큰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근래에는 융복합이라는 장르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연의 형식과 방식도 융복합 쪽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좀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이라고 지원하면서 느꼈던 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이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 어떤 놀이터나 혹은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야이고 행정제도 이긴 한데. 그런데 좀 너무 빠르게 다원예술이라는 장르에 대한 심상이 만들어져서 뭐라고 꼬집어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다원예술을 하면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스타일의, 어떠한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견고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유사한 작업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동료한테도 그렇고 어떠한 고루함과 이것 또한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나쁘진 않은데. 기획서를 작성할 때 결국 기획과 질문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상상하고서 기금을 주고 기금을 받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획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왜 했느냐로 판가름이 나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원예술의 어떤 심상이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 **박지선** : 그 말씀은 저희가 기획서를 쓸 때 무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그것보다 앞부분이 중요한 거 같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정세영** : 네. 요약하자면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고, 왜 만드느냐가 선행되어야 되고. 만드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이것도 예술가나 작업자들의 책임도 있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잘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가의 책임의식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지선** : 민희 작가님. 네.
- **박민희** : 방금 정세영 작가님 이야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요. 제가 전통음악 분야에서 오랫동안 학습한 게 있다 보니 전통 음악을 그 분야의 기존 체계에 순응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서 다원예술에 지원하고 싶은데 떨어질 때 연락이 와요. 다원예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나도 모른다. 다만 나는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내가 다른 문법들을 만들어 내는 걸 유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방법

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엄청 오래전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의 질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한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도 모르겠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 지원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다원예술이 뭐냐고 물어봤데요. 한 6~7년 전, 7~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라는 단어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온 만큼 그때는 더 심했을 때고. 전화받은 신 지원담당 분께서 '페스티벌 봄'같은 거라고 대답을 해줬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페스티벌 봄'에 참여했던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형태적인 것만 흉내내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형태가 중요하지 않은 건데 멀리 떨어져 보면 형태만 남아서 취지와 다른 걸 하게 되는 결과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정세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상. 이런 거 같은 것.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것의 안을 들어가서 보면 장르가 다 다르고, 문법이 다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이 중요하다는 핵심가치는 사라진 채로 '어떤 다른 짓을 하는 건가 봐'라는 것만 남아서. 그마저도 다른 짓의 어떤 예시들을 흉내내는 일들이 기존 장르에서 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수와 다원예술에 대한 오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지선** : 윤자영 작가님은 그동안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잠시 쉬다가 그러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원예술 지원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로 어떻게 작업 활동을 해나가시는지.
- **윤자영** : 저는 처음에 무용단 기획에서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다원예술 관련된 지원들을 받으면서 활동하다가, 그마저도 녹록지 않아졌을 때 이 작업은 연극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극으로도 가봤다가, 외로움만 남긴 채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혼자 해야겠다,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지원을 계속 받고 다른 형태로 공연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존중을 많이 받아오면서 작업했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작업을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앞에 말씀하셨던 다원예술 하면 떠오름직한 심상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진 형식들이 왜 더 확장되지 못하지? 라는 질문들도 있었고.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다원적임직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을 질문하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작업을 만드는 주기도 혹은 내가 지원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고 보여주는 방식도 그 주기가 굉장히 짧고 단발적인 실험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모두의 작업도 비슷해지고. 그런 거에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쓰지 않고 좀 다른 템포를 찾아가야겠다. 나도 이 원론적인 의미들을 잃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 **박지선** : 다원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 작가분들이시고 작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앤테크놀로지¹⁸⁾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집중되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예술하고 좀 다른 경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권병준 작가님은 또 아트앤테크놀로지 쪽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계셔서 다원예술과 그쪽의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실 지원이라는 건 아트앤테크놀로지도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한참 후에는? 다원예술도 지원받으시고 아트앤테크놀로지도 지원받으셔서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 **권병준** : 저는 기술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도 받고 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집합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장르화시킨 연극,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 중에 기술이라는 장르가 또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접목시켜 어떻게 작품화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원의 한 장르 정도로 생각해요. 물론 저도 거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긴 하지만 조금 과한 포커스가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18) 예술과기술융합 지원 사업 'ART&TECH'. 이하 '아트앤테크놀로지' 또는 '아트앤테크'로 명칭 통일.

아트애펀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뭐라 그럴까. 산업하고 묶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좀 싫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산업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무슨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과 나라의 어떤 비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술과 문화가 같이 합쳐지면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되게 있는데 그 열매를 예술가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큰 그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예술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자체로서 좋아해 줄 수 있는 관객들과 만나면 되는데 예술이 가진 어떤 그 효용성, 효용가치, 산업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과 굉장히 맞물려서 이런 트렌드가 같이 굴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원예술 지원 제도 같은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까 조금 비판하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정형화되고,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반복되고 패턴화되고. 그런데 저는 어떤 장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원 사업이 멈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숙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뺏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론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그 부족함을 여기 있는 예술가들이 메꿔 가면 되는 거죠. 더 좋은 작업 보여 주는 거죠. 다원은 이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작업 아니야? 자꾸 이렇게 나와 주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정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어떤 미지의 세계 같은 영역이긴 하지만. 아까 여집합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또 교집합이 중요하죠. 장르와 장르 간의 교집합들. 그래서 그 여집합과 교집합을 적절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어떤 작업이 정말 좋은 작업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비평가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평론가들, 그다음에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이런 다원 같은 우리가 아직 뭐라고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정세영 선생님.
- **정세영** :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이 장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다원 예술이 타 장르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긴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원예술이 있는 혹은 생성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양희 안무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용계, 무용 지원 밖에서 작업하는. 다원예술에서 작업하시던 무용가분들 안무가분들이 서서히 무용계로 들어오는 현상들을 요즘 자주 목격되는데. 이게 아예 장르화되면 조금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고, 장르 밖에서 만들고, 장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다원예술을 장르라고 했을 때 그게 효용가치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 **박지선**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권병준 작가님께서 다원예술이 몇 년 동안 지원이 없으면서 충분히 숙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다원예술 분야에 평론가나 비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원예술의 지금 현재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술 생태계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예술계에서 이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안에 없는 것,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희 작가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 **박민희** :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비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항상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예술가들이 이렇게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비평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를 나열하다 보면 결국 질문이 사라지는 비평문

이 많은 거 같... 이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웃음) 우리가 지금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작은 자리에서. 공동의 합의로 질문이 선행되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방법론들은 얼마든지 열려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산업과 연결될 필요도 없다, 어쨌든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다, 산업은 그 이후 부차적인 일이다,라고. 작업으로 계속 회기하고 질문으로 회귀하는 일들을 이런 행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순간에서 조차 작가들은 계속 잃지 않고 그걸 찾아가는데. 비평에서 계속 그 작가가 어떤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어 가고, 창작 문법을 만들어 가는지를 잘 섬세하게 읽어주지 않으면 작업들이 힘을 잃을 것 같아요. 다원예술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기존의 문화생태계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는 것에도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치마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그게 동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일을 해나가고 작업이 가치 있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계속 어떤 작은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좋은 비평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시스템에서 비평가를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늘 생각하고 있고요.

- **박지선** :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기존 문화예술 생태계와 연결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기존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원 제도도 보면 창작에서 유통, 만들어서 전국으로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극장이라던가 축제라던가 비평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존 장르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다원예술이 그 생태계와의 연결성이 좀 어려운데. 무조건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기존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거 같은데. 다원예술만의 어떤 고유한 생태계, 아니면 기존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해 다원예술 분야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희 작가님.
- **이양희** : 민희 작가님과 세영 작가님, 권병준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제 경험을 반추해 보게 되는데.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할 때에 사실은 어떤 지원금을 바라고 사업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계속 지속하고, 그 지점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계속 발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다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도 작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할 때 정세영 작가님의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됐던 게. 사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내가 이 질문이 왜 생겼고, 무엇을 실험하고자 하며,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지만 사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원예술계에 어떤 기여를 할지 예측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작품을 구상할 때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실험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만. 막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더듬어가는. 저는 창작은 더듬어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결과를 미리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제작비는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실 그 질문에서 제가 올해는 조금 쉬자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되게 정확하게 있지만, 나한테 이것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것을 예상하면서 가고 있냐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걸 지원금을 쓰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순간 떠올랐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작업할 때 이런 프로세스는 되게 필수적인 일이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면. 나중에 작품이 완성되거나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결과 보고를 할 때 그 결과 보고의 방식, 형식 자체를 조금 더 작가의 과정. 그

러니까 계량적인 수치나 이런 기존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려있는 방식이랄까요? 좀 더 열려있는 방식으로 본인이 이런 경험에서 무엇을. 처음에 지원할 때처럼 좀 더 심도 깊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예술가가 본인의 언어로 그것을 정직하게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 **박지선** : 올해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앞에 이 활동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 이후 평가의 방식, 그다음에 그 결과 공유가 가치 있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윤자영 작가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넓게 생태계 관련해서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다원예술 분야가 확장되기 위해서 아니면 확장이 아니더라도 기존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 **윤자영** : 저는 생태계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나와 약간 비슷한 성향의 질문과 작업을 하는구나.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있는 저 멀리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생태계와 그런 기반 혹은 기획자와 평론가. 혹은 내가 실험해오던 것들이 지속될 수 있거나 레퍼토리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떠올리면 되게 많이 깜깜하거든요. 이런게 생기지 않는 게 생태계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도 들고, 작업을 아무리 꾸준히 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해줄 사람이 없고, 돌아오는 관객이 그렇게 확장되지도 않고, 이게 다 창작자들이 개인의 역량으로 더 하려면야 하겠지만 그게 저는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공연이 하나 끝났는데 이에 대한 자료집을 만드는 일. 그리고 1년 작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지원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원 사업에서 개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창작자들이 해야 하는지 이런 선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은 그래도 생각보다 꾸준히 있었고, 물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기간 동안 사라졌지만 그런 이름의 항목이 계속 있었음에도 그 생태계라는 게 되게 희미하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지침이 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실험의 시작 단계에서만 어떤 지원이나 포커싱이 되는 이게, 뭔가 만들어지려다 끝나고 만들어지려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 **박지선** : 네, 그렇죠. 생태계가 보이지가 않는데 생태계에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다 필요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보람 작가님은 어떠세요?
- **김보람** : 저도 생태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살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군락을 이루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할 텐데. 이런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희귀종 같은 느낌? 그래서 개개인 별로 살아남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공연 페스티벌인데 어쩌다 한두 개 특이한 장르를 넣어볼까 해서 들어간다던가. 전시 안에서도 라이브 퍼포먼스같이 보여주고 빠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성으로 잠시 보여주고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을 일단은 하더라도 보통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만족스럽게 나온다고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후속 지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을 제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앞서 다른 분들의 어떤 비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정세영 연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장르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서 그 안에 묻어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자체적으로 다원이라는 이름의 페스티벌이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생태계는 전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어떻게 보면 기본 먹거리는 1년에 얼마 정도씩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생태계 형성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

로 각자 작가들이 하고 싶은 게 어쩌다 보니 다원예술 쪽이라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선** : 네, 혹시 다원예술 생태계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 **박민희** : 예전에 정세영 작가님과 사석에서 만나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우리가 창작만 계속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활동인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게 곧 활동인데. 사실 활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스스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게끔 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때 그게 활동인 것 같은데. 우리는 창작이 곧 활동인 사람들이 되어서 작품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스스로 성장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서 굴러가고 있는 것도 보고 싶기는 한데, 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제공형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뭉쳐서 페스티벌이건 아니면 어디 거점을 하나 두고, 거기서 계속 꾸준히 다시 재공연 할 수 있게 하건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라 당시에 신나서 이야기만 하고 지나간 아이디어가 되었는데. 재공연 플랫폼은 정말 지금도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 작가들, 언제나 훌륭한 작업을 해내는 똑똑한 사람들은 재공연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사례인 것 같아요. 조금 덜떨어진 작업들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러면 작가도 성장하고, 결국에는 작업도 성장하고 작가도 성장할 때 생태계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양희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원 사업에서 계량적 수치를 너무 요구하는 정산 과정이 좀 지쳐가지고 저도 지원을 안 받은 지 3년 올해로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정산보고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피곤한 것도 그렇지만. 내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대항할 때도 있고, 때론 시스템에 저항하고, 기존 장르 문법 체계 혹은 그 분류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약간 저는 기존의 체계에서 도망가는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자본주의에 되게 나름의 작은 반항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다시 자본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정산을 할 때 정신적으로 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늘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관객이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안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몇 명이 왔는지가 결국 평가의 기준이 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 평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와 무관하게 그냥 수치로만 남는 거니까요. 그런 계량적인 수치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다른 기준의 정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관객 리뷰 평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8년에 받았던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관객 리뷰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평가처럼 리뷰가 있어서 좀 수치심을 느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읽어봐 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한국 사회가 예술이라는 것의 가치가 크지 않은 사회이고, 교육이 잘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혹은 그걸 언어화하는 것도 다들 미숙한 사회에서 일반 관객에게 평가받는다든가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어요.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그 층이 굉장히 얇은 사회에서 왜 대중의 시선을 이런 예술에까지 가지고 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것들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는 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시의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긴 싶긴 한데, 언제 또 부활될지 모르는 일들이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박지선** : 자연스럽게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 시스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부터 평가, 정산까지. 그 안에 있는 현황이라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다원예술에 대한 지

원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문제점, 또는 다원예술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창작과 유통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원 예술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결과 중심의 그런 지원서 보다 앞부분을 더 강조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물어봐 주는 그런 지원 제도 였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 또는 필요한 지원 제도가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자영 작가님은 혼자 작업하면서 지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작업을 다원예술로 시작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기존 장르 쪽보다는.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할까요?

- **윤자영**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건 레퍼토리 혹은 재공연. 그러니까 실험적인 작업들도 실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디벨롭 될 수 있는, 작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 지원 사업을 해보고 싶고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되게 많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웃음) 작품을 둘러싼 연구나 비평에 대한 지원도 다원이라는 항목에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종류의 작업에 다른 장르에 있는 비평가들이 관심은 많지만 그런 기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에서도 미술이나 무용이나 연극 이런 항목들 말고, 그래도 문화 예술위원회 지원에서는 작품 개별 지원이 아닌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에 관련된 지원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훨씬 작품 지원들 위주로 가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창작산실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신진에서 청년이다 청년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그 단계에서 다원에 대한 지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는 어떤 극단을 가지거나 극단처럼 작업을 점점 키워서 대극장에 가서 레퍼토리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작업 형태인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작업을 10년, 20년 계속했을 때 어디서 어떤 형태로 머물고 있을까. 어떤 것들을 내가 계획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미래도 한 번 생각해 봤고. (웃음)
- **박지선** : 미래가 안 그려지는군요. (웃음) 네, 양희 작가님.
- **이양희** : 아까 세영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계속 이 지원금에 대해서 이 분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인 것 같은데. 황당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원예술의 지원 이렇게 크게 대분류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음악, 미술, 무용, 또 연극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장르 안에서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기타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다원에서 기타고 무용에서도 기타. 어떤 카테고리라이즈가 계속 기타인 상태라서. 무용의 한국무용, 현대발레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그렇다면 그 안에 경계 없는 카테고리라이즈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무용 공연의 큰 틀에는 자신이 속하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 형식이나 본인의 장르가 지금 기존에 정확하게 분과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도 경계가 없음이랄까? 저는 기타나 다원이라는 것보다 '경계 없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 안에다 넣는 방식은.
- **박지선** : 권병준 작가님은 혹시 필요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본 게 있으실까요? 어쨌든 작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작업인 것 같은데. 아까 박민희 작가님이 재공연 플랫폼도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다원예술과 관련해서 기존의 지원 사업과는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병준** : 저는 계속 다원 장르가 있어야 된다고 좋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성의 작업들과 뭔가 결이 다르고, 그 사이를 계속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사

실 동료평가제나 그런 것들도 다 약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미세한 것들? 그런데 저는 지속 가능했으면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금제도가 조금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에 더해서 예를 들면 작업실 월세 이런 걸로는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팀들을 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인데, 그런 것들은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것들도 특성상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가기 위한, 제 개인적인 고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계속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작품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주로 공연예술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연예술도 누가 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구입해야 되고 그게 좀 공식화됐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 쪽 분야에 상(賞)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금도 있고. 물론 처음에는 이야기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賞) 제도 같은 것들도 하다 보면 저절로 공론화되고, 이게 맞냐 틀리냐부터 해서 평가들도 막 오고 가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하는 사람들도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 **박지선** : 사실 연말이 되면 다른 연극 장르나 무용 장르나 전통예술이나 상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원예술은 협회도 없고. 사실 이게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생태계를 이야기했지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 작가님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 **김보람** : 지금 다양한 작가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특히 마지막에 권병준 작가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賞)?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생기기 위해서는 이게 장르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 같고. 일단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이걸 참여하면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계속 해왔는지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했던 두 케이스가 있었고, 코카¹⁹⁾에서 기금 받아 한 적 있었고, 우란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운이 좋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다원예술 지원분야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년 동안 사라졌다 돌아왔잖아요. 이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융복합 아트엔테크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일단 해소되어야 할 것 같고. 음... 저도 답은 전혀 모르겠는데. 장르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용어 정도로만 남아있는 이 분야가 좀 공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실험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재공연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비평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지원 분야 이외의 것이 하나라도 후속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냥 창작만 가지고 작업하는 지원금 이외에. 그래야 다원이 더 살아남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박지선** : 세영 작가님은 어떤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방향성.
- **정세영** : 약간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원예술 지원하시는 분들 작업들에 어떤 글이나 비평이나 혹은 피드백 같은 것들이 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원금 안의 비평과 글을 쓰는 기금 항목을 아예 마련해 놓으면 작업 하나당 하나씩은 꼭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술이나 이런 장르에서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게 같은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하면 글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고. 그리고 보통 과정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서 연구모임

19)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코카'로 명칭 통일.

이런 것들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모임 말고 레지던시는 아니더라도 그냥 작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얼굴 만나고 한 번 말이 트이면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난 분들이. (웃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야기들을 서로 해야 되니까 각 작업마다 각자 이야기하는 질문들과 방식들이 좀 달라서 서로 1대1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지원항목 안에 자유롭게 자기의 작업을 펼칠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그해의 어떤 중요한 시제나 혹은 문제 같은 것들을 기관에서 어떻게든 제시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내 작업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창작자들이 작업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언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시제가 비슷하고 질문이 비슷해지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다원예술이 문법들이 달라서 이야기할 때마다 간극이 좀 있어서 혹은 이해 못 하거나. 그런데 공통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선** :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다들 많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옛날에 다원예술 매개공간 같은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긴 했는데. 다원예술 쪽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면 작업할 수 있거나 재공연하는 플랫폼이면서.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님 김장연호 위원님 계속 듣고 계셨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 **김장연호** : 제 마음을 읽은 듯한 느낌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권병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서 공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가 생겼던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비슷한 예술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술의 형태들이 일단 다원예술로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 건 확실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든 일단 현대예술 안에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예술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공감이었다는 건 효용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어떤 트랙이 나뉘지더라고요. 조금 더 내 작업을 실험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분들이 계시고, 이제 실험은 끝났고 어떻게든 유통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 작업이 상업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 시장에서 한 번은 무대에 올려 시너지를 일으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예술가분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활동하면서 그런 두 가지 욕망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주로 같이 하는 예술가분들은 시각미디어 쪽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영화 쪽으로 아예 빠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작품 판매가 되지도 않고. 아까 권병준 선생님과 이양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 미술은 작품 판매되는 유통 통로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약간 비물질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퍼포먼스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시각미디어아트라든가 영상예술 작업이나 비물질 작업, 사운드아트나 이런 작업은 현장에서 판매가 거의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예술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보다는 시장이 더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내 작업들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아예 상업적인 부분 말고 내 작업이 순수한 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예술의 감각이나, 상업적인 것과 별개로 꾸준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걸 개발하고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의 트랙 자체가 이 예술 분야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책이 이 두 개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 만드는

거 플랫폼 만드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한 번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박지선** : 네, 임인자 위원님 지금 채팅으로 해주셨는데 혹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채팅으로밖에 안 되실까요? 네,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채팅으로 의견 주셨는데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 내용 확인 필요) 혹시 박경주 위원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 **박경주** : 네. 총 다섯 번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끊어진 지점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공통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최했던 지난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사업이 생기고 나서 다원예술 지원금 받아 활동하시던 분들이 어디서 끊겼냐면. 그다음에 더 성장해야 되고 자신의 작품이 관객들을 더 만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멈춰버렸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초반에 다원예술에 진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도 없고, 이러한 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초반 한 5년 정도는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라운드 테이블 끝나고 포럼 하면서 함축적으로 논의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고서를 쓸 예정인데 이후에 향후 5~6년 정도 이 지원 사업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반영이 꼭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밖에.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선** : 네. 아까 임인자 위원님께서 다원예술 생태계가 없다는 말에 공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실제 없는 생태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태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없다고 한다면 다원예술 분야의 고유한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저는 기존의 예술 생태계에 다원예술이 어떻게 연결되고, 아까 교집합과 여집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원예술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저희가 일반 관객이라고 한다면 대중예술 쪽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왔을 때 접근할 때 베리어가 좀 높잖아요. 장벽이 좀 높은데. 박민희 작가님도 어떤 다른 장치 없이 그냥 평가로 밀어붙이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상업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객의 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객의 수라던가 작품의 효율적인 가치 이런 걸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예술들과 차별화되어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계속해서 다원예술이라는 분야가 확장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작가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시대의 변화와 다원예술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떤 관점에서든 다원예술은 왜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이것들을 만들어야지만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로부터 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분씩 다원예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가치로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정세영 작가님부터 말씀하셔서 다시 정세영 작가님부터.
- **정세영** : 다원예술 이 분야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장르 같은데 장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원예술이라는 성질이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희미하게 은근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 **박지선** : 네, 양희 작가님.
- **이양희** : 저는 아까 권병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반골 기질이 있는 상태? 그런 아티스트지만 사실 동시에 어떤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능성을 계속 확장시키는 전방에 있다고 생각해요. 반골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거부만으로는 이뤄지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생성되면서 본인의 예술적 실천으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경계 없는 자들이 계속 깊이 있게 작업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지 않은 예술가가 어디 있겠나마는. 그런 점에서 다원 분야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지선** : 네, 자영 작가님.
- **윤자영** : 저만 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대에 뭐가 올라야 되지? 공연의 형식이 어떤 거여야 하지? 사실 어떤 의미로는 연극적인 질문에서 작업을 출발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전혀 다른 형식들을 선택하게 되거나,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하게 되거나. 창작자들만의 해석의 다양성을 그래도 가장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영역이 다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라. 이게 어떤 장르화가 되어야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 자체는 저도 너무 중요하고 계속 지속되고 더 커지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다음 김보람 작가님.
- **김보람** : 저는 사실 다원예술 분야가 없었으면 작업을 시작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상 작업으로 시작했고. 영상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디서 선보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다가 만난 게 다원의 지원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상상을 기존에 있는 영역이 아닌 것에서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레지던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레지던시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작은 실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다원이라는 이름의 그런 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작가분들이 다양한 레지던시에 들어가시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장르지만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방식의 지원체계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감사합니다. 박민희 작가님.
- **박민희** : 저는 기존의 장르가 고정된 지원은 기성 장르의 생존방식을 계속 공고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다원예술은 공고화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다른 상상의 여지를 주면서, 사회를 계속 다른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과 파장을 거듭하면서 기성 관습에 대한 안티 체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산업화된다면, 작품 스스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거나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상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생각들을 지원하고. 그게 결국에는 많은 사회의 여러 곳에 다른 일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마지막 권병준 작가님.
- **권병준** : 아까 비평가 매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후원자 매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이런 작업하는 분들을 개인이 됐건 누가 됐건 후원자 매칭으로 계속 후원받으셔서 길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태계 없음, 실제 명확하지 않음, 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원인 것 같아요. 굳이 그걸 자꾸 규정하려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공기처럼 존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만약에 2D로 그렸다면 이건 다른 레이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메타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어떤 모호함, 경계 없음, 그런 작업들이 승화해서 올 수 있는 여지로 남겨둘 수 있으면 앞으로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선** : 네. 감사합니다. 박민희 작가님.
- **박민희** : 사족을 하나 달고 싶은데.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생각난 게 있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테크를 지향하는 작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점점 더 로우테크 혹은 안티테크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고, 제가. 지원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있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심상이고. 다원예술은 테크놀로지를 지향할 것만 같고, VR세계에서 일어나야 할 것만 같고, 이런 편견이 저에게 스멀스멀 생겨서 안티테크를 향한 욕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지원 문구 같은 데 너무 테크놀로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박지선** :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의견을 생각하셨는데 아직 못 주셔서 이건 꼭 끝나기 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라운드 테이블 TF팀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도 계속 같이 들으셨는데 예술가들이 계속 정산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서 작성,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의 방향성 그런 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견들. 들으면서 느끼신 것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준화** : 저는 오늘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인데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여러분 계셔서 팬심으로 듣고 있었는데, 주시는 의견은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어서 좀 혼동스럽게 듣고 있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행정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같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됐든, 유통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창작의 문제가 됐든, 이게 공고하고 어쩌면 권력화되어 있는 다른 기존 장르들 사이에서 어떻게 창작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됐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산 문제는 사실 별도로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항상 상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주신 의견 중에 계량화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관객의 평가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평가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관객이 천명 왔으니까 이 작품은 75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작품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의미는 그래봐야 5억밖에 안 되지만 다원예술에 5억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그 아웃풋은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재정부²⁰⁾에 가서 돈을 더 주세요라고 하기 위한 용도가 제일 크고요. 개별 지원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용도는 1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도 하게 되면 길어지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다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작년 5억을 15억이란 숫자로 기재부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재부에 처음 가면 올해 사무관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두려운 순간인데 가장

20) 이하 '기재부'로 통일.

일반적인 경우가 '예술가한테 돈을 왜 줘요?'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기재부의 담당 사무관이 느끼고 있다면 저희는 안도하면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 용도예요. 이리이러하게 필요하고 이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고 있고 그런 용도인 거지, 개별 작품이나 개별 작가님들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는 절대 아니라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지선**: 네, 감사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변화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인자 위원님 지금 화면 컷는데 마지막으로 의견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임인자**: 채팅방에도 썼는데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진짜 혁신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원예술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험해 왔고, 그것들은 또 다른 정책의 이름으로 많이 제도화되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앞서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생태계도 없지는 않은데 많이 없어지고 많이 파괴되어 버렸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정책 고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재미있는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예술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 뵈 작가님들 너무 반가웠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선**: 네, 감사합니다. 저희 2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려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이 4월 28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 오픈 포럼 때 다섯 개 라운드 테이블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메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부장님께서 기존에 5억 지원에서 15억 정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원예술이 앞으로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작가님들도. 아까 권병준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좋은 작업으로, 우리가 계속 좋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원 확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4회차



▶ 사회_김건희(다원예술 TF 위원)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후 1시 / 비대면 온라인(줌)
- 사회 : 김건희(다원예술 TF 위원)
- 패널 : 김미소, 이소영, 전진모, 김보경, 김신우
- 다원예술 TF위원 : 박경주, 김장연호, 박지선, 임인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총괄부 정준화, 오성근

- **김건희** : 1시가 되어서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섯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술위원회²¹⁾ 다원 TF. 잘 들리시나요? 임인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 **임인자** : 안녕하세요.
- **김건희** :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박경주 위원님도 들어오고 계신데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주** : 안녕하세요.
- **김건희** : 안녕하세요. 박경주 위원님.
- **박경주** : 좀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나요?
- **김건희** :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위원회 다원 TF 3차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차군요. 네. 저희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됐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21년에 6년 만에 복원했는데, 블라인드 동료 평가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고. 22년 다원예술 활동 지원 Reboot²²⁾는 다원예술창작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방식의 동료평가제는 최종 폐지되었고요. 이렇게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복원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고, 이후에 더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다원예술 TF가 꾸려졌고. 저희 다원예술 TF 위원님들이 저 말고 네 분이 계시요. 먼저 박경주 선생님 계시고요. 박지선 피디님, 임인자 선생님 계시고, 김장연호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다섯 명이 다 다른 주제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21) 이하 '문화예술위원회'로 통일.

22) 이하 '리부트'로 통일.

모아서 자료집도 제작을 할 것이고 4월 말에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퍼블릭이 아니지만 제가 섭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주시는 것들은 아까 녹화 버튼 누르셨을 텐데요. 기록을 위해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고, 자료 제작이 끝나면 다 폐기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발언해 주시는 것들은 자료 제작 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섭외한 저희 기획자, 기획 분야의 다섯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극장 대표이신 전진모 대표님, 고주영 피디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오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김신우 피디님. '옵신'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보경 피디님 계시고요. 이소영 피디님 계시고. 그리고 김미소 대표님 계십니다. 제가 섭외 때와 저희 다원 TF 때 간략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라운드 테이블 내용과 질문과 참여하신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획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예술가분들은 직접 사업의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시지만 또 기획자가 함께해서 팀이 꾸려져가지고 작품이 나오는 경우를 특히 다원 쪽에서는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과 창작자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해주시면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작품이 올려지기까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의 호흡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원예술의 정의 그리고 지원정책 분야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기획자의 시선에는 보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섯 분을 모시게 되었고요. 일단은 먼저 공통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메일에 받으셨겠지만 다원예술의 정의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기획자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혹은 현재 활동하시는 씬에서 다원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회자의 권한으로 지명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소영 피디님 어떠신가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김건희** : 참고로 이소영 피디님께서 '김치앤칩스' 프로듀서를 하시기도 했고요. 다양한 작품들의 피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이소영** : 네, 다원예술.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있어서 생각해 보면 주변 작가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원 예술 뭘까. 그러면 전부 다 모르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가장 동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사유와 가장 동시대의 매체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그래서 기존의 장르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통으로 다원예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트앤테크놀로지라든지 기타 다른 시어터라든지. 이미 최신의 것들로 작업을 하려는 행동들은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다원예술이라고 규정해서 '아, 그러면 우리는 다원예술이 되었다'라는 인상입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김신우 피디님께서 어떻게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신우** : 소영 피디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한국에서 좀 특이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예술이 향하고 있는 어떤 특징 혹은 방향성이 다원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르 간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매체가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동시대 예술의 특성에 더 가깝지, 그걸 또 다시 어떤 장르로 이렇게 묶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다원성을 역행하는. 오히려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워낙 연극이나 무용이나 이런 장르들의 벽이 굉장히 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방금 이소영 피디님이 말씀하신 동시대적인 사유나 동시대적인 매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어쩌면 생겨난 그런 장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원예술이 뭐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기존의 장르로 포섭될 수 없는 그런 예술들이 다원예술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

점 더 커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아무래도 동시대 예술이 더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될 그런 장르 아닐까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극과 무용과 이런 것들이 동시대적인 매체성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약간 동어반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먼 미래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건희** :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소 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미소** : 저는 사실 음악 분야, 축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다원예술 씬에서 많이 깊숙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장르 예술 안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가장 탈장르적인 것들이어서 늘 영감이 되는 어떤 콘텐츠이자 영감이 되는 장르로서, 같은 예술계 안에서 어떤 동시대 트렌드나 동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유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형식들 이런 것들을 다원예술이라는 장르 안에서 저는 찾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도 최근에 아트앤티크 관련해서 지원 방향을 개선하는 어떤 연구들을 했는데. 지금은 미디어아트, 융복합예술, 다원예술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개념 안에서 어떻게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고, 어디까지에 경계가 다원예술이고 아트앤티크고 융복합예술이고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태계와 구조와 환경 안에서 다원예술이란 그럼 뭐라고 더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이게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안고 들어와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듣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갈무리되는 어떤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건희** :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융합, 아트앤티크 쪽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라. 이따가 관련해서 이런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모 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진모** : 네, 뭐. 저는 사실 기획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실 다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분야에 대해서. 게다가 신촌극장 하면서 사실 장르에 대해 스스로도 좀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다원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연극이라고 해야 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원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게 하이테크놀로지인지 동시대의 어떤 기술이 들어오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기존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 방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이것저것 관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들여오는 것. 이것이 다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습적인 어떤 경향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연극을 바라보던 어떤 고착된 시선, 연극이 이게 잘 만들어졌다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기존의 평가의 잣대로는 보기 어려운. 혹은 안무의 잣대에서도 보기 어렵고. 기존 관습적인 경향 안에서는 평가가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뭔가 나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름 붙은 게 다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경 피디님.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고로 리부트 사업 모니터링 갔을 때 모니터링 한 작품 중에 손꼽게 좋았던 작업의 기획을 하셔서 모시기도 했었는데요.
- **김보경** : 감사합니다. 저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많이 기획자로 해온 사람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사실 저도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자 입장에서는 기존 장르에 넣을 수 없는 예술작업이라고 하면 다원예술로 넣었던 경향이 많았었고요. 저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시각 장르에서 좀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다? 공연 쪽으로 결합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과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기존의 예술 장르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예술을 시험하는 장르가 다원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코로나 이후 상황도 그렇고. 단순하게 이전에는 매체 탈장르 이런 장르의 경계에서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고민이 생

기고 확장되었다고 느끼는 건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방식.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걸 수도 있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의 행위도 예술 장르에서 다원예술의 개념으로 확장되지 않느냐라고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가 장르 매체를 떠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보이는지? 그런 것들 또한 저희가 개념이 확장되는 것 같아서. 요즘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형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원예술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건희** :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어제 저희 박지선 피디님께서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과 진행하신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동시대적인 탈장르, 어떤 새로운 형식. 그런데 항상 인식되는 요소가 지원 사업 기금의 문법과 그 안에서의 장르 문법에서 다원을 볼 건지. 그리고 기금의 문법을 떠나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서의 다원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두 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뉘더라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지원 사업에서의 장르 구분을 보셨을 때 다원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다원으로 선택해서 지원하게 된다는지.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예시라든가 그 과정들을 꼭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장르 문법이나 그 안에 있는 다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인상들.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사회자의 권한으로 김미소 대표님 어떠셨나요.
- **김미소** : 저 조금만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 **김건희** : 네. 이소영 피디님.
- **이소영** :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신우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기금으로 접근해 보자면 분명히 기존의 장르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원이라는 그런 기금 장르가 또 필요해서. 하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기존의 장르 문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연극이라고 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연극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모습일 수 있고, 그게 굳이 다원인 게 아니라 연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작업으로서 다원도 조금 낫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저한테 조금 낫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다원 장르다 그런 것보다, 내가 관심 있고 가장 동시대적인 것들을 고민했을 때 어떤 작업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 뭐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건희** : 김보경 피디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보경** : 음... 저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소영 님과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원예술에 지원하는 아티스트들을 대부분의 유형 예를 들면 무용에 지원한다, 연극에 지원한다,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지원하는 아티스트 분께서 그쪽 이력이 없거나 경력이 없을 때는 사실 다원예술에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용 공연을 조금 더 확장하고 연결해서 하고 싶다는 시각 쪽 작가님들이 계신데. 제 입장에서는 무용 공연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으나 이 분이 무용 공연에 관한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원예술로 넘어가는 상황이 솔직히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예술이 꼭 필요할까?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많았으나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원예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건희** :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기획자분이 아티스트를 보셨을 때 특정 장르의 경력을 고려해서 다원으로 제안하셨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예시가 장르 안에서 쌓인 역사라든지 어떤 공고함 같은 것들을 현장 아티스트나 기획자분들도 수치화되어있지는 않겠으나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진모 대표님 혹시 의견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진모** : 제가 아마 다원에 대한 경험이 제일 없지 않을까 계속 우려가 됐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뭘 하다가 하는 사람, 어떤 것을 접목해 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고 찾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 저한테는 별로 다원이라고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대체 뭘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요소 저런 요소가 합쳐져서 어떤 표현을 하든, 어떤 경험을 주고 있든, 뭔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극장에서 1년 라인업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연극을 해왔다 하신 분들도 극장에 들어오면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도 하고, 기존에 안무를 해왔다 하신 분들도 극장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다원으로 읽히지는 않고. 애초에 그런 장르적으로 나눌 수 없는 뭔가, 기반이 뭔지 모르겠는데 표현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고. 그 표현의 방법을 움직임이다, 연극이다, 대사다, 아니면 서사다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표현해 볼까를 자가발전적으로 해내시는 분들? 그 시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매체를 들여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신우 피디님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의 문법도 괜찮고요. 경험하신 부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신우** : 분명히 지원 사업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 간에는 문법의 괴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니까 양 방향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 보시고 싶으신 방향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아예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혼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양상처럼 나타나고 있지 이게 하나의 장르로 고착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점점 더 다원성, 혼재성은 커지고 있는 게 현장의 흐름이라면. 오늘 TF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지원 사업과 다원예술을 기금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더 탄탄하게 장르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나 그런 생각,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들기는 했어요. 다원예술이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다원적인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실천들이 조금 더 주목도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탄탄한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으면 좋겠는 동시에. 사실 그런 양상은 모든 예술, 무용, 연극, 뭐 어디에서건 다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나.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건희** : 피디님 말씀하신 지원 사업과 현장 간의 괴리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경험하셨던 예시 같은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신우** : 단적인 예로 제가 일하고 있는 '옵신 페스티벌'도 지원서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지망하는 다원예술의 축제라고 15번쯤 쓰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축제를 소개하거나 홈페이지나 모든 브로슈어에 다원 예술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동시대 예술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런 축제를 연극에 넣을 수도 없고 무용에도 넣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 다원예술에 넣을 수밖에 없고. 일단 잘 되려면 다원예술임을 피력해야 되는 그런.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어쩌면 반대하는 문법으로 지원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인 것 같습니다.

- **김건희** : 말씀하셨던 다른 내용 중에서 현재 양상들이 되게 혼재성이 높아지고 있고, 하나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박지선 피디님 라운드 테이블 참여하셨던 분들의 일부 의견 중 기억에 남았던 게 다원적임의 심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고착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게 다원적인 건가' 하는 것 자체가. 또 동시에 다른 분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탄탄하게 열어놓고 채워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연결해서 궁금한 게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혼재성이 어떤 측면에서의 혼재성으로 인식하고 계신 건지.
- **김신우** : 고민이 필요한 질문인 거 같긴 한데요. 일단 장르 간의 혼재성은 너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시각예술과 연극, 무용과 연극, 그 모든 것. 그리고 매체의 혼재성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진모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원성이 다시 장르로 고착화되는 것이야말로 다원예술의 생태계에 되게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제 주변에서만 봐도 실제로는 영상을 쓸 계획이 없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작품이지만 사유나 어떤 표현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연극 문법이나 무용 문법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작품이라 웬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 프로젝션에 사운드 믹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쓰고 그러거든요. 주변 작가들을 보면서 다원예술이라는 장르로 고착화되고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혼재성은 공연에서 퍼포머도 등장하고, 영상도 써야 되고, 사운드 믹싱도 해야 되고 갑자기 무슨 이펙트도 나와야 되고, 이런 혼재성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사유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문법으로 고착화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 문법들을 자유롭게 가져와 쓰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미소 피디님.
- **김미소** :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다원예술이라는 장르가 없었다면 전통예술이나 음악 파트에 있었던 제 주변 지인들이 장르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봤을 때 불가했을 것 같다는 게 굉장히 공고하고요. 연극, 무용, 또 시각예술 쪽과는 다르게 음악은 클래식, 전통예술은 아주 공고한 장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탈장르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습을 아예 그냥 엮어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은 지금에서는 좀 수용성이 생겼지만, 그 장르의 위계 안에서 절대 뚫고 나올 수 없었던 작업들이 분명히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구분된 이 트랙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원예술에 입각한 어떤 음악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전에 해봤던 것 같고요. 클래식 음악이나 아예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야'라고 장르 자체를 부정하면서 전통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예 선언적으로 '나는 저 트랙에 들어가야겠어'라고 해서 어떤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들이 분명히 있었기도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원예술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트렌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동시대에 가장 유행하거나 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다원예술이기도 한데. 그게 어느 정도 또 많이 '웬지 이런 문법을 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 장르 안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다원예술은 동시대 안에서 가장 실험적이거나 탈장르적이거나 해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모였다가 파괴돼서 다시 흘러들어가고 그런 유동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신우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경향성 때문에 웬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다원예술이 이런 메소드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것들이 한동안

지배적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그거 자체도 깨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원예술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 형식적인 접근에 아직까지도 머무르는... 아직까지도 그런 작가들이 있으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조차 중심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다원예술가로서 아니면 다원 분야에서 활동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무형이나 유형의 인프라가 뭐라고 느끼시는지.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고. 전진모 대표님 같은 경우 극장에 올라오는 작품을 보시면서, 그걸 여쭙보려고 했는데. 그간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상에 남았던 게 다원예술가로 나를 소개하거나 내 작품은 다원적이라고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주제라든지 어떤 형식을 탈피하고자 했는지 이렇게 푸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다고 느끼고 또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나 동료 기획자분들을 보면서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무엇이 제일 강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경험하셨는지. 이 분야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다원의 정의를 바로 내릴 수 없듯이 그 분야를 울타리로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활동하신 그 씬 안에서 경우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들어간 라운드 테이블의 기억이 제일 생생해서, 참여하신 분 중에 다원예술은 다른 장르와의 연계나 연결되는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들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보경 피디님 혹시 의견이나 경험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보경** : 생각을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웃음)
- **김건희** : 제가 지목을 안 해도 말씀하고 싶으시면 편히 말씀 주시면 되는데. 혹시 소영 피디님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셨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경험 말씀.
- **이소영** : 좀 고민이 필요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냥 기대하기로는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다 혹은 타장르와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이런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작품들이 최대한 다양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경향성을 띠지 않도록.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프로젝터를 꼭 써야 될 것 같은 기분과 어떤 실험적인 사운드를 꼭 써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 결과물들이 최대한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신우** : 이걸 꼭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에 아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다원예술에서 많이 느끼는 작가들의 결핍은 일종의 플랫폼 부재인 것 같아요. 전진모 대표님은 겸손하셔서 아니라고 말씀을 늘 하시지만 저는 신촌극장의 존재 하나만으로 어떤 생태계 같은 것들이 생기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의 지원 시스템에서는 작가가 각자 도생이잖아요. 자기가 1년 단위로 지원해서 받고, 그걸 자기가 홍보해야 되고, 자기가 공간을 섭외해야 되고, 관객도 모객해야 되는데. 그 작품 활동 외에 다른 모든 부수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쌓이는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큰 의문이 있거든요. 방금 소영 피디님이 굉장히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도 100% 동의하지만, 동시에 저는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어디서 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되게 뒤늦게 '그 작가 거기 어디서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이고 되게 복잡한 배경들이 있겠지만 어떤 공간 혹은 어떤... 제가 축제를 하니까 너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축축제나 이런 다양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따라가면서 볼 수 있고, 팔로우업 할 수 있고, 작가들도 하나의 홍보채널로 자기의 작품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이 있어야 이게 알알이 흩어지지 않고 어떤 생태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주변에 들어보면 신촌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작가들. 어쨌거나 신촌극장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서 계속 홍보가 이뤄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모객이 이뤄지고 있고. 그게 크건 작건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구심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 **김미소** :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타장르에 몸담고 있지만 동시대 예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전에는 사실 다원예술 축제나 그런 공간들. 그냥 딱 떠오르는 축제, 딱 떠오르는 공간들이 있어서 내가 잠시 그 분야를 잊고 있어도 '나 이런 게 요즘 필요한데, 뭘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읽을거리, 볼거리들이 연상되는 게 확연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큰 대형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서 공공의 시리즈로 나오는 발간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흐려져 있고 다른 경로도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보고 싶거든요. 이것들이 좀 잘 정돈된 형태로 보고, 그것들을 까먹고 있었지만 다시 추적하고. '예전에는 이런 게 다원예술인 것 같았는데 저기에서의 다원예술 경향은 다르네?' 그리고 아까 이소영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른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방식에서 다원예술이 지금은 이런 방향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어디에 집중돼서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지 씬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예술계 내에서 내지는 또 다른 관객들이나 그걸 향유하는 층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 **김건희** : 미소 대표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혹시 다원 분야 지원의 공백이 그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느끼시는지.
- **김미소** : 그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도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있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다 사라지고 있을까. 문화예술 전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그게 거시사회 변화의 일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지원의 공백의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힘뻑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게 다 각자 장르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장르에 편입되지 못한 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 : 아까 신우 피디님이 말씀하신 신춘극장이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느끼신다고 저도 이해했는데. 전진모 대표님. 혹시 관련해서 작업하는 아티스트 분들이나, 보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나 경험들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진모** : 일단 경험적으로 신춘극장에서 어떤 분야든지 좀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나는 다원작가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 섭외하는 일이 진짜 어려웠어요. 너무 만나기도 어렵고, 나를 다원작가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접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비하면 신춘극장에 '나는 다원작가야'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런 것 같고. 그것이 이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 때문인지, 뭔가 이상한 어떤 충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향성에 따라서 각 장르가 이런 실험적인 것들도 어떤 면에서 안아가고 있어서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아주 초반에 질문을 던지셨을 때부터 지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다원이라는 장르의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다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제 생각에 이 다원이라는 장르는 지금 당장 '이거야'라고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이런 건 어때?'라고 계속 던져지는, 계속 갱신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지원 분야로서 계속 갱신된다는 걸 장르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갱신되는 것들을 찾고 발굴하고 그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런데 아티스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이 토대 안에서. 이 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대에 가장 엷지에 있는 어떤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표현을 해보았던 사람이 사실 굉장히 실례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것이잖아요. 딱 그때 유효했던 아이디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유효했던 아이디어적인 것이 과연 그 작가의 결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 눈에 관찰되거나, 아니면 계속 동시대성을 떨 수 있는가. 이걸 조금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실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다시 쫓아가야 되는 건 과연 이렇게 다원이라는 장르 안에서 시작한 아티스트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가. 다시 결국에는 기존의 장르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도 되고. 또는 지금 유효했던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신촌극장에 대해 아까 신우 피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극장을 하게 되면서 저도 몰랐던 플랫폼들도 알게 되거나. 못 가보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도 한데 현상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관객층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중요한 작업이라면 지금 빠르게 유통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서 계속 재공연되고 다시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은 간단한 발표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이 유통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아주 즉시적으로 빠르게 유통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 **김건희** :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성, 유통 등등을 고려했을 때 '다원 분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매개공간, 오늘도 계신 이런 프로듀서 분들, 그리고 축제. 어떤 규모로든 이런 구심점이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주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적인 접근은 어떤 것일까요?
- **전진모** : 제가 가장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웃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토대가 연극이고, 저는 연극 연출하다가 극장을 만들어서 지금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제가 했던 연극은 그렇게 실험적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촌극장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언급되거나 아니면 그런 작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혹은 없던 경향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 근거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사실 라인업으로 작가가 들어오게 되면 티켓 수익만 분배하고 별도의 대관료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라인업에 들어올 때 작가가 하고 싶은 걸 미리 듣고 결정하지 않거든요. 혹은 이걸 해주라고 부탁드리지도 않고. 작업하기 한 열흘 전쯤에 티켓 오픈할 때가 돼서야 제가 '이 작품은 이거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내가 시도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조그마한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나를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보게끔, 노크하게끔. 혹은 노크했던 걸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지원금의 경향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건 사실 다원을 떠나서 연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지원 사업을 잘 넣지 않기도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면 이거인 것 같거든요. 늘 뭔가 그 포맷이 있어요. 그리고 경향이 있어요. 그 해의 경향이랄까? 그래서 운대가 좋으면 그 해의 경향과 그 당시의 경향성에 맞춰서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무력해지거든요. 내 기획이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건실하다 한들. 지원서의 경향이 조절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극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요새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더욱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보경 피디님 혹시.
- **김보경** : 네, 앞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 봤

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기 이전에 지원 단계에서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다른 작업들과는 달리 좀 과정에 집중하고 또 실험적인 예술 활동이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창작자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형이 그나마 나누어져 있는 게 지원 사업에서는 대부분이 결과 지향적인 지원 사업이지만, 유형을 굳이 나눴을 때 리서치라든지 연구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리서치라든지 과정을 조금 더 연구하는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정말 적어서 기획자와 아티스트가 함께 하다가도 그냥 기획자로서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연구 단계라고 해서 적은 금액을 들이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이 장르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창작자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긴 해요. 기존의 창작자도 새로운 장르를 실험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도 있고. 저 또한 새로운 작업이다 보니 기존의 창작 시스템도 아니고 제작 시스템도 아닌데, 매번 새로운 유형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과정이나 너무나 짧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지원을 할 때 지원 유형을 좀 다각화, 다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의 지원 사업이라도 금액이 지금보다는 증액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기획자라든지 피디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분들이 찾지를 못하세요, 서로가.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자를 따로 신청하고 창작자도 따로 신청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도 서로 만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식의 유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면 기획자인 저, 그리고 창작자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에서 해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 **김건희** : 보경 피디님 말씀하신 기획자와 창작자의 매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유의 장르 문법과 상관없이 창작자분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원이라는 우산 아래로 볼 수 있는 그 썬의 창작자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김보경** : 저는 다원이라고 저희가 규정짓는 예술에 있어서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일 것 같아요.
- **김건희** : 왜 더 필수적이라고 느끼셨는지.
- **김보경** : 일단은 아무리 창작 작업을 하더라도 결과를 낳는 창작물, 결국은 만들어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험적인 다원예술 활동이다 보니 사실 창작자 스스로도 좀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은 기획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간간히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 창작자의 고민과 기획자의 시선은 다른데 그 안에서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체 다원예술의 장르라고 함은 변수가 많은 활동이고 작업이다 보니 기획자든 피디든 누군가 객관적인 시선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해결이 빨리 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 **김건희** : 보경 피디님이 나눠주신 경험이나 의견 관련해서 신우 피디님이나 소영 피디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획자나 창작자의 그런 연결고리 부분에 있어서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험이라든지.
- **이소영** : 죄송해요.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건희** : 네, 죄송해요. 보경 피디님이 이야기하셨던 기획자와 창작자가 조금 더 교류하거나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다원이라고 볼 수 있는 썬에서는 그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획자와 창작자의 연결고리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교류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지원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없는지 등등 경험이나 아니면 의견들 나눠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두 피디님들께 여쭙었습니다.

- **이소영** : 기획하고 프로듀싱을 할 때 사실, 제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절대 피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지원서 시즌에 전화 와서 ‘기획서를 쓰고 프로듀서를 찾고 있는데 같이 작업하실 수 있나요?’ 이런 접근을 제일 경계하고 있어요. 지원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작가와 프로듀서가 시간을 들여서 교류를 하고 있다가 작업이 나오는 그 방식을 저는 제일 편하다 생각하고 제일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가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맞는 혹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렇게 하다보면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풀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작업을 올릴 때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작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만 작업을 계속 올리게 되고. 저는 또 경계하는 게 그런 작업이 쌓이다 보면 어떤 경향성이 또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만약에 작가와 기획자를 어떻게 매칭 시킬까, 이게 어떤 지원의 모습으로 혹은 정책의 모습으로 유효하게 기획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신우** : 방금 소영 피디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만약에 지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위원회와 재단의 매칭사업 같은 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텐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소영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사업 시즌이 되면 지원서 써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 프로듀서의 역할이 기획자라기보다 행정 서포트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연예술 특히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기획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작가가 프로듀서를 먼저 컨택하거나 섭외할 때 사실은 자기가 하기 싫은 행정 일을 맡기고 심은 욕심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 작업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전시기획 지원 같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주변에서 일하는 젊은 큐레이터분들이 스스로를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공간에서 자신의 전시를 기획하고 그에 맞게 작가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라는 게 위계적으로 내가 널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금 말하는 니즈에 의해 서로가 매칭 해나가는 과정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껴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훨씬 더 많이 보러 다니고, 그 작가랑 일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 이번 7월에 어느 공간에서 전시하는데 같이하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면. 사실 공연예술계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설사 제가 엄청 흥미로운 작품을 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축제가 아닌 이상 내가 작가한테 ‘이번 가을에 제가 어디선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 함께 해보실래요’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전무한 것 같거든요. 기획자한테 그 정도의 어떤 기회나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이 좀 더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전진모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다원예술의 지속성과 지속적인 어떤 생태계에 관해서 논의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면, 사실 그 역할을 작가한테서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작가는 매년 지원 사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을 하다가 제주도 가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의 작가한테 맞기는 게 아니라 그걸 이끌어 나갈, 아까도 말했던 일종의 구심점이나 플랫폼 혹은 기획자 역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소영** : 그래서 저도 하나만 말을 더 하고 싶었던 게요. 지원서 시즌 외에도 상시로 뭔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소액이더라도. 뭔가 시작하고 싶더라도 당장 돈이 없으면 이야기조차도 시작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 시즌이 아니라 상시로 가볍게 지원하고 돈을 받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식의 지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건희** : 피디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지원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까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가장 큰 고민이 1년에 한 번 입시형, 이렇게 몰려서 하는 게. 그 나름에도 다각적인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기획자 지원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제 업의 영역에서 혼자 고민해왔었던 거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즌 이외에 뭔가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어떤 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느낀 게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매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없이 공간 지원이라든지 계속 말씀해 주신 플랫폼, 구심점이 되는 것들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 둔다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미소 대표님, 이런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축제를 기획하시기도 하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꼭 필요해 보이는 것들. 기획지원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들이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미소 :** 지금 2022년 정기공모에 다원예술 트랙들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원예술이라는 속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지원 사업 트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굉장히 도식적으로 다원예술, 다원예술, 거의 모든 트랙에 들어가 있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원예술이 다원예술로서의 의미나 변화하는 개념들을 강화한다고 봤을 때는 담론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뭔가. 그해 이슈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기관이 이끌어 나간다고보다는 민간의 기획자들이 조금 더 뭔가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사실 사라져가는 잘 만들어주는 생산자 기반의 작품들이 다시금 리뷰하면서 다시 찾아보게끔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다양해지는 다원예술의 개념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들 없이는 작품만 생산한다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기획자 내지는 기획형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자유 트랙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왜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예전에는 민간 주도에서 유지되는 프로그램들이나 공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대안공간화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축소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힘들어서 없어진 공간들. 작년에 했던 포럼 자료를 보니까 다원예술이 진행했던 공간들에 대한 리스트 업을 좀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원예술에 특화된 공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지금 신촌극장이 계속 언급되는데 그런 공간이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류의 공간이나 아니면 팝업 공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류의 지원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트앤테크 쪽 보니까 거기도 창작만 하라고 하다가 이제 자유 트랙이 나왔더라고요. 기획자 중심의 자유 트랙이 나와서 저도 그걸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사실 이 씬 안에서 활동하는 장르 특수성의 기획자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서 유통으로 가고, 유통에서 확산으로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생산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오히려 이 힘들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더 찾아보기는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요를 생각해 서 새로운 트랙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건희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주신 말씀 들어보면 다원 분야의 지속성을 위해 좀 다른 각도에서의 지원과 플랫폼의 중요함. 그리고 생산된 작품이 단순히 휘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단계.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기획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원의 신진 평론가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 같다고, 점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다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셨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지원정책이 접근해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 쪽 나눠봤는데. 나름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면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까 김미소 대표님께서도 아트앤테크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오신 이소영 피디님도 아트앤테크 쪽으로 기획과

프로듀싱을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작품의 형태, 작품이 관객을 만나는 방식, 그 안의 매체적인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 코로나 이후에 이 경향성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셨는지. 같이 호흡하는 아티스트분들한테서의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그 영향 미쳤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이 부분을 다시 지원의 문법으로 돌아가 보면 아트앤티크 쪽에서도 그런 갈등들 있죠, 그 혼란스러움이 아트앤티크 쪽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원과 융합예술이라는 단어가 많이 겹치는, 그걸 다루는 다양한 주체들의 고민이나 교집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를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다원예술 쪽이든 달라진 경향성을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 그게 또 지원 사업을 경험하시거나 참여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제 질문에 고민할 시간을 드리면서, 임인자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올린 질문이 있는데 전진모 대표님께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신촌극장의 현재 공공지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지 여부.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만약에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전진모** : 일단 신촌극장은 지금까지는 공공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받지 않는 이유는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극장을 막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극장이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일단 최소한 3년. 뭐 이런 걸 보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디셔널(additional)한. 기존에 이 극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생겼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저어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실을 약간 문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웃음) 어쨌든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검사겸사 지원 신청을 안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극장 5주년 맞이 사업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 극장에 대한 지역 문화 쪽에서 동네 극장? 극장 동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원금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극장의 지원사항은 이렇습니다.
- **김건희** : 저도 궁금했었는데 임인자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네. 코로나 관련해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김보경 피디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보경** :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웃음)
- **김건희** : 제가 이걸 여쭙보는 이유는 다원 쪽에 특히 아트앤티크, 융합예술 쪽과 다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활용하시는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융합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혼란스러움이 느껴져서. 예술과 기술로 놓고 보면 어디까지 기술로 볼 것인가. 그리고 고유의 이런 장르 특정한 작품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끼워야 되나, 실험적인 사운드가 들어야 되나. 이런 요소들이 섞이면 다원이 되거나, 다원의 분야로 봐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융합예술 혹은 기술+예술 쪽으로 봐지기도 하고. 이 두 쉰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심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도 경계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고유의 작품이 관객을 만나는 방식들이 더 많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온라인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아트앤티크 쉰에서 '이런 게 아트앤티크다, 이런 게 융합예술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볼 것 같은 그런 제안서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좀 여쭙보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보시기에 아트앤티크와 다원 분야의 차이점이 가늘게나마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그게 함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김미소** : 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아트앤티크 지원사업이 작년에 생기고 올해 두 번째 나오는 거에서, 실제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할 때도 생태계 연구를 했던 거였어서. 지금 막 흐름이 재편되는 이 과정 안에서 그림 이전에 아트앤티크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아트앤티크가 생태계에서 어떻게 구분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섹터가 어떻게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의 주체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해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여기 안에서도 융복합예술이고 이걸 다원예술이고 이걸 아트앤티크고 그런 것들을 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구분되지는 경계들이 생길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는 분명히 이뤄진 것들은 맞고요. 그리고 실제 분명히 디지털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집중해서 만들어가는 창작자가 됐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자가 됐던, 그런 씬들은 분명히 또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원예술이 그냥 이런 지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에 친화적인 작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서 좋은 작품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디지털 자본주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술시장 안에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돼서 이 씬을 바꿔버리는 문제, 현상. 저는 이런 것들이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뭘까. 그리고 우리가 기술 안에 어떻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상관관계로 연관되어 있어서. 아트앤티크 영역에서 못하는 다원예술 차원에서 인문사회학적으로 기술에 잠식되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거나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다차원적인 어떤 인문사회예술로서의 것들을 다 관통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건드리고, 기술을 활용해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런 담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 : 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융합예술 분야 사업으로 분류됐던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개편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지원 사업 안에서 장르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지금 아는 디지털아트, 융합예술, 아트앤티크 쪽으로 집중해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이 대상자였는데 되게 높은 비율로 다원 신청을 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때 그쪽의 입장에서도 다원이 더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읽혔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최근에는 아트앤티크라든지 테크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은 인상을 선명하게 주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점점 각 씬에서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또 서서히 그 형상을 만들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소영 피디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 **이소영** : 먼저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음... 재난 상황은 역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단시간에 해버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코로나 동안 일어난 것 같고. 사람들이 엄청 디지털 친화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NFT, 블록체인, 웹스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과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것보다 사실 웹스리는 지금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고, NFT는 당장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어떤 작가는 이 생각이 자기의 작업과 맞물려서 그 기술들을 이용해 작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 사업에서 다원과 아트앤티크로 나눠져 있으면 오히려 지원 사업에서 나뉘기 때문에 작업이나 누리는 선후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되게 복잡적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아트앤티크 관련된 기금이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했습니다.
- **김건희** :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보경 피디님, 신우 피디님, 전진모 대표님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신우** : 저는 분명히 다원예술과 아트앤티크에는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소위 동시대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생각하고 그런 일선의 매체들을 가져오는 작가들을 다원예술 작가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기술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 기술이 현재 우리 일상에 편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원예술 작가들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반대로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기존의 어떤 장르로 섭렵되지 않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트앤티크 작가들이 다원예술로 다시금 섞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도 '옵신 페스티벌'과 별개로 '가상 정거장'이라는 축제 아닌 축제,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도 너무 많은 예술가들이 어쨌거나 VR이든 뭐든 다루고 있다는... 저희가 그런 작가들만 모은 게 아니라 오늘날 동시대 예술작가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가상 정거장'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역시나 중요한 건 다원예술 관점에서 본다면 기금에 맞게 다시금 어떤 경향성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그 기술에 대한 사유가 있는가? 최근에는 제가 팔로우 업을 못했는데 사실 기금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신기술을 접목하고 도입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찍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예술의 영역보다 상업의 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술가들은 그런 동시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려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편향, 이것을 어떻게 예술에 또 한 번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활용성에 대한 논의로 너무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건희** : 네, 감사합니다. 신기술을 접목하고, 활발히 활용하고, 그걸 산업화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지점과 약간의 불편함을 어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신 아티스트 분께서 언급하시기도 하셨어요. 기술 자체에 대한 사유라든지, 예술가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풀어나가는 데 쓰여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형식으로 관객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더 열려있으면 좋지 않겠냐. 단순히 기술 집약적이고, 지원받은 작품이 산업적 효용성을 가져야 되고, 거국적인 의미를 좀 발현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예술가의 예술작업으로. 사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으로 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기억나서 말씀 같이 드렸어요.
- **김미소** : 그래서 아트앤티크도 그렇고 다원예술도 그렇고, 기관 자체가 어떤 아젠다나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는 여기에 중복되어 교집합이 있지만 가르마를 이렇게 탈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리고 이 가르마에서도 굉장히 열린 수용성을 갖고 있어'라는 그런 워딩들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아트앤티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산업 역군이 되기 위해서 빨리 예술가들이 따라잡아라' 첫해 때는 거의 그런 워딩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정책이 앞서있는 데서 이러는 건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내가 기술 친화적이든 기술에 대해 저항적이든 간에, '나는 아트앤티크 씬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싶고, 내가 기술을 쓰는데 불구하고 다원예술 쪽 안에 더 편입되고 싶어'라는 게 예술가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지원 사업이 이러니까 이런 작업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결실된다 나는 조금 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작업이 된다 그러면 이 트랙이 맞지 않을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그리고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20점, 30점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기준도 다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다원예술을 이렇게 보고 있고 아트앤티크를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기관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것들과. 사실 예술가들이 신규 사업이 생기면 심사 위원이 누구냐도 보지만 그 해에 어떤 작품들이 선정됐는지 '이런 팀이 됐어?' 그럼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 아트앤티크도 다원예술도 향후 지금부터 몇 년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경향성으로 읽히기가 쉬운데, 그러면 심사가 중요해지고 심사위원이 중요해지고 지원 사업을 해석하고 끌고 가려는 방향성이 문화예술위원회 안에서도 정리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김건희** : 네.
- **전진모** : 저는 역시 잘 모르지만, 다원예술가를 만나서 처음 대화에서 '주변의 어떤 작가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 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극장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다들. 그래서 소개하기가 약간 저어 돼요'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떠올랐고요. 저는 아트앤테크도 잘 모르고 지원서를 잘 안 읽어봐가지고 오늘은 다원만 관련해서 살짝 읽어보고 왔는데요. 둘 다 어쨌든 가능성을 탐지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트앤테크라고 하면 기술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탐지할까, 이게 과연 우리의 표현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을까를 계속 탐구하는 쪽으로만 생각되고. 사실 그걸 어떻게 씹어 먹고 소화해서 다른 생각과 붙여서 나의 정확한 표현 수단, 내용, 콘텐츠, 어떤 무엇으로 만드는 일? 이걸 또 결국은 다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냥 듣다가 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단에 말씀을 잠시 드린 했는데 6년 만에 복원된 이 다원예술 사업의 복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발전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지향점으로 가면 좋겠다 등등.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전히 다원예술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다원예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동시대적인 것.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정책, 행정의 문법과 현장이 가장 사각지대에서 그나마 방법을 찾은 영역이면서도 그 두 가지의 상황과 문법이 가장 잘 부딪히기도 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원 분야라고 부르는 하지만, 기획자분들이 다른 장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현 지원 제도에서 기획자 평론가 이 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지 않나. 그의 발전이 생태계의 발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믿기 때문에 이 다원 TF 라운드 테이블에 기획 분야로 선생님들 모시게 되었고. 다원예술 지원사업 복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발전해가면 좋겠다 혼수 두서도 좋고 덕담해 주셔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가나다순으로 가겠습니다. 김미소 피디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미소** : 그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원예술이라는 게 오늘 저희가 '다원예술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인데. 그냥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왜 잘 모르겠냐면 다양하니까 내지는 실험적이니까 탈장르적이니까. 저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뭐라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 그동안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로 정책들이 뭐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원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등장해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고, 실제 어떤 연대기나 흐름들이 있어왔고, 주요한 쟁점이나 이슈들이 뭐였는지. 한 정책이나 행정 현상의 기록으로서의 기록은 존재하는데,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싶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다.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기억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여서 다원예술이 모호한 만큼 이렇게 흘러왔어, 이렇게 흘러가겠지 유추할 수 있는 기록,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 빠른 이야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항하고 전복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질서들을 만드는 걸 성실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복원되는 게 맞다 생각했고. 그런 것 자체가 기존에 단절됐던 것들을 어떤 민원성에 의해 내지는 그냥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이라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건희** : 대표님 말씀 듣다가 제가 앞단에 설명을 못 드린 게 생각나서. 사무처에서 다원 향후 지원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

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마 포럼이 개최될 때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소 대표님 감사합니다. 신우 피디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신우** : 아까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복원된 건 당연히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이 사업이 어떤 한 장르 혹은 생태계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더 전개가 되고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단순히 작가들한테 작품 지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큼 생태계의 지속성, 어떤 풍성함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단순히 지원 사업을 작가들한테 몇 개 트랙으로 할 것인가, 삼천만 원 줄 것인가 오천만 원 줄 것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장된 논의가 가능해진다면 조금 더 탄탄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건희** : 신우 피디님 감사합니다. 보영 피디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보영** : 저는 일단 처음에는 어찌 됐건 이 다원예술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원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정책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 생태계를 바라봤을 때 유통단계에 저도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변화된 작품이 있는 만큼 유통도 보통의 기존 장르와는 다르게 그 유통방식마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일 수도,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본다면 생태계 유지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시선을 얻었습니다.
- **김건희** : 네. 소영 피디님. 복원의 의미나 이후 이 사업의 지향점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소영** :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원된 줄 몰랐어요. 저는 있다가 없어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에 이걸 참여하면서 그 내막을 읽어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걸 복원한다는 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뭔가 의지가 있는 건가 보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원된 사업이라면 최대한 다양성을 최대한 포용했으면 좋겠고, 답을 정해놓지 않는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다원예술이라는 장르 고착화가 아니라, 정말 더 열려있는 실험의 장과 또 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건희** : 마지막으로 전진모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진모** : 저는 다원이라는 게 오늘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더더군다나 장르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언어구나. 이걸 그냥 하나의 기초여야 되겠다. 늘 기존의 뭔가 소화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지지할까.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인 장르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조금 받아들일 여지를 만드는가.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연극에서도 지원금 쓰려고 하면 진짜 과거의 관점에서 좋은 희곡을 써야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오, 뭔가 혁신적인데?'조차도 사실은 과거의 관습 안에서 평가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아닌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기초에 의해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 평가되기보다는 사실 누군가의 진입경로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정체성 자체가 진입경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입한 다음에는 지속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동시에 진입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지원금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과정적인 것을 또는 굉장히 유통적인 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연극 가지고 레지던시를 꿈꿔본 적은 없거든요.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도. (웃음) 꼭 레지던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르는 서로 교류도 쉽지 않고 만나는 일도 어렵고 혹은 과정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한두 군데 레지던시가 아니라 다양한 처소에 레지던시들이

생기고, 거기서 밉글링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혹은 서로 다른 교류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장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예술의 경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탐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다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고 협소한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전체 예술의 어떤 첨단에 서있는. 자주 평가되고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건희** :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가장 동시대성을 잘 담는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 유동적인 정책이 구현될 때 최대한 유연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 그리고 유기적임 안에서는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다양성이 계속 유지되고. 이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고 고착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예술계에 던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했던 질문들 선생님들께서 의견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성근 주임님, 제가 진행에 있어서 마무리 공지나 안내드려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전진모** : 저 문득. (네, 대표님) 채팅창에 임인자 선생님이 던져주신 질문에 다른 데서 활동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 **김건희** : 제가 놓쳤네요. 채팅창 한번 봐주시면. 박경주 위원님, 박지선 피디님, 김장연호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셨었는데. 작년 다원예술 지원 사업 결과 선정 작품들이 너무 기술 편향적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하는 예술인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오늘 참여하신 패널분들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작년 리부트 사업 선정 결과 공고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 거죠...
- **박지선** : 작년 사업에서 기술 편향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지금 다원예술과 아트앤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 분야에서 너무나 확장되고 주요한. 지금 현재는 기술사회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사실 다원 예술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기술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아티스트로 하여금 안티 테크놀로지적이거나 아니면 로우테크 중심의 것들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감정을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현재성을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을 너무나 하나의 도구나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문사회학이나 철학적으로 사유하면서 로우테크나 안티 테크놀로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넓은 관점을 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건희** : 감사합니다, 박지선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 주실 패널분들.
- **김미소** :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모든 사회가 뭐 뉴스부터도 그러는데. 사실 기획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축제하면서 계속 메타버스 하라고 하니깐 해야 하나. 초기에는 저항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생태계를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되고. 그건 각자의 입장 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위축되는 예술가가 있다고 하면 위축됐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면서. 그래서 저는 기관의 어떤 태도, 방향, 관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것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술, 인문, 사회, 철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원 쪽에서 더 뭔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은 예술의 수월성이나 실험적인 매체를 가지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면들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보다 '어떻게 저런 인문학적인 작품이 다원예술에 들어와서 선정됐지? 이제는 저런 것도 수용되는

구나' 그런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선정되는 게 바이럴 될 수 있고, '아, 저게 되네'라는 혁신적인 사례들이 선정 안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 :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 심의 때 참여했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되는 작품들의 경향성이나 다른 유형들이 현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그때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아트앤테크 쪽과 다원의 지원작을 어떻게 다르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작품을 보고 기술 편향적이다 또는 반대급부다에 대해서 개개인의 관점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까 미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다원예술과 아트앤테크 양쪽에서 어떻게 잘 적립해서 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오늘 라운드테이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 **김장연호** :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TF 위원 김장연호라고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신촌극장의 전진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원예술에 대한 약간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다른 라운드 테이블과는 다르게 다원예술이 갖고 있는 급진성이라든가, 진보성이라든가, 앞서 나가야 되는 독창성이라든가. 사실 다원예술에서 독창적인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훨씬 트렌트가 빨리빨리 변하고, 경향이 빨리빨리 변하고, 유행을 타고. 그런 흐름들을 다원예술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신청하고 진행하는 다원예술 관련된 예술가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나 매개공간을 진행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늘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장르 하나가 발명되고 예술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지기까지 1~2년 걸리는 게 아니라 100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게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계속 전유 되어 오는 장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1940년대 댄스 필름이 발명됐다가, 그 이후에 비디오 댄스가 됐다가, 피지컬 씨어터나 새로운 동시대성을 가진 흐름들을 댄스필름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다원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많이 느껴진 라운드 테이블이었다는 생각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건희** :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 **박경주** : 마무리로 저도. (네) 다원예술 담당하고 있는 7기 문화예술위원 박경주라고 하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담당 위원을 뽑은 건 7기가 처음이에요. 전에는 기존 장르 위주로 위원이 있었고 문화 일반으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다원예술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테이블로 의견주신 거나, 이후에 8기 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의견들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게 다원예술 현장의 생태계에 더 잘 맞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기획자분들, 프로듀서분들, 축제 관련된 분들 깊게 좋은 고민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특히 신촌극장 전진모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다원예술 사업이 없어진 지난 6년간 다원예술가들이 힘들었는데 저도 주변 알음알음 신촌극장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백이었던 기간에 신촌극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개 공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다원예술 지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적어서 매개 지원 사업이나 축제 지원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23년 지원 사업부터는 확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도 노력하고 있고, 주신 의견들 저희 위원회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저는 지금은 기획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기획활동하면서 예술가들의 작업이나 과정들을 보면서 누군가

같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게 되기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원예술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숨통을 트여줬던 지원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의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멈춰있는 시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과 함께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다원예술 분야의 기획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연구라든지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 작은 액수로 그런 과정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개선됐으면 합니다. 다원예술 부분은 왜, 무엇을 질문하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귀담아듣게 되었고요. 작년에 기술 편향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이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 안타까움을 느끼는가 제 개인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다원예술이 가진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원예술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다 보니까, 저는 1차부터 꼭 참여하면서 그런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원예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 고정된 장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규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다원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일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건희** : 박지선 위원님 혹시.
- **박지선** : 아니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다 동의하고요. 제가 말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 **김건희** : 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초반에 놓쳤는데 이 의견들을 모아서 구현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체 시죠. 문화예술위원회의 두 분 소개를 못 드렸어요.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 오성근 주임님 계십니다. 이후에 다 같이 관심 갖고 다원예술 분야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보고 의견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포럼 관련해서는 다시 안내드리고 자료집 관련해서도 정리되어 가는 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5회차



▶ 사회_임인자(다원예술 TF 위원)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3일(수) 오후 1시 / 비대면 온라인(줌)
- 사회 : 임인자(다원예술 TF 위원)
- 패널 : 김소연(평론가), 남하나(불나방,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순천) 대표, 전 다원예술매개공간 디렉터), 송부영(대전 구석으로부터 디렉터)*서면참여, 오석근(사진작가, 복숭아꽃 대표), 제람(시각예술활동가, 암란의버스 저자), 허영균(1도씨 출판사 대표, 전주문화재단 웹진 '온전' 편집장)
- 다원예술 TF위원 : 김장연호, 박경주, 박지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총괄부 정준화, 오성근

• **임인자**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인자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정도 변방연극제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²³⁾에서 민간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은 다원예술 TF에서 다양한 현장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담론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창작, 기획, 매개, 평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술가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을 시작으로 총 5번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고, 4월 말에는 포럼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5차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지금 녹화와 녹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자료집으로 기록해서 계속 이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든 다음에는 폐기될 예정입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금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성함과 그리고 하고 계신 활동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주최하고 있는 다원예술 분야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입니다. 박경주 위원님부터 인사하겠습니다.

• **박경주** :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이고 다원예술 분야 위원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다원예술 분야를 별도로 뽑게 됐는데 제가 무거운 짐을 떠안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기를 시작했고요. 6년 만에 복원되는 사업인데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저희 사과문 나간 내용에 약속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늦게나마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올해는 이미 공모가 나갔으니까 23년 공모에 최대한

23) 이하 '문화예술위원회'로 통일.

잘 반영돼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 다원예술 현장 생태계에 잘 맞는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장연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장연호** : 네, 안녕하세요. 올해 다원예술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장연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인데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나 이런 피해를 입은 예술인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잘 경청해서 2023년도 정책이나 앞으로 다원예술 분야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경청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인자** : 다음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도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준화** : 안녕하세요 지원총괄부 정준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네. 그리고 이 사업을 맡아서 올해부터 다원예술 분야의 사업 담당을 하고 계신 오성근 주임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 **오성근** : 안녕하세요 지원총괄부 오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르코 참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패널로 참여해 주신 예술가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순으로 인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김소연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소연** :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이고요. 저는 연극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은 제가 1기 다원예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남하나님 부탁드립니다.
- **남하나**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프린지 네트워크에 소속돼서 축제를 만들고 있고. 별도로 시각 작업과, 작업자로서 창작자로서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남하나이자 별칭으로는 불나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혜강님 부탁드립니다.
- **박혜강** : 안녕하세요. 김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경주 선생님도 오랜만이에요. 저는 전남 순천에 있고요 '예술공간 돈키호테' 디렉터를 맡고 있고, 또 공동대표로 이명훈 씨와 함께 운영을 맡고 있고요. 한 10년 넘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공간 돈키호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망설였고요. 역시나. 그런데 사회를 맡고 계신 임인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사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조금 두렵습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다음은 오석근님 부탁드립니다.
- **오석근**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석근이고요. 시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문화자치 개념 아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 경험들이 오늘 포럼 자리에서 좀 좋은 예시가 되거나 약간의 영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인자 선생님이 많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험했던 부분들은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 **임인자** : 반갑습니다. (오석근 :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제람님 부탁드립니다.
- **제람** : 안녕하세요. 저는 제람이라는 활동명으로 여러 작업하고 있는 강영훈입니다. 활동명 제람이 제주사람이라는 뜻 이거든요. 제주를 기반으로 하면서 또 서울, 수도권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오가며 다양한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 생님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부지런히 다원예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누자 청해주셔서 저도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참석했 습니다. 반갑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균님 부탁드립니다.
- **허영균** :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1도씨'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편집장으로서 전주문 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온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더아프로'를 맡고 있습니다. 다원예술에 대해서 제가 창작자로서의 경험이 없게나마 있기는 해요. 타 창작자들하고 작업에 협업한 바도 있고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분야 지 원 사업을 받아서 두 번 정도 작업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창작보다는 어떤 메신저로서 이야기를 만들고 조달하고 정 리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잘 기억했다가 저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 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전 '구석으로부터' 송두영 디렉터님도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대전에서 지원 사업 인터뷰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서면으로 참여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채팅 창에 서면으로 보내주신 글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 다 원예술 분야 TF가 만들어진 건 아마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어떤 새 로운 활동들, 뭔가 독립적인 활동들, 이런 활동들에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시작하면서 다원예술의 어떤 형식들이 지원 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이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폐 지되었습니다. 이런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예술위원 회에서는 뭔가 지원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현장과 예술가들과 충 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 형식의 동료 평가를 진행하면서 어떤 차별 발언들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걸 러지지 않은 채로 예술가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또 한 번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일 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술위원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다원예술 TF를 운영하면서 다원예 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로 TF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안에서 다원예술 TF가 지금 운영되 고 있고, TF 위원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차에 걸쳐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예술가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이런 매개 활동도 해오셨고요. 그리고 다 원예술이 초기에 생겼을 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과 단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술 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라운드 전체의 공통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다원예술의 현재성, 그리고 복원의 의미, 그리고 다원예술 의 지원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원예 술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ㄱㄴ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 어요. 혹시 어떤 작가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을지.
- **박혜강** : 첫 질문이 어떤 건가요? 여기 나눠주신 것에서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임인자** : 예, 맞습니다.
- **박해강** :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런데.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TF를 구성하고 5차에 걸쳐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수렴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어떤 보완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질문이 조금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받았습시다.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존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를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 현장에서 들을 단계는 아닌 거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앞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먼저. 어쨌든 순서대로 질문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에 대한 시각과 정의에 대한 게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죠? 저는 다원예술은 일단 정책에서 출발한 정책 용어이고요.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런데 다원예술이 처음 지원 제도에서 출발할 때에 불안정성이 있었어요. 다원예술을 굉장히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뒀기 때문에 다원예술은 여전히 현장이든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운영주체든 혼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지금 오늘의 어떤 목적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착을 했어야 됐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없어져 버린 것을 초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불안정성이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줬다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원 제도의 현상이 여전히 대안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제도가 늘 현장에서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다원예술에 대한 기대치를 현장에서 줬는지, 현장이 가지고 있는지일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원 제도로서의 다원예술 용어를 이 활용 주체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굉장히 잘 착중시켰다는 거죠. 접합을 시켜서 다원예술을 잘 활용했죠. 저는 여기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원예술을 영어권에서의 용어인 Inter Art, Inter-disciplinary Art, Multy disciplinary Art 이런 식의 용어들로 변환시키면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기존 장르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예술로서의 가능성, 미래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치를 갖게 됐죠. 다원예술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잘 활용한 주체들은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적절한 수혜들도 계속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그렇게 활용한 주체들은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담을 다른 용어가 발견됐을 때 그것으로 옮겨 가면서 다원예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그 기대치는 파급을 줬지만 사실은 이걸 현장의 욕망이기 때문에. 다원예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거기에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 제도로 출발한 용어지만 역시 다원예술이 기능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치를 현장이나 제도에 줬다는 부분.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한 번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다원예술이 예를 들어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 중에 기존 장르 예술의 편협함, 수용 불수용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기존 장르 예술 영역에서 다원예술이 잘 안착한 사례가 있어요. 시각예술이죠. 시각예술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접 분야들을 굉장히 잘 끌어들이면서 발전해 왔고 담론 생산들이나 이론 생산들로 굉장히 많이 확장해왔거든요. 역시나 다원예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현²⁴)에서 하고 있는 다원예술 기획프로그램을 보면 몇 년 전까지는 영어의 용어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예술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다원예술 영어 용어가 Performing Art입니다. 전형적으로 시각예술이 결합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공연예술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원예술을 기관이든 현장이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과해서 또 다른 것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그 사이에 저희 다원예술 TF에서 활동하시는 박지선 위원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있을까요?
- **박지선** : 제가 지금 좀 시끄러운 데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입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 **김소연** : 박혜강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받아서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박혜강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기, 2기 다원소위 활동이 생각나네요. 문화예술위원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고 나서 지금은 장르위원회가 다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장르위원회가 있었어요. 연극, 무용, 시각 이런 식으로. 장르위원회의 한 분과로 다원예술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당시 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소위 위원들 안에서도 딱 떨어진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포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예술가들이 말하는 것들도 조금씩 다른 결이 있었어요. 박혜강 선생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가 좀 남는데. 하나는 다원예술이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정의라기보다는 다원예술이 자기의 범주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어떤 정책적으로도 뭔가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해한 걸로 다시 고칠게요, 혹시 좀 다른 거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어떤 범주가 생기면서 이 범주를 창작활동에서 유용하게 잘. 어떤 정책 제도를 잘 활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다원예술로 남지 않고 아티스트들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 다원예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것, 다른 범주로 활동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기 소위원회 때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박혜강 선생님 말씀처럼 당시 소위원들이 합의했던 건 '정의 내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 다원예술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집합시켜 놓는 그런 방식에 합의했던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안정성이 계속 생기고 그것이 이후 문화정책의 어떤 변화, 출렁거림들, 심지어 블랙리스트라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 불안정성이 그대로 이 영역이 축소되고 협소화되는. 내지는 변질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진단이신데요. 그 진단에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때도 계속 이게 장르냐 아니면 지원정책의 범주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제 입장은 다원예술이 장르로 정의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예술 현상보다는 저는 정책적 범주로 다원예술을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를 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수십 년 된 고착된 장르 구조를 가지고 지원정책이 수립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예술도 변화하는데 지원정책은 굉장히 답보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구축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르에 대한 반대였던 건 뭐냐면, 왜냐면 이게 장르화되면 똑같이 이게 연극이야 무용이야 다원이야 아니야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논의들. 그리고 장르 예술을 지원하는 그 방식으로 지원 제도가 고착화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포괄적인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정의하지 않고 끝없이 덧붙여 놓는 그런 방식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장르에 대해 반대했고 그런 입장이

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벌써 20년 된 이야기인 거예요. 2005년에 1기 소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는 논의이거든요? 사실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술계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제가 1기 소위에 참여했을 때 그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전히 예술 지원이라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현장과 현실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어떤 역동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꼭 다원예술이라는 말로 붙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원예술 리부트'라는 슬로건이 약간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원예술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이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라는 게 주로 복원이예요. 블랙리스트 실행 이전으로 되돌리는.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걸 다시 복원한다. 이런 방식의 대응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블랙리스트가 본격화되는 건 예술위에 2013년, 20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되면 거의 자동 시스템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벌써 7-8년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10년 동안 예술계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해서 뭔가 왜곡되어 있는 어떤 정책을 다시 재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7-8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이 변화했고, 무엇이 훼손됐고, 무엇이 왜곡됐는지를 살피면서 새로운 대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문화예술위원회는 반성하면서 블랙리스트로 폐지됐던 이 사업을 복원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만이 아니라 문체부도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물론 '다원예술 리부트'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들도 있었고 그동안 다원예술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TF 통해서 여러 논의들은 있었는데. 제 입장으로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이전에 다원예술 분야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어느 순간 '다원예술 생태계'라는 말이 생겨있더라고. 다원예술이 장르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런 현상이라면 이 양자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면서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범주를 담당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인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불나방님께 의견 좀 여쭙고 싶을까요.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 처음에 다원예술이 시작될 때부터 폐지되고, 이후 지금까지 축제가 계속 이뤄지면서 이런 정책들을 경험해 오셨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 **남하나:** 앞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일부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라든지 동의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전의 세대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원예술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에 참여도나 기여도나 고민의 지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가시면서 그동안에 축제와도 되게 많이 연결돼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는 독립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표방해서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원적 성격의 어떤 작품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 작품들이 또 장르를 떠나서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에서도 각자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서는 이것을 다원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거나 독립이라는 말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창작자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모든 것을 이해 아니면 수용. 약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독립예술과 다원예술도 구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다원예술을 정의도 해보려고 했고 이해도 하려고 했었고. 또 삭제되는 순간에서도 어떤 예술 활동들이 지속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뭔가 정의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질문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질문일까'라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어질 것이라는 방향이 너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다원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을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또 이해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허영균 디렉터님께 부탁드립니다.
- **허영균** : 저도 선생님들 해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김소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다원예술이 장르화되는 것에 조금 저어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다원예술 또한 특정한 장르에 갇히지 않고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다시금 정의함으로써 어떤 틀에 갇히게 되고 우리들한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 자체를 정의하는 게 항상 임시적이어서 늘 동시대적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계속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동하는 이 개념들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냐'라는 질문 혹은 답변은 항상 좀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었던 다원예술이라는 어떤 것은 창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고 싶었을 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었더라면 지원 사업 내에서 창작 활동이나 실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연극, 무용, 시각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다원예술이라는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던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시도들이 낄 자리를 마련해 둔다. 그것을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향후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 가지 저어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예술 지원정책이 훌륭한 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지원 제도들이 고착화되면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작가는 작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 작은 지원 사업에서 큰 지원 사업으로, 작은 지원 혹은 작은 실현 기관에서 더 큰 네임 밸류의 어떤 시현 기관으로 가면서 장르 내에서 예술가들의 에스컬레이터식 성장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다원예술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더 큰 지원단이 더 큰 예술 활동으로 뭔가 성장시키거나 확장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관 내에서 정의되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면. 원래의 다원예술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에 요청한 그런 가치들과 연결이 되느냐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단어들이 항상 너무 적다 생각하는데. '가장 동시대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실험적인'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외에는 공급받기 쉽고 의심받기 쉬운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주셨던 질문이 저한테 좀 어려웠고. 사실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안에서의 의견을 소급하는 거 같아서 생각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어렵기는 했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드립니다. 제람님과 오석근님 중에 혹시.
- **오석근** :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도 제 활동을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다원예술이란 건 지원 사업 내에서만 존재했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드는 생각들은 다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현재 장르 중심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 아니면 프로젝트들 아니면 예술가의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원이라는 용어로 치환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정의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말이 있었지만, 저는 다원이라는 이름을 차라리 버리고 그 장르 안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예술 활동을 포함하는 지원 사업들이 계속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정의하면 늦어지고 사업이 고착되면 배제된 분들이 생기는 것들은 항상 봐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모든 예술 활동은 장르 외의 것들이 포함되는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진화 가능한 형태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현장성이, 동시대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 설계하고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

지 않느냐는 생각들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사업들이 무효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은 널 데가 없고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물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갈 때 그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존재하느냐 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현장 이야기 많이 듣지만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저희가 인천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치라는 개념으로서 현장에 있는 니즈들이나 상황들을 바로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예술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놔고.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 사업의 틀이 활동을 깎아내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들로 시도했을 때 예술가들의 창작이 기존의 다원을 넘어서는 활동도 목격할 수 있었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형태의 활동들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원이라는 용어를 현장에 맞게 좀 버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장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것들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대표이사가 바뀔 때 분명히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진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제람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람** : 네, 그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 말씀 들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제가 조금 다른 점은 지금 당장 다원예술 분야에서 준비된 좋은 프로그램과 그 공모에 선정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초기 단계의 작업자라는 점이 조금은 다른 관점을 공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다른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계에서 장르에 대한 공고한 벽들도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마치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라든지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충분히 온전히 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최근까지 영미권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왔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물론 느슨한 형태의 장르 간 경계는 있었지만 이것도 가능해,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게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처음으로 2020년에 공모를 넣을 때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승산이 있는 게 시각예술이라 저는 거기에 넣었거든요. 시각예술이라는 장르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작업을 해봤는데 그 작업을 모니터링하러 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쪽 훑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조언 주시더라고요. "내년부터 다원예술에 넣어보세요.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기에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다원예술로 쪽 작업하면서 기금을 받고 있고요. 저는 실은 최근부터 작업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것들도 한국 현장에서 정말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선배님들과는 다른 감각일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애씀과 치열한 투쟁과 또 논의들의 결과로서 지금 다시 소위 복원된 다원예술의 지점에서 저는 수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느꼈던 다원예술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면에서 약간 숨통 트이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온전하게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시각예술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럼 어떤 분야에서 너의 작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니?' 했을 때 '다원예술 하고 있다'. 그것의 정의들도 지금 딱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저는 참 반갑고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길게는 20년 이상 논의해서 해오면서 하셨기 때문에 첫 질문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가 어떤 분들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운드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TF를 하면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단절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조바심이나, 또 라운드 테이블 5회를 다 참여했었는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막 걱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현재 속에서도 '다원예술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하는 부분을 뭔가 어떤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TF에서 딱 답을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TF 안에서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절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기조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부영 디렉터님께서도 서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서면 보내주신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다원예술분야 라운드테이블 온라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글로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부영입니다. 말보다 글을 어려워하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오니 말로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날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장르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늘 '다원예술'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잠시 머뭇거리며 다원예술에 대하여 알 듯, 말 듯 한 표정을 지으며 부가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제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일 테고, 이차적으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다원예술이 무궁무진하기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다원예술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원예술을 '경계와 구분 없이 창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다원예술의 해석 중에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동안 활동에도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중요시 여기며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예술, 상호작용하는 예술을 추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원예술사업의 복원된 것은 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 저 또한 참여했습니다. 1차에서 낙선 되었지만 저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활동의 근간은 무엇인지 접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고 지금의 라운드테이블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쉽지만, 이 또한 다원예술의 담론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2021년 다원예술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오류가 행정상의 문제만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 참여한 (저를 포함하여) 예술가들도 뒤돌아 보고

성찰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가야할 방향으로는 2021년 다원예술 심사 제도처럼 지속적으로 다원예술 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류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오류가 다원예술의 원천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가치의 실현의 면에서 다원예술은 '다양성과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는 끝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시도를 제도와 담론 등이 발맞추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해석되고 담론으로 형성되기 전의 상태를 풀어 낼 수 있는 그릇이 다원예술지원사업이 되어 그 어떤 시도도 버려지지 않게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라운드테이블 개별질문에 지역에서의 다원예술의 의미?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의 접수 현황을 보면 수도권 75.2%(221건) 비수도권 24.8%(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이제 새롭지도 않지만, 그래도 막상 수치로 확인을 하고 나면 딱딱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시행되는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에 다원예술 분야의 비중은 작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다원예술분야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술일반과 다원예술 두 분야를 묶어서 하나의 심사그룹이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전에서 다원예술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서는 다원예술의 담론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시도 또한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단과 예술가들이 다원예술에 대한 담론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지역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에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담론에서도 지역성이 무엇인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고민과 지역내에서 이슈화되는 문제와 가치는 무엇인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다원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의 이슈를 장르의 구분 없이 예술가들이 접근하고 함께 담론을 형성하며 창작을 한다면 그 바탕은 다원예술일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좀 더 논의되고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태계에는 깃대종('깃대'라는 단어는 해당 지역 생태계 회복의 개척자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예술 생태계에서 깃대종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다원예술장르를 예술 생태계에 깃대종으로 인식합니다. 예술의 다양성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는지를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술생태계에서 다원예술이 보존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열어보시면요. 송부영님께서서는 활동하면서 ‘당신의 장르가 무엇인가’ 질문에 다원예술이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머뭇거리거나 좀 부과적인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예술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원예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원예술은 경계와 구분 없이 창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구석으로부터’는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오고 계시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시나 공연 이런 활동들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박혜강 디렉터님은 2008년이죠. 다원예술 매개공간을 운영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담론을 만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다원예술 매개공간 역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되었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떤 매개 지원 사업이 있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성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술융복합 지원 사업이 쪽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 **박혜강** : 흥대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없애기는 했는데 그 이후는 지역에서 했죠. 저는 사실 서울이 약간 그런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없어졌지만 지역에서는 다원예술 매개공간 사업이 있었고 향후 몇 년간 진행됐습니다. 광주 ‘미나리’나 또 몇 군데가 있었죠. 오늘 모이신 패널분들이 수도권이 아닌 그 외의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서울과 지방과의 시간적 편차와 그다음에 이따 제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와 연관돼서 다원예술 지원정책이 사라졌지만 지역문화재단에서의 상황은 좀 달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역문화재단이 다원예술을 어떻게 유지시켰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또 이후예요. 그럼 이걸 지역에서의 다원예술 지원 제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에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시차, 그다음에 오히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현안들은 사실 오히려 중앙보다도 더 깊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 **임인자** : 혹시 어떤 부분들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혜강** : 이를테면 제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도의 약간 부실함. 행정제도가 제대로 뭔가를 준비해놓고 있지 않은 행정제도의 불비함.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없애버린 것과 연관을 계속 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역은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찬가지로 지자체 단위인 서울문화재단도 남아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이 다원예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앙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존속하고 있다가 다원예술 지원 제도를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원예술을 행정이 자신 없어하고 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오늘 TF에서 보내오신 질문들은 행정이 미리 했어야 되는 질문이죠. 지원 기관이. 이걸 현장에 지금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행정이 이미 이것을 수렴했어야 하고 그것을 지원 제도 정책의 개선에 반영했어야 해요. 여기 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자도 와 계신데 전체적으로 그 담당자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기관은 엄밀하게 그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걸 수렴한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행정이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이 부족하나마 계속 반영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들은 이야기

가 있는데, 가깝게 광주문화재단에서 다원예술 쪽 공모를 하고 심의에 참여하신 분이 이후에 토로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다원예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다원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일테면 전문성과 비전문성에서 이걸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장르 예술을 전문성으로 두고 그것이 먼저 선취한 것들이 있고 그것에 빠져있는 것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지금 다른 분들은 오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현장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지원에서 수렴할 수 없는데 다원예술이 그러한 역할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원예술의 지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장이 자꾸 그런 공색한 말을 만들어내게 계속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글썄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원예술의 개선점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그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원예술 지원 카테고리가 별도로 나와있는 것도 있지만 일테면 다른 지원 카테고리에도 다원예술이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원예술과 이 다원예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좀 궁금해서 봤어요. 최근에 어떤 곳에서 다원예술 카테고리를 집어넣고 있는지. 보니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혹시 아시나요? 예전 신진예술가 지원이 거기서 온 것 같은데. 39세 이하의 신진예술가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원예술은 뭐냐면 비약적인 예술의 성취예요. 비약적인 예술의 성취를 거기서는 다원예술에 지원하는 쪽으로 카테고리를 넣어서 공모에 지원하는. 현장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나와있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걸 다 수용하겠다. 그런데 행정은 자신 없다. 왜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없고. 다원예술을 같이 쓰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권의 재단은 전남문화재단인데요.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없어졌지만 몇 년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에서 이 다원예술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길을 잃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공연예술에 지원하려고 들어가면 심의 분야에 다원예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카테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획을 하고 있고 하니까. '자신 없으면 다원예술에 지원해 봐'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계속 지원서를 작성해 오고 있고 저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예술공간 돈키호테' 이름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다원예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을 행정 지원정책으로서 취급하고, 다루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다를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자신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때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정말 제도 개선으로 가는 것을 저희나 현장은 맞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이런 이야기 이전에 일테면 다원예술 지원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또 행정도 자신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다년간의 지원정책 존폐는 현장의 수렴과 그다음에 행정의 충분한 설명 그런 것들이 동반해서 현장과 합의를 이뤄 그 존폐를 결정한다는 정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두 번째 질문인 복원의 의미가 이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TF도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고. 뭐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었어요. 저는 약간 불안하거든요. 제가 다원예술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관장이든 위 단계에서 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법적으로 절대 그러지 못하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라 하느님이 바꾸자고 해도 못 바꾼다 하는 어떠한 것을 마련해놓고 나서 복원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불비함, 행정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현장에 너무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껴져요.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혹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원예술 지원 제도 부분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관련 해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소연** : 박혜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불안정 이것도 약간 저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 속에서 다원예술 분야가 폐지됐다. 박혜강 선생님은 그 폐지된 사업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외적인 어떤 정권이라든가 권력자가 지원의 범주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논의. 그렇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08년에 실험성 증진을 위한 예술 지원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빼고 지원사업 이름이 바뀌어요. 당시 발 없는 말처럼 돌던 소문이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²⁵⁾ 내지는 정권이 다원예술이란 말을 너무 싫어해서, 하지만 어쨌건 몇 년 동안 했는데 없앨 수 없어서 다원예술이란 말을 안 쓰면서도 이 분야를 남기기 위해 정말 머리를 짜내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까 박혜강 선생님은 너무 집합적이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그 당시 집합적인 양태. 이거저거, 복합예술, 융합예술, 사회적 예술, 그러면서도 새로운 예술. 이렇게 짝 붙여 놔던 게 사실은 현장이 어떤 행정 속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 바뀌고 문체부 바뀌고 그러면 갑자기 사업 목적이나 목표가 획 바뀌어 버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리스트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걸러냈느냐 안 냈느냐, 리스트란 증거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8년에 실험성 증진 예술 지원으로 바꿀 때부터 현장이 왜 이런 다원예술이란 분야를 요구하고, 다 합의는 안 되더라도 어쨌건 합의하면서 만들어갔던 것들이 파괴되는 양상이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걸 다원예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 제도가 비평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정책은 활동의 주체들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다원예술 생태계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가 다 안 되지만, 되게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활동을 놓고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까지만 다원예술이야' 이렇게 하면 계속 그걸 뭐라고 정의하든 간에 '이게 다원예술이냐, 아니냐' 이 판정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박혜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포괄성이 계속해서 어떤 역동성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현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이냐. 이게 다원예술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 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 지원정책에서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뭔가를 정리하기보다는 계속 열어두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활동에 근거한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내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과 다원예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쨌건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소위가 있었고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걸 만들면서. 지역재단들이 각자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다 써요. 그런데 가보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대중문화도 아닌 지역연예인협회를 지원 대상으로 넣기 위해 다원예술 분야를 만들어서 1건은 연예인협회에 주고 1건은 예총이나 민예총 전체 사업, 그러니까 여러 장르가 모여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안에서도 국회 의원들이 넣는 쪽지 예산들. 그래서 마술대회, 마술페스티벌 이런 게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으로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의 역동성이 한편으로는 편의적인 어떤 수단이 되어 있기도 해요. 박혜강 선생님 말씀처럼 마치 위계화된 것처럼. '그래, 너네는 신진이고 아직 어설피니까 다원에 있고. 너네가 조금 더 세련되어지면 연극으로 가고, 시각으로 가고' 솔직히 이런 시선이 존재하죠. 또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서 다원예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그러한 경계없음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죠.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제화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다원예술 심의를 가요.

25) 이하 '문체부'로 통일.

저는 다원예술이나, 아니냐보다는 다른 가치들이 결합되는 걸 더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아주 좁은 다원예술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이 작품은 다원예술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다원예술이야. 연극 아니야?” 그런 장르적 접근을 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갑자기 온갖 이야기를 쏟아낸 셈이 됐는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해가느냐가 곧바로 지역재단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어쨌건 사업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다원예술이 편의적으로 없어지고 편의적으로 온갖 쪽지 예산들을 쓸어 담는 통처럼 쓰여지고. 저는 지역에서도 행정 편의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이 목격해서. 당장 여기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제도를 디자인할 때 그런 문제들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오석근 작가님 혹시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석근** :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크게 덧붙일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아르코²⁶⁾에서 지역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지역의 생태계를 고민 안 하고 뿌리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인천문화재단 보니까 융합예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원예술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도 아르코에서 나왔던 사업들이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예술가 입장에서. 지역의 상황들을 반영 안 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술창작 이 제도에 의해서 조각된다는 말이 좀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원예술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까 김소연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다원 범주 안에서 장르와 장르가 잘 융합돼야 하고, 다원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야 한다는 편견들, 그리고 이건 다원이다 아니다라는 담론들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 만들 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사업들이 설계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재단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창작자 중심으로 자기 예술 활동을 설계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원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자기 생애나 자기 창작 활동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인천형 예술 지원 사업도 생겼고, 특화거리 사업이라고 이상한 사업도 있었지만 그것도 적극 제안해서 바뀌어요. 창작공간들을 자기들이 찾을 수 있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활동도 장르 중심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실험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양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박혜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고.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현장에 좋은 의도를 많이 담았지만 그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오해되고,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들도 고이면 썩는다고 보거든요. 현장을 못 받아들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요청해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를 요청하고,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같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매년 그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현장 이야기 듣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생긴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는 청년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다음에 여성 경력단절, 여성 작가분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바로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르코도 마찬가지로 열어줬느냐. 실질적으로 열어두는 척하는 것과 열어놓고 진짜 참여하면서 자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 듣고서 마지막에는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책임자들은 자기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거든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우린 다 이야기 다 들었기 때문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아르코' 유지.

에 이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 거 같아라고 결정하면서 그것들로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모든 의사결정이나 지원 사업의 설계들도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혜강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형태들을. 사업을 만들고 설계할 때 어떤 기획위원을 두든지 운영위원을 두든지, 그다음에 그것들이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순환보직제가 엄청 싫지만 순환보직제가 진행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것들의 역사나 가치를 전달하고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가들 개인의 의지, 그런 것들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던 현실이 저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바뀌고 또 설득해야 되고, 재단만이 아니라 시까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쌓아온 역사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시 0이 되잖아요. 80까지 올렸다가 다시 0이 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럼 사업은 또 변경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슬프죠.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구축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4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임인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3년에 만들어진 진흥원에서 어떤 예술가들의 참여로 인한 민주적인 참여라는 기치로 위원회라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위원회라는 구조 자체가 예술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인데, 지금 20여 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아르코의 전체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혀 민주적인 참여가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현장까지 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라는 것이 어떤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제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허영균 디렉터님이나. 네, 김소연 선생님?
- **김소연** :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짧게 빨리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참여의 독립적인 구조 조직이 아니라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 복원만 됐지 문화예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화예술위원회 조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때 리스트로 걸러내는 작업을 사무처와 위원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랑. 물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몇 명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석근 선생님과 박혜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2기 예술위가 생기면서 장르 위원회를 폐지했거든요. 장르 소위원회를 다 폐지하면서 다원예술 소위원회도 없어졌어요. 폐지한 이유 있어요. 위원들이 장르 이기주의에 매몰된다, 위원들이 자기 장르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비판들을 했어요. 그런 부정적 현상이 있죠. 하지만 현장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예술활동이 장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장르 소위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원예술 특정 장르로 보든, 예술 현장의 역동성을 보완하는 어떤 지원의 범주로 보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제도에 안착시키려면. 지금처럼 정책 소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다원예술이야말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를 점검하는 소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원예술에 대해 어떤 입장이든 이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나 그것이 충족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위원회 전반의 구조를 다 바꾸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원예술 지원,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의 복원이라고 한다면 현장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하고. 그런 변화하는 예술 현장을 지원 제도에 기입하기

위해서라도 다원예술 위원 1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있어서 최소 7~8명이라도 모여 끊임없이 제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듣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인자**: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더해주시실 수 있을까요? 말씀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혹시 허영균 디렉터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허영균**: 사실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다양한 작업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원예술을 표방한 작업을 보러 가고, 그러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원예술이 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원예술은 상당히 많은 예술 장르들의 합집합처럼 느껴지는데, 다원예술가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모여진 교집합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되게 재밌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예술 표현에 있어서 어떤 도구나 장치, 방법으로 서의 다원성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의 다원적인 성질? 다원의 성질을 언어 그 자체에 정의를 뒤야 될지, 멀티플한 무언가로 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 2가지를 모두 고르게 반영하고 고려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만, 현장과의 합의와 소통의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심사를 참여하든 마찬가지로 제가 다원예술 장르 심사를 받았을 때 지원서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길 요청받았던 것, 그리고 심사 중에도 많이 판단되었던 게 실험성이라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험은 원래 되게 많은 가설을 필요로 하고 되게 많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굉장히 느리고 초라하고 비루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정 안에서 얼마나 봐주고 열어둘 것인가. 물론 현장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빠르게 바뀌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험하고. 사실 실험보다는 실천하고. 거기서 가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우리의 많은 감수성들, 정서,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체성 같은 판단들이 너무 빨리 바뀌고 빨리 교체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여유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노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인자**: 네, 감사합니다. 남하나 선생님 혹은 제람 작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하나**: 저도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어떤 방향성이나 고민 지점들은 다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영균 님처럼 어떤 현장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이게 지원 제도 정책으로 간다면 법제화가 될 수도 있고 정책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 같은 어떤 형태가 또 하나 구성되는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질문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작년 리부트 이후로 심의 제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동료평가제를 갔을 때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원에 대한 이해도? 그때도 포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걸 과연 누가 심사할 것이냐.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 안에서 다원예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과연 괜찮나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동료평가제를 했을 때 과연 현장에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신선함으로 다가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고, 어떻게 보면 동료가 동료를 검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그냥 어떤 지원 제도, 현황, 문제점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폭넓은 이해가 되게 필요한 다원예술이라는 어떤 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 그래서 동료 평가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현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수집이 잘되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 그대로 실험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 비전문가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면 장르의 어느 한 분파에서

퍼져나가는 다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금 더 확실히 이야기도 해보고.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런 건 다원이야, 다원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이 회자될 필요성에 대해선 강하게 들면서. 이렇게 조금 더 정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 제도가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걸 번외 이야기지만 해봤고요. 저는 조금 더 포용성 있거나,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장에서 회자되기를 바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축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게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미비할 수 있지만 향후를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도적으로 또 규정화하고 프레임화하는 건 저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저희 말고 진짜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책적으로 흘러가는 거 말고 다원이라는 걸 궁금해하는 처음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제람 작가님도 부탁드립니다.
- **제람** : 네, 워낙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가지고. 그냥 제가 서 있는 이 시점, 위치에서 입장에서 덧붙일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남하나 선생님 말씀 연결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박혜강 선생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다원예술 부문 선정자가 사실 저거든요. 그래서 조금 첨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꽤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자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몇 해 전이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특성상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소위 장르화시키고 있긴 있지만 다원예술 안에서 어떤 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들을 통해 1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기 스스로 리서치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반기에 작업이든 뭐든 특히 다원예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들로 제공하는데. 지난 몇 년간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실제 선정자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서, 그것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라질 정도로.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지언정 담당자가 헛갈릴 정도로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은 최소한 저는 창작 아카데미에서 느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되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후에도 제가 마쳐봐야 알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여타 다른 문화재단 같은 데서 다원예술 부분으로 지원할 때 꼭 첫 번째 항목의 질문이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다원예술이 뭐냐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할 텐데요. 사실 그게 크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시각예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장르에 관한 질문들, 다양성에 대한 질문들을 듣는다면 어쩌면 쉬울 수 있지만 상당히 묘해요. 최근에 그런 거 아셨어요? 저를 포함한 신진 작업자들이 이런 기금을 딸 수 있게끔 돈 주고 과외 받거든요. 그럴듯하게 써줘요. 저는 물론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산업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럴듯한 정해진 답들을 양산하는 그런 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허영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원예술에 대한 생각과 논의들이 막 영글지 않고 무언가 약간 부실해 보일 수 있고 하지만, 또 각각의 지향점에 따라 가치를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잘 반영될 수 있겠다는 그런. 소위 우리 생태계 내에서의 약간의 신뢰들이 축적된다면 저는 장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 분야가 조금 더 원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또 창작자들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원 사업이 과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뭔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원예술 지원 제도의 현황과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지역에서의 다원예술 의미이기도 한데. 서울도 지역이라는 관점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서울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아까 박혜강 선생님도 지역의 맥락들도 살짝 이야기해 주시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 동료 평가 리포트에서 많이 마음이 쓰였던 것 중의 하나가 '지원 사업에 차별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이유로 동료 평가에서 탈락되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다원예술이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끝에 서있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넘어서 정말 끝에 압사 당하고 어떤 작은 소수의 목소리들을 가치있게 여기는 게 다원예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제도 안에서 잘 담보되고 있나 하는 건 조금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여쭙고 싶습니다.

- **박혜강** : 저한테 혹시 이야기하신 건.
- **임인자** : 네. 패널분들.
- **박혜강** : 아까 지역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하셔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야 되나요?
- **임인자** : 예, 시간에 쫓기게 돼서, 죄송스럽게요.
- **박혜강** :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이라는 말보다 지방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은 비교 지점에 같은 기준점에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원예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담론들이 만들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액티브한 수도권과 지역에서의 다원예술을 같은 비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가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테면 행정 운영 기관의 제도 개선의 준비라든지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장은 이 지원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김소연 선생님이 더 많은 지방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상하죠. 여기서는 다원예술의 문맥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해요. 제도에서 출발한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현재의 정체성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런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통과하는 현장은 역시 혼란스러운. 뭐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내지는 압득이 갈 만하게 수렴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겪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다원예술을 행정이 뭔가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뿐더러. 왜냐하면 지역 자체 내에서도 신진예술가, 청년예술가 지원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테면 다원예술을 굳이 지역에서 운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기관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숨겨놓기 식? 공연예술 분야의 심의 카테고리에 다원예술 심의로 넣어놓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앞 이야기와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만 마침 사회자님이 같이 묶으셨으니까 이야기 드리자면. 다원예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다원예술이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서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소수자. 질문에도 나오는데요. 소수 사회적 예술이나 소수 예술에서 다원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른 질문의 몇 가지와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원예술이 뭔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테면 제도가 개선돼서 다원예술 지원 제도 이것이 펼쳐는 단면, 허영균 선생님이 창구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다른 지원 제도의 수혜자들이 봤을 때 관찮은 거예요. 그런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지원 제도로써 다원예술을 봤을 때 다른 영역에서도 압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까 김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들이 오히려 역동성을 추진하지 않느냐, 역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건. 다른 장르 예술, 다른 지원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예술들은 소수자 이야기를 안 하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성, 다원성. 주제를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럼 왜 다원예술에서 이것들을. 저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몇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다른 지원 제도와 다른 것을 내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원 제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아까 허영균 선생님이 말하는 그야말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고민?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원예술이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이런 거죠. 작년 동료평가제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이것을 한 번 해봅시다, 굉장히 진보적이다 내지는 참여 민주적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원 제도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든 어찌든 간에 다년간 수행됐던 제도가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무엇인가가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용인해 버리면, 그리고 제도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버리면. 그리고 김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물론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역동적이면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테면 저는 심의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의제 도가 나쁜 게 아니라 심의 제도에 긍정적인 권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다원예술이라는 특성상 각각의 영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짬뽕처럼 구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매체 특성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의 위원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것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안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도 그렇게 심의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는 지원 제도에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원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기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기대를 오히려 조금이라도 잡아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착과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게 오히려 현장에서 더 많이 요청돼야 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수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마치 파격적이고 참여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만 행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지나치게 현장에 다 맡겨버려서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람** : 혹시 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의아한 점이 좀 생겨가지고. 몇 가지가 그런데요. 어쨌든 논의하는 자리니까. 앞서 선생님께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야기, 수도권과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전자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라는 건 수도권을 엄청 전제해서 그 영향력을 받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개념이거든요.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하나의 지역으로 염두 했을 때, 저는 지역이라는 말을 조금 고집스럽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다원예술이라는 것, 수도권 중심의 어떤 예술 활동이라든지 세련된 무언가, 실험적인 것을 말하는 소극적인 정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닐 거라면. 저의 입장에서 지역이라는 말을 더 권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배워가는 와중이라 선생님들 말씀 듣고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다원예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끝물이거든요. 겨우 붙어보려고 하는 세대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장르 구분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조금 숨통 트게 하는 그런 분야예요. 또 만약에 다원예술에 지원하잖아요? 이걸 장르라고 말

하지 않아요. 저희도 지원 제도 이용할 뿐이거든요? 활용할 뿐이에요. 거기에 저희 끼워 맞추고 그러지 않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신진 작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원예술의 어떤 창구 내에서 작업들을 이어나갈 때 저희도 그런 식의 협상들은 충분히 해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이야기나 작업 방식들을 다원예술이라는 범주 내에서 포섭되는 울타리 안에서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료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에 조금은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앞서 선생님께서 질문 던져주신 것 중 하나가 사회적인 차원의 예술들, 소수자 예술이라는 것을 굳이 포섭을 둘 필요가 있냐, 언급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 부분이 다원예술이라는 것의 되게 중요한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될 정권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의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특정 사회 구성원들 대상들. 예를 들자면 상징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축소되게끔 느껴질 수 있는 여러 정황들 상에서 저는 예술이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양한 장르 안에서 실험적이고 동시대에서 해야 할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다원예술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시한다는 것. 예컨대. 예를 들어서라도 명시한다는 자체가 예술이 사회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신진 작업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강의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미술대학에서도 1학년 때 오로지 목표 하나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대단하다 싶은 학교에 간 애들도 1학년에서 사회적 자아로서 존재로서의 자아를 가진 예술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 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엄청 멋있는 작업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업자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기금 신청하고 작업할 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이 어떻게 자기 작업을 통해서 사회와 이야기 나눌까. 저는 이미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수준의 예술 작업들이 예술 산업 안에서 소통되고 소비되지, 예술 계통이 아닌 밖에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미디어와 인터뷰할 때도 미술계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지만 저는 정치문화 섹션에 있는 기자들한테 이메일 보내거든요. 소통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다원예술 분야가 훨씬 더 숨통 트이고 작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사회적인 차원의 예술이라든지, 소수자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곳이 다원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풍토 속에서 다양한 작업들이 생산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예술계가 서구 영미권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의 트드에 엄청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유독 안 되는 부분들이 퀴어예술에 대한 지원들.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전시들이 왜 이렇게 없냐, 국공립 유명한 미술관에서 왜 그런 기획들이 없냐. 그런 게 너무 이상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라는 거. 너무 지겹고 슬하게 듣고 있는데 예술계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다양한 기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런 작업해도 돼'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작가들에게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없을 거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 이것들이 정말 잘 적용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예술가들의 어떤 풍토들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또 말씀 전해주실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석근 작가님.
- **오석근** :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1명의 예술가로서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 지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의 사회적 역할도 마찬가지고. 왜 예술가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생

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람 선생님 말씀도 상당히 동의하지만 저는 공공성 없는 예술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예술이 예술계 안에서만 소통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봐와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람 선생님 말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들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소비될 수 있고 순환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현재에 가장 필요한 우리 정책과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안에서 다원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좀 복잡해진 게 창작자로서 보면 소수자나 퀴어 담론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시각예술 안에서도 하고 있고, 연극에서도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갑자기 다원이라는 언어 때문에 아니면 다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푸쉬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다.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나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잊혀진 사람들을 주목하듯이.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굳이 다원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예술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주고 계신 허영균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허영균** : 네, 방금 제람 작가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앞으로 뭘 하나갈 때 계속 기억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출판사를 한 지가 내년이면 10년 되는데 그 10년 동안 저의 저성장도 문제가 있으나. 처음에 출판사를 만들었던 계기가 공연을 공연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공연을 예술을 보지 않아도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자는 마음으로 출판사를 했는데. 8~9년을 이어오는 동안 정말 책을 통해서 공연으로, 책을 통해서 전시로 유입되는 독자들을 만난 건 정말 소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넓어지지 않는 그런 씬을 항상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사회적 역할, 어떤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경계를 흐리면 경계가 점점 뭉어져서 그것이 마치 예술적인 활동, 덜 예술성 있는 활동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경계를 흐리면서 넓혀가는, 그래서 멀리 스며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또 출판사로서는, 출판사도 그렇고 제가 어떤 매체들을 계속 다루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연극인도 있고, 춤인도 있고 다양한 장르를 대변하는 매체들이 있지만 다원예술을 예술 매체 안에서 소개하고, 다루고, 지지하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불나방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하나** :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 듣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작가로서 출판사 대표로서 공간 운영자로서 많은 분들 생각을 듣는 게 좋았고요. 작년에 토론회인가 나갔었는데 발제문에 제가 다원예술 생태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왜 그 말을 썼는지 다시 문서를 봐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프린지라는 페스티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작업을 활동하는 독립 예술가, 작업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다 보니까. 프린지라는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되는지 예술가분들 통해서 저희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지원 제도에 포섭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가로 호명되면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희가 플랫폼을 25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들이 더 많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아무리 많은 지원 제도가 생기고 많은 공연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거나 나누고 싶은 친구들, 또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이야기하고 발화할 수 있는 장들이 되게 많이 생겨야 되고. 그게 말 그대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많은 주제적인 것들. 소수, 다원, 퀴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또 다른 예술가들이 작업적으로 방법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다원예술이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장안에서 되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요. 사실 저도 프린지에 소속되어서 블랙리스트를 되게 많이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검열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 예술가들의 의견도 듣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와닿지 않는 이슈로 다가왔을 때 저 또한 되게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사업이 지워져서 내가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무대가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이런 작품이 발화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나 어떤 책으로나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사자성을 갖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고 이해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블랙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싶은데. 조금 횡설수설하지만 다원예술이라는 어떤 한 사업이 다시 복원되는 걸로 이것들이 확장되거나 이해되거나 그런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오늘 모이신 분들이 말하는 것.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현장에 또 사업으로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되는 것들이 다원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확장되는 시기가 지금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 마칠게요.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김소연** :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 제가 말했던 역동성은 아까 박혜강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지원 사업은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제도라는 안정적인 틀로 이 변화를 안착시키느냐. 그러니까 변화를 담으면서도 그것들이 제도의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는 것. 특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사업을 한다는 건 그런 어떤 것들을 해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박혜강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현장의 역동성을 제도가 담아낸다는 게 제도의 안정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 있더라도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공유의 폭이 좁다면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회의나 라운드 테이블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참여나 그런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넓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안정적이어야 되고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 변화라는 말이 막상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좋은 말인데 싶은데, 저도 좋은 말 하려고 애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원 사업이라든가 꼭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평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 아까 어떤 분도 그런 것 같은데, 다원 예술이 선도적인 새로움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인 양 요구하고 시달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의 새로움이라는 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새로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의 새로움이란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것에서 사실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 새로움, 실험 이런 말들이 되려 한편으로는 다원예술이 좀 더 활기 있고 개방적이길 바라는데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제도 이야기는 아니고 비평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이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게 이런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때 비평이 많이 축적돼야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정책 범주가 먼저 나오고 정책 범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평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다원예술비평 지원 사업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뭔가 다원예술과 관련된 비평적인 담론들이 많아졌으면. 어떤 식으로든 두꺼워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 사회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TF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지만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해요. 먼

저 박경주 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경주**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박혜강 선생님이나 김소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예술행정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해주시는 비판이어서 엄숙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요. 사무처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 이 다원예술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6년에서 7년, 저는 작년도 완전한 복원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제도적 실험이 들어가서 예측이 불가했던. 그래서 저는 22년도 사업이 복원되는 첫 단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전에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수혜자로서 성장해왔던 자기의 언어를 찾아가고 있었던 예술가들이 그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고. 그리고 20대 말이나 중간에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운 언어를 찾고자 하는 작가들은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버려서 저는 이 7년이 7년 이상의 상처를 다원예술 생태계 안에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기존의 다른 장르 위원님들이 그렇게 닫혀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행정이 위원님들의 유연한 사고를 잘 따라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무처에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잘 소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무처 창작지원본부나 미래전략본부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 홍보를 드리자면 이제 7기 위원회가 끝납니다. 곧 8기 위원 선임이 있을 건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발 8기 위원 다원예술에 지원하셔서 좋은 분들이 경쟁하셔가지고 다음 8기 다원예술 분야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임인자** : 네, 감사합니다. 박지선 위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박지선** : 네. 저도 라운드 테이블을 하나 빼고 다 참가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예술가 그룹, 기획자 그룹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와 또 다르게 의견 주시는 것들도 있어서 열심히 잘 듣고 있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속 활발하게 하시는 예술가 그룹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새롭게 이쪽을 진입하고 있는 예술가분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활동하면서 예술가들과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 제한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원예술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다원예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오늘도 변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언어를 요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원예술이 어떻게 제도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정과 현장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혜강 선생님께서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현장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한 시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잘 만들어가면서 다원예술이 계속해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사는 못하셨지만 중간에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다원예술 TF의 김건희 위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건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건희라고 하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중간부터 들었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저 스스로 하게 된 것 같고요. 특히 박혜강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람 작가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고민하던 지점과 많이 닿아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들 잘 듣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행정의 간극과 이런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단순히 다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정준화 부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정준화** : 예,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긴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오늘 진지한 고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혹시 오성근 주임님도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오성근** :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나 전화상으로 만나 뵈던 분들도 지금 라운드 테이블 구성원에 계신데, 비대면이지만 얼굴 뵈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자** :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다의 뒤로 허영균님 부터 시작할까요?
- **허영균** : 네, 저는 아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라운드 테이블이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될지, 그 흐름을 알고 싶고 쫓아가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제람 작가님.
- **제람** : 네, 평소에 뵈기 어려운 선생님들 한자리에서 뵈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창작자로서 또 동시대에 함께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생존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가면서 하루하루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다음 오석근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 **오석근** : 저도 고민의 지점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교류가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르게 비교하면서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 부분도 함께 지역 사람들과 고민하면서 좀 더 현장의 이야기들이 지역에서라도 정책으로 잘 반영돼서. 예술창작활동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자본화되는 예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만드는 예술이 더 주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박혜강 디렉터님 부탁드립니다.
- **박혜강** :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저도 현장에서 기획하고 공간도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적인 것들이 많아서 항상 내쳤어요. 하기 싫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맞본 게 없는 거예요. 만족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회의감을 가지고 자꾸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임인자 사회자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계속 불가능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이야기함으로써 저 자체도 변화를 겪는 것인데, 저도 너무 참여를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다원예술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원예술 지원 제도를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현장이든 행정이 다양성만큼은 한 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일테면 기존 장르 예술도 성장,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장르 예술의 편협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원예술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보편성을 가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꼭 다원예술만. 일테면 '이건 내 거야'는 아니잖아요. 소수자나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원예술만이 점유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원 제도 내지는 다른 장르에서도 뭐 융복합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내칠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들이 다원예술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상호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은 꼭 실천하자.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불나방님도 부탁드립니다.
- **남하나** : 저도 좀 횡설수설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또 직접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보면서 저도 1년을 되돌아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다원예술이 궁금해서 일부러 리부트를 신청을 했고 1차까지는 됐었어요. 그런데 저의 심사 평가지에는 제 작품을 다 '다원이나, 아니냐'를 평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솔직히 '너네가 뭔데 나의 작품을 이래라저래라 판단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난 다원인데 네가 뭔데 다원이 아니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떠나서 나의 작품을 어떻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다원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구나라는 걸 봤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의 내리지 않고 많은 것들이 펼쳐지면 좋겠다.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생기고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도기의 어떤 시간을 겪고 있고. 그 많은 예술들이 정의 내리지 않고 펼쳐지고 유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을 때 다원예술에 대한 어떤 작품성들이 잘 기록이 되지 않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카이빙이 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인자** :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김소연** : 네, 자꾸 20년 전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새로운 창작자분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박혜강 선생님과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거웠고요. 어쨌건 저는 작품 비평. 제가 20년 전에 일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원예술의 되게 복잡하고 불안정한 자체가 우리 문화 정책, 예술 지원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인자** :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여러 이야기 들려주신 작가님들, 선생님들, 디렉터님.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죄송스럽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원예술이 어떻게 보면 늘 '자기 증명을 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행정의 시각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장의 시각, 동시대의 시각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사업의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있어서 한 번은 변화를 볼 수 있는 때가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정보다 늦게 끝나서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취록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메일로 발송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5차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22년 다원예술 포럼 녹취록



2022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2022. 6. 2.(목) 오후 2시~5시

개 회

- 사회자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다원예술TF 팀장
- 인사말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다원예술TF 팀장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박경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다원예술TF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블랙리스트 이후 2021년 복원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원예술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에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끝이 없겠지만, 다원예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장 예술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다원예술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한 주최 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현재 나주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계시는데요.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해 들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다원예술TF 위원님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다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예술인 청중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다원예술은 다원예술로 호명되기 이전부터 새로운 관점과 시도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면서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예술로써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와 깊은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이후로 중단된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기 위해 2018년 다원예술 지원 확대를 기관 사업 혁신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오랜 준비 끝에 작년 2021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사업 설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새롭게 도입한 블라인드 방식 동료 평가 심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술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다 세심한 지원 제도 운영과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원예술TF를 구성하였고요. 다원예술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으로써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포럼은 다원예술의 현재를 진단해 보고 예술 다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여야 하는지 논의하여 앞으로 다원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위해 열리는 포럼입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은 앞으로 다원예술 지원 제도 운영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원예술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가 잘 발현되도록 힘껏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경주

네, 박종관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1부의 첫 번째 순서로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방식 동료 집단 심의 도입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여섯 가지 후속조치를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에서 해당 후속조치 진행 경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된 다원예술TF에서 지난 3, 4개월간 다섯 차례 진행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휴식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섯 분의 다원예술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1부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께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의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경과를 발표 하시겠습니다.

☑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 2021 동료평가 사과 및 후속조치 진행경과보고 - 정준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부장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입니다. 2021년도 동료평가 사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0일이었는데요. 예술위원회에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문 후속조치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섯 가지 후속조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동료평가 심의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차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원예술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차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예술위원회 위원, 현장 예술가, 심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예술인의 소리, 사무처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된 다원예술TF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TF를 통해서 총 11번의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구성 초기는 올해 다원예술 창작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었고요. TF에서 확정된 안으로 지난 2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원예술 창작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사업이 공고돼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02.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심의에 참여하신 총 287명에게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닿지 않은 5명을 제외한 282명에 대해서 심의사례비를 지난 1월에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03.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가칭)다원예술 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속조치입니다.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다원예술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TF에서 논의를 한 결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참여하신 분들께 의견을 여쭙어서 총 13명이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해 주셨습니다. 이 13명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4. 기존 예술위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존 예술위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공고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에 사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올 10월 예정인 정기공모 형태로 같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TF의 논의가 끝나더라도 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10월 정기공모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05.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TF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는 과업지시서를 TF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할 텐데요. 현재 설정한 과업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곧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6.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3월, 4월에 5회에 걸쳐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추진한 바 있고요. 이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은 곧이어서 TF 위원님들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원예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주

정준화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말 후속조치 안내 이후 예술 현장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 체계와 심의 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줌에서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초 60여 명께서 줌 접속을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다 접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이 없다면 이후 2부 토크에서도 직접 참여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정준화 부장님께서 현장에 계속 계실 예정이니까 또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질문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원예술TF에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실 텐데요. 다원예술TF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안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원예술TF에서는 다섯 번에 걸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현장 예술가분들의 다원예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원예술TF 구성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발제를 맡아주실 독립기획자이자 프로듀서그룹 도트에서 활동 중이신 박지선 위원님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건희 위원님, 아이공 대표 김장연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독립기획자 임인자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지선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결과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제

- 사회자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다원예술TF 팀장
- 발제자 다원예술TF

박지선 다원예술TF 위원/독립기획자, 프로듀서그룹 도트
 김건희 다원예술TF 위원/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 다원예술TF 위원/아이공 대표
 임인자 다원예술TF 위원/독립기획자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보고**

박지선 다원예술TF 위원/독립기획자, 프로듀서그룹 도트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지선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들으셨고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5회차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회부터 5회까지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의 일정이고요.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기획자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다원예술 | 현재 활동 기반에서 경험한 “다원”

참여하신 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날 다원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활동 기반에서 경험한 다원예술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다원예술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예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다원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스트 담론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혼성, 경계, 탈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예술과 비예술, 특히 비예술 영역이었던 과학, 일상, 언어, 철학의 개념을 다원예술이 끌어안으며 등장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추세인 통합성이 요구되는 예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예술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원예술은 장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이다,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장르에 갇히지 않고 주제나 방법론에도 갇히지 않는 열린 태도가 다원예술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원예술은 신체적 장애를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예술,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 나이, 계층 등 마이너리티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그걸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지원하는 분야가 바로 다원예술이다,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예술가로서 장르 용어나 자기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각을 돕는 또는 도울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극이나 무용, 기타 전통 음악 장르들처럼 이미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사이를 다원예술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접근 또는 그사이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기존의 장르에서는 수용될 수 없고 다원예술에서 수용이 가능하며, 현대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은 매우 필연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원예술이 어떤 하나의 장르로 고착되는 우려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원예술이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서 놀이터처럼 마음껏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분야인데 너무 빠르게 다원예술에 대한 심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다원예술에 대한 형식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견고해지고 있고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존의 장르로 포섭될 수 없는 예술이 다원예술로 불리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시대 예술이 점점 더 확장하게 되면서 다원예술은 점점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어떤 장르는 아닐까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원예술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역에 있어서 다원예술은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도나 모험으로 흘러나가기보다는 기존 지원 사업 틀 안에서 그것이 탈락하거나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 격하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원예술 지원 폐지, 복원의 의미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원예술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6년 동안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년에 복원이 됐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예술, 비주류 예술 등 제도를 벗어난 예술들을 담아내는 정책적 용어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원예술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거나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보다는 다원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현장에서 동시대를 마주하는 예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과 미래의 예술들을 견인하여 온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정의 내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을 넓게 포섭하며 동시대를 사유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다원예술의 이러한 시도와 태도들은 오히려 지원 사업의 이름이 계속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이 작동되면서 폐지되는 등 제도적인 불안정성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시대와 예술을 다양하게 사유하고 표현하는 다원예술의 의미와 특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여과 없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르가 다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복원되어서 예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지원 확대에 따른 다원예술의 변화 및 관계성

최근 다원예술과 관계해서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원예술과 교집합이 이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몇 예술가분들께서는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와 관련해서 최근의 작업들이 굉장히 자본주의화 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원예술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선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다원예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예술과 기술 융합 부분이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였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사업에서는 어디 한 축에만 기울어지지 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연극이나 무용, 음악 등 여러 장르와 같이 기술이라는 장르가 최근에 생겨난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기술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접목시켜 어떻게 작품화하는 것을 프로모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

하고 있는 다원의 한 부분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지원 | 변화의 필요성, 지원의 방향성

다원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지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심사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예술인 입장에서는 사업이 눈에 두드러지고 큰 것, 그런 사업을 벌여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현장에는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집단과 연결되어야 하고, 기존에 아르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의 기준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가의 포트폴리오 심의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왠지 다원은 이래야만 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작업이 많다 보니까 다원예술도 VR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업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서 안티테크를 향한 작가들의 욕망이 다원예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선정되는 작품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 정책 및 제도 지원 정책 및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다원예술 지원 정책은 예술가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은 이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게 좋았다고 하면서, 더불어서 다원예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다원예술이 폐지되는 상황을 고통스럽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고민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르코에서, 지금의 시스템에서 다원을 다룬다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질문이 과연 어떻게 다원의 문제가 비단 다원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지금 아르코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지원 자체의 근본적인 불가능성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 없이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가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예술가에게 지원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고보다 좋은 작업을 하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예산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액이 다원예술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수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고 해 주셨고요. 예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할당을 위한 별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을 보면 아르코의 다원예술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지가 되고는 한다, 서울과 지역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끼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원예술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코가 지역 재단과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이야기는 다원예술의 생태계가 과연 있는가, 생태계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태계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작가 개인이 아무리 꾸준히 작업을 해도 확장되기가 어렵고 창작자 개인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생태계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으로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원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한 이후에 그 공연을 재공연할 기회와 장소가 너무나 없다, 그래서 재공연 플랫폼이 매우 절실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재공연 플랫폼,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연구나 비평에 대한 지원도 조금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작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레지던시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연극이나 무용, 전통 음악 등 다른 장르는 다 상이 있는데요. 다원예술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원예술 분야의 상도 만들어지면 어떨까 제안을 해 주셨고요. 다원예술 마켓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술가 그룹에서 많이 나왔었던 의견은 비평가 부분입니다. 다원예술에서 선행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질문을 작품을 통해서 읽어주고, 해석하고, 예술가의 작업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비평가들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줄 힘으로써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평가들이 지원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분야에서의 기획자의 역할, 입지, 기획자-창작자의 관계성

다원예술 분야에서의 기획자의 역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원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전 분야, 예술 분야 전체와도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기획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다원예술의 지속성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작가, 예술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이나 플랫폼 혹은 기획자의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의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

다원예술의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인데요. 모든 예술가와 기획자, 참여하신 분들이 다원예술 지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다원예술이 굉장히 빠르게 장르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예술가분들도 계셨는데요. 다원예술의 형식이 반복되고 패턴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다, 다원예술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6년 동안 지원 사업이 멈췄기 때문에 그것이 숙성될 수 있는 시간을 뺏겼다, 공론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들의 좋은 작업으로 충분히 자정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다원예술의 정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미지의 세계 같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여집합과 장르 간의 교집합으로써 다원예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원예술은 또한 이미 공고화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상상의 여지를 주면서 사회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상과 파장을 거듭하면서 기성 관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원 예술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이 스스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거나 상업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세상이 상상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원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회의 여러 곳에 다른 일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과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작품을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지속성, 다원예술 생태계의 풍성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술의 경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탐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다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또한 주셨습니다.

아까도 다원예술을 넘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이 복원은 됐지만 예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과 포용이며 생태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존재하고는 있지만 늘 자기 증명을 요청받아왔고 또한 동시대를 사유하는 다원예술을 정의 내리지 않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행정에서는 쉽게 폐지해버리는 등 제도적 불안정성이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것이 아닌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정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지원 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원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회복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지원 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원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회복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을 반복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5회차 라운드 테이블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주

박지선 위원님께서 라운드 테이블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여서 다섯 번에 걸쳐 논의했던 내용이 잘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다원예술TF가 후속조치로 올해 1월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11번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은 다섯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2022년 3월에 다원예술 공모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공모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는 833건이 접수돼서 안타깝게도 그중에서 800건 정도가 탈락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한 주입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 TF가 이번 포럼 이후에는 활동했던 내용으로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예술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많은 예술가 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이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예술가분들에게 TF 활동이나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요. 라운드 테이블 운영하면서 또는 TF를 같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한 말씀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건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줌에 접속하신 예술가분들께서는 줌에서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희 다원예술TF 위원/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이번에 다원TF에 참여하게 된 김건희입니다. 다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도 그렇고 함께하신 위원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조금 더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지만, 특히 다원예술 분야에서는 기획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유기적이고 항상 변화하는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을 제일 일선에서 감각하시고, 창작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비평가로서의 좋은 역할들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분들의 다원예술 분야에서 입지나 창작자분들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 정책이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꼭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장연호 다원예술TF 위원/아이공 대표

안녕하세요, 다원예술TF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연호라고 합니다. TF로 참여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각 미디어 창작자하고 매개, 축제, 지역 예술가, 기획자, 다양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박지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짧게 요약이 된 건데요. 그 내용들을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1시간, 12시간 정도가 돼요.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됐었던 건 나중에 자료집으로 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 다양한 예술가분들을 만났는데, 딱 두 개의 문장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술은 원래 통합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아까 박지선 위원님도 그 문구를 읽어주셨는데, 다원예술에서 아마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지원서를 제출하신 것도 이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예술에 다원예술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출품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에서도 통합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어서 자율학부라고 하는 새로운 전공과목도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예술에서는 다원예술이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실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이 가진 가능성이 6년간 축소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었고, 이번 계기로 다원예술의 상상력, 창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임인자 다원예술TF 위원/독립기획자

반갑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예술가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예술위원회가 1973년도에는 진흥원이었다가 2005년도에 예술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술가들의 참여 보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위원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다원예술 분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예술가의 참여보다는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블라인

드 동료 평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예술위원회의 일방적인 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TF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술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라운드 테이블도 5회가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예술가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선 위원님께서 다원예술 분야의 많은 논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원예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참 반갑고 좋았던 것이 '이것도 가능해'라는 부분이었어요. '예술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응원하고 북돋아 줬던 것이 바로 다원예술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많은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보내오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는 다시는 경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과정 중에 굉장히 취약한 제도의 문제나 또 스스로 정의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와 어떤 관점, 태도 같은 것들, 폭력적으로 폐지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했고요. 또 소수의 목소리, 작년에 동료 평가를 하면서 차별과 혐오적인 발언들이 예술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다원예술의 다양한 가치들이 어떻게 응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박경주

아무래도 오늘 접속하신 예술가분들께서 그동안, 작년 블라인드 방식 동료 평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세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임인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양을 박지선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마지막에 주신 문장이 제일 와닿는 문장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거나 특히 작년에 블라인드 동료 평가 이후에 사실 TF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의미라든가 박지선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방송을 생중계로 보고 계신 다른 예술가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선

발제로 예정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아까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할 예정이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다원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각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다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예술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예술가분들께서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받지 않고 나름대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잠시 작업을 중단한 예술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개인 작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작업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다원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원예술을 자기 예술의 정체성으로 명명하는 예술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유사한 어떤 예술가들, 내 앞에 있는 앞서갔던 다른 예술가분들의 길을 봤을 때 되게 막막하고, 젊은 예술가분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막한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예술계에서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예술의 길은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

셨을 때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다원예술이 어떻게 계속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질 수 없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공공지원이라는 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원예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서 어떤 행정 집단이나 정책 단위에서 그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원예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술위원회에서 6년 동안 지원을 멈췄다고 해서 다원예술이 멈춘 건 아니죠. 민간에서 예술가들이 스스로 작업을 열심히 해오셨고 그런 예술가들과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공공과 어떻게 만나고 또 다른 장르와는 어떻게 만나서 이 안에서 다원예술의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토론 때,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경주

박지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원예술 지원 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원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회복을 제도로써 보장해야 한다” TF 위원님 모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다원예술TF를 운영하면서, 블라인드 방식 동료 집단 심의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TF이기는 하지만, 열한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다원예술 생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예술 포럼의 주제도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라고 했는데요.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재를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서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건희

일단 다원예술을 어떻게 보는지에서부터 먼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원예술로 표현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예술에 대한 사항에 되게 근접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태계 부분도 되게 유기적으로, 항상 변화의 일선에서 그걸 가장 빨리 흡수해서 표현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생태계의 구조도 되게 유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 내에서의 닫힌 생태계라기보다 이 분야는 다른 장르들과의 연관성도 있으면서 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 임인자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의 기존 틀이나 방식, 제도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하기 위한 방식,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만나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예술가와의 협업, 창작자와 기획자의 만남, 활동가와 예술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해왔기 때문에 다원예술은 계속 그렇게 확장해왔고, 질문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을 통해서 다원예술 생태계, 많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갑자기 단절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예술이 스스로 혼자 서거나 사회에 닿고 있던 다리 하나를 그냥 못 닿게 되거나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뻐할 곳, 혹은 만날 곳, 이런 것들이 없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장연호

저는 생태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예술 작품 몇 편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변방연극제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 봤던 그림자 연극에 관련된 실험 연극이었거든요. 그 작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연극을 보는 내내 너무 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연극을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게 다원예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변방연극제에서, 그림자 연극의 어떤 실험적인 형태들이 축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될 수 있었고 관객을 만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원예술이 끊겨 있던 6년 동안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은 다원예술이 발전하고 어떤 예술은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작업도 봤습니다. 2000년도 초반 다원예술이 한창 있었을 때, 국내에서 '저런 장르 있었는데'라고 생각했던 다원예술의 어떤 장르들이 해외에서는 늦게 시작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계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외부적인 어떤 요구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안에 같이 생존해 있었던 다양한 생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새로 다시 그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그림자 연극 같은 그런 작업을 보고 싶고, 국내에서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을 다시 관람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 박경주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원예술 경계 안에서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대안 영상 등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셔서 더 그런 마음이 실 것 같아요. 다음은 박지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지선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술 생태계, 다원예술 생태계, 근데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뭐냐, 생태계는 어디에 있냐.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하면 연구 중에 가장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다원예술 생태계를 얘기한다면 개인적인 느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태계라고 하면 연결성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연결이 잘 돼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겹치기도 하고 교집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이동하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느낌은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게 파편적으로 그냥 늘어져 있다, 퍼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난 6년간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지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할 수 없었고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연결성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연결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교집합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느낀 건데, 저는 공연예술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공연예술 분야에서 특히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메인 무용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고 갤러리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대안 공간이라든가 다른 데서 새

로운 접근으로써, 무용을 전공했지만 그 밖에서 작업을 하는 안무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안무가들이 다원예술의 지원을 받고 아니면 다원예술 안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용수들이 최근에는 또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큰 메인 신에서 그들을 호명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 장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접근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까 김건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장르들과 다른 예술 분야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오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 다원예술의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경주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원예술TF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동안 라운드 테이블에는 31명의 예술가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 매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 창작자, 기획자, 프로듀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구성원인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앞서 6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못 했고, 늦게 복원을 했고, 작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원예술 담당 위원으로서 많이 죄송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예술가분도 계셨고, 한 번도 지원금을 신청하신 적이 없다고 했던 분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원예술TF가 올해 급하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짧게 하고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향후에 이렇게 다원예술 생태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의 끈은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부 순서로 넘어가서 다른 패널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사회자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다원예술TF 팀장

모더레이터 임인자 다원예술TF 위원/독립기획자, 김장연호 다원예술TF 위원/아이공 대표

토론자 권병준 미디어 아티스트

김소연 연극평론가

박혜강 예술공간 돈키호테 대표

이다은 시각예술 작가

제람 시각예술 활동가

• 다원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 박경주

2022년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원예술 작가로서, 활동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다원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 님, 연극평론가 김소연 님, 예술공간 돈키호테 박혜강 대표님, 시각예술 작가 이다은 님, 시각예술 활동가 제람 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2부에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2부는 모더레이터로 다원예술TF 김장연호 위원님과 임인자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2부 패널분들도 기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1부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2부 토론 주제 '다원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춰서 임인자 위원님과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모더레이팅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또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모더레이터분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소통하는 방향으로 2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인자 위원님께서 첫 질문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임인자**

다원예술은 스스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술에 대해, 사회에 대해, 기존 질서에 대해 횡단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낮은 것, 예술이 아닌 것,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섯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는 동안 다원예술의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이 제도의 취약성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원예술을 해오셨고 또 매개해 오셨던 예술가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현재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술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권병준 미디어 아티스트**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권병준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 많이 나왔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제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다원예술을 대표하는 작가의 입장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제가 있을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밀 언덕을 찾아다녔는데, 꽤 오랫동안 찾아 헤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자립하고 싶었어요. 오늘 지원, 기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기금을 처음 지원한 게 2019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 나이 마흔아홉 때 처음 기금이라는 걸 받아왔는데, 물론 기금을 받는다는 게 자립에서 멀어진다, 자립과 양분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에서조차도 저를 떼어놓고 자유롭게 작은 프로젝트들로 근 10여 년을 이끌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가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스타임(Steim)이라는 기관에서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 직업이었어요. 그곳은 실험적인 악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이었었는데, 악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 또 어떤 경우에는 여비까지 제공하거든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기관인데 그게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의 지원으로 그 50년을 그런 식으로 버텨 오면서, 기술이 어렵거나 혹은 부족한 여러

가지 발표의 장까지 만들어주면서 예술가들을 돕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안 한국 작가들이 한 명도 그곳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물론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인프라죠. 그 도시 혹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술을 위한 작은 인프라인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꾸준히 작동을 해왔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비밀 언덕이 되는지를 그때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작가분들이 다원을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의 예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기도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득권들이 젊은 예술가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원예술을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작 지원도 있겠고, 매개도 있겠고, 공간도 있고, 비평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고한 기득권 예술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들이 거기서 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생태계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거나 할 때도 단지 비료만 줘서, 물만 준다고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들이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는 보호해 줘야 해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그들이 언제나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의 작품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공연 작품을, 공연이라는 것은 티켓 판매 외에는 그리고 그 수익도 많지도 않아서 공연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예술가들은 언제나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뭔가 해 보려면 어떤 절실한 노력이,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버티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같은 것들 그리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를 들면 작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루트라든지 필요한 작업 공간, 레지던시 혹은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소연 연극평론가

위원님이 주신 화두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다원예술이 폐지되는 상황 자체가 보여준, 다원예술의 지원 제도에서의 취약성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라운드 테이블 정리해 주신 박지선 위원님의 발표도 그렇고, 권병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예시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인터뷰해서 지원금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거기는 5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그 50년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는 게 결국 지원의 연속성 그리고 예술계 위계 서열의 균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2005년에, 처음 예술위가 생기면서 다원예술 소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술위 안에 장르 소위원회가 없지만 당시에는 장르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사실은 장르 소위원회냐 아니면 주제 소위원회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장르 소위원회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소위원원이었는데, 사실 현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돌아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현장의 요구를 다 부응할 수 없었고, 때로는 우리 되게 열심히 하는데 행정이 너무 딱딱해서 잘 안된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옆에 계신 박혜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원예술 매개 공간이라는 걸 소위원회에서 만들면서 거기 예술 감

독을 하시고 앞서 나왔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때 공간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주어진 게 공간밖에 없어서 제약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셨거든요. 되게 좌충우돌하고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행정적 제약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시도가 있었어요.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2016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1, 2기 소위원회가 끝나고 갔을 때 다원예술 지원 파트가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양성과 실험 증진을 위한 예술지원 이런 식으로 막 갈지자였어요.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 다원예술 소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다원예술이라는 것의 담론, 지원 정책, 지원 방식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박지선 위원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예술위에서 지원 제도가 없다고 해서 다원예술 파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현장에서 어렵게, 힘들게 좋은 작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원예술이 지난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시도들이 갑자기 끊겨버리면서 논의가 뭔가 공전하는 것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있었던 다원예술 폐지, 취약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취약성이라는 건 다원예술계라든가 다원예술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예술가군 이런 것보다 다원예술이 당시에 했던,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매개 공간에 대해 굳이 설명하는 것이 뭔가 지원에서 새로운 방식, 지원금 나눠주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지원이 예술계에 할 수 있는 건 없을지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대단히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막혀 버렸다는 것이, 새로운 시도를 가장 많이 했던 목소리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지원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대체 예술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지원이라는 게 뭐지,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분야가 딱 닫혀버린 그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혜강 예술공간 돈키호테 대표**

방금 김소연 선생님이 매개 공간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부터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저는 2009년 초에 다원예술 매개 공간 디렉터를 그만둘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정권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없어지는 않기를 바랐고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사업을 없애버렸고요. 하지만 전년도에 준비 중이었던 초기 다원예술 매개 공간, 서울에서 있었던, 미리 계획을 2007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지역으로의 매개 공간 지원 사업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매개 공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초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늘 포럼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에 들었어요. 제가 망설이다가 오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2개의 쟁점, 현재와 미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 얘기한 내용을 또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질문으로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원예술 생태계 내지는 다원예술계의 활동가, 작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어쩌면 오늘 좀 역지사지로 다원예술의 제도적 취약성을 얘기한다면 다른 분야의 지원 제도에서는 어떠한가를 동시에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의 제도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점부터 제도적 취약성을 얘기하는 건지 좀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F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종합 발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초기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된 이후에 2015년까지 어쨌든 실행이 됐었죠. 2010년도에 실험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지만 어쨌든 2015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지원 예술 제도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2013년에 『다원 예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연구 분석 자료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책 쪽에서, 이번 TF나 작년에 리부트로 다시 복원하면서 그사이에 예술 정책에서의 어떤 연구와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 개선되고 또 현장의 요청이 있었는지, 어쨌든 2013년까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KOREAN CONTEMPORARY ARTS-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했어. 권병준 작가님도 거기서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예술가 몇 분을 선별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이죠.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단은 블랙리스트 이후 작년에 복원이 되면서 정책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모 사업도 하나의, 가장 첫 번째 기획이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획인 거죠. 그 기획, 공모안에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따가 정책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앞서 어떻게 해서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 사업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돼서 지원 제도로써 출발했었는지를 짚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2020년 TF 구성부터 해서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연구 보고서가 네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전혀 짚지 않았고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 사업에, 다원예술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뒤늦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도의 취약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 공모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짚막하게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대상,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공모안을 보고 지원해야겠다고 할 그 대상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원예술이라 자가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대상으로 함.” 앞서 수많은 정책 연구보고서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실하게, 협소하게, 마치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걸 정책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죠. 이 공모안을 내놓으면서 자신감이나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안을 왜 내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오늘도 작년에 했던 블라인드 방식의 심사제와 동료집단 심의에 대해서, 이것이 발생했던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미연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에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과의 문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공모안에 있는 심사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담론을 공론화하고자 블라인드 심사 제도와 동료 그룹 심의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동료 그룹 심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제한하지 않고, 예술 현장에서 직접 다원예술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 공모에 지원하는 현장 예술가들의 지원 기준에는 예술인 증명도 해야 하고요. 그건 제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도가 제도를 꺼내놓으면서 제도권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공모안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제도적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언어도단에서 빌려오자면 대단한 정책도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 이해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전혀 정책적으로 없이 이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블랙리스트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작가든 기획자든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와 반하는, 그래서라고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단발적인 것이고요. 위원회라고 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 그런

블랙리스트로 다년간 실행해왔던 다원예술 내지는 실험 예술에 대해서 현장과의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지원 제도 자체를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없애버렸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초기에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적인 부분들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개선 하거나 보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취약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예요.

아까 김소연 선생님이, 다원예술이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문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원예술은 끊임없이 자기의 발을 달고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면서 개선과 보완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이후에 물론 밝혀졌지만,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든 거죠.

그랬을 때 블랙리스트 이후, 즉 포스트 블랙리스트에 지금 제목이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인데, 블랙리스트 이후라고 했을 때는 그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TF를 구성하고 사과를 하고 또 작년의 부분도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지, 혹시나 또 뭔가 제도적인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 또한 제도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 지점으로 지적이 됐었는지를, 문제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용어들이, 어떤 정책의 문맥들이 잘못돼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TF 자료집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다음 시각예술 작가

저는 시각예술 활동가로 작업 활동하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그 제도적 취약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권병준 작가님께서도 지원 제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가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하지 않고 자생하거나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꿈꾸는 건 사실 다원예술뿐만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제도나 지원이 투자되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풀뿌리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같이 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 제도의 문제라든지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술은 항상 지원 제도를 벗어나서, 비켜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통은 지원이나 행정의 뒤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나 불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블랙리스트를, 저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듣고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꼈던 감각이, 중단됐던 그 6년의 시간 동안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라든지 혹은 가치라든지 아니면 다원예술 신에 유입되고 있는 예술가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감각도 사실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6년 전이라면 제가 막 학부를 졸업하고 작업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인데, 저와 비슷하게 작업하는 또래들은 대부분 이 블랙리스트 이후에 활발하게 작업을 해왔던 친구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다원예술의 예를 들면 매체라든지 그 안에 담는 가치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화됐다 혹은 이전 세대와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이 끊겼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블라인드 심사 제도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지원 제도를 다시 정립해 나가는 데서도 이해나 오해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그런 감상이 조금 들었고요.

블랙리스트를 잘 모르지만, 모른다고 사건을 안 겪었다는 건 아니지만, 블랙리스트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취약성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다른 시각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나 무용 등 장르들이 있는데 왜 다원예술 분야만 중단됐는가. 이걸 분명히 다원예술만의 어떤 대표되는, 보이는, 이해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정책이 끊긴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캔버스와 1:1 관계에서 작업이 끝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게 학문이 됐든 아니면 다른 타 분야의 예술 장르가 됐든 혹은 사회적 이슈가 됐든 지역이 됐든 간에 항상 외부와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의 성질이기에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되게 민감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원예술의 정의가 될 수도 없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너무 대표되는 성격처럼 두드러져서 블랙리스트가 생겨난 게 아닐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제도나 창작 활동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가는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원예술이라는 건 단순한 사회적 이슈나 윤리적 메시지 아니면 명제적 지식을 그냥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차원의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형식 실험 안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작가들이 하는 고민이고,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원예술 분야가 약간 평가절하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실험이라든지 미적 비평의 장들이 사실 창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론 비평가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실험적인 협업 형태의 작업을 다각적인 시점에서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항상 어떤 한 분야의 시각으로만 평가가 된단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원예술 분야를 너무 예술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가치가 절하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제람 시각예술 활동가

저는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하는 시각예술 활동가 제람입니다. 제주 사람이라서 제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성에 갇혀 있지는 않고,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교류나 아니면 소통을 이어가려는 생각을 담고 싶어서 저의 활동명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서 이다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세대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시절을 겪지는 않았거든요. 현업에서 겪지는 않았지만, 또 그 경험을 감사한 기회에 라운드 테이블도 오고 이렇게 포럼에도 초대받아서 다양한 선배들과 이전의 그 시간을 살아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셔서, 노력하셔서 다시 다원예술 분야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과 체계들이 다시 복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혜택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시각예술 분야로 활동을 시작하고 또 감사하게 그 분야에 있는 기금을 받으면서 작업했는데, 저의 기금을 담당하셨던 기관 담당자분께서 방문하 시잖아요. 작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방문해서 보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다원예술 분야가 다시 복원되는데 작업한 거 보니까 단순히 시각예술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으니 내년에는 다원예술 분야로 지원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다원예술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고 그다음에는 그 작업의 연속성을 갖는 좀 더 성장한 작업으로써의 기안을 다원예술 분야에 지원하게 됐고 지원받게 되면서 계속 다원예술 분야에서 후원받아서 작업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에서 만들었던 작업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했거든요. 그게 올해 어떤 영화제에서 초청돼서 가니까 감독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생전 안 들어온 얘기들을 듣고, 네트워킹 파티를 가니까 제가 영화 베이스는 아니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경계 없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다원예술이라는 판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

식에 구매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오가며 작업하는 다양한 창작들이 뛰놀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이후에 또 이런 복원에 애써주시고 지금까지 TF로 활동하시면서 논의를 이끌어가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했구요.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는 저의 연차라든지 경험이 짧아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에 빗대서 말했을 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담당자들과 그냥 단순히 기금 주고 정산해서 받는 관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피드백들도 주는 것, 특히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다원예술 분야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작년 지원했을 때보다 올해 지원했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책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변화되고, 조금 더 작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되게 많이 분절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파트너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선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는, 외롭게 고립되지 않는 상황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저는 기쁘게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33건의 공모가 있었는데 33건만 당선됐다, 97%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정책적인 변화와 노력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혜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저는 되게 큰 문제이자 아찔하게 느껴지는 거죠. 올해는 제가 행운이어서 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못 받으면 너무 더 쓸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원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수혜 대상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떨어진 주변의 다른 창작자가 저한테, “내 기획이 너무 부족해서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라고 해서 “무슨 성장의 계기냐 너무 조금 뽑는데, 자기를 쥐어박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실 예술 지원이라는 게 예술가들이 기획자, 창작자 나눌 건 아니지만 얼마나 대단하게 완결된 기획을 내야 합니까? 하면서 성장하는 게 있고 발전하는 게 있고, 그 공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2차 인터뷰 심사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한 기획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표현이 약간 쓸쓸했거든요. 이 정도로 만들어내서 이미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다 돼서 상상의 여지나 갱신의 여지가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보시기에 선명하니까 뽑았다, 사실 그런 여지는 더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제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알맞은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 박혜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정책적으로 다원예술 분야가 복원됐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저는 기관이 자신감과 기대가, 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현장과 소통한다는 제스처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술가 스스로 자가 정의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오히려 감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건 놔주는 거죠. 스스로 정의해가면서 갱신할 수 있게 판을 넓혀주면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다만, 그런 실험해가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심사하고 동료 평가를 했는데 833건 중에서 33건 뽑는다고 하면 저 같아도 물어뜯을 것 같아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아니, 재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데. 이미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건 실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가 너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 선정되고 나서도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면 쓸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온전히 기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것들. 동시대 미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시대 살아가는 또래 작가들과 더 많이 풍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경주

지금 제람 작가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작년에 동료평가 심의제도가 시행됐는데요 7.8%가 지원선정됐고요 올해는 전

문가 심의 제도였고 97%가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내고 떨어지고 올해 또 냈는데 떨어진 사람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정보 부분은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리해드립니다.

• 임인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이 만들어질 때 이런 현장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제도화됐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원예술 활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술 활동, 예술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목소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라졌다는 데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혜강 디렉터님이 과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는가 질문해 주셨고, 김소연 평론가님께서서는 다원예술은 어떤 하나의 지원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지원 제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권병준 작가님께서서는 생태계에 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다음 작가님께서서는 다원예술이 어떤 사회적 목소리로 대표되면서 그냥 아무런 고려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아마도 다음 질문으로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텐데요. 여전히 지금 이런 질문들은 다원예술TF에서도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을 김장연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연호

임인자 위원님이 제도의 취약성에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패널로 모신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원예술의 중간에 맥이 끊기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안에서는 뿌리 하나가, 뿌리째 뽑힌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사이에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나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새로운 나무가 생긴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책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원예술이 가져야 하는 미래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시는 이게 뿌리째 뽑히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술을 하는데 지원 사업에서 폐지라고 하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원예술은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걸 현장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게 뿌리째 뽑히지 않을 수 있는 해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미래와 지속 가능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필요한, 그걸 위한 창작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 방향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병준

아까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안 했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느 행정가 혹은 어느 기획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어디에서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일 거 아니에요. 회의해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공고를 봤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지원은 안 했는데, 주변에 지원한 사람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

서 제가 굉장히 어떤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벽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오래된 극장, 나라에서 운영하는 극장, 이런 데 갔을 때 기술 스태프하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잘 안 돼요, 눈치 봐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고 얘기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극장 바깥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의 형태로,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공무원 마인드라고 해야 하나, 어떤 작가 혹은 공연자 혹은 연출자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새로움에 동조하면서 결국 재미있고 기쁘고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색다른 시도를 하자는 건데 그것이 극장이라는 틀 혹은 형식에서 벗어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들의 태도 같은 것에서 비슷한 벽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행정가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술 스태프들도 계속 어떤 식으로든 다원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소양이 쌓여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행정가나 기술 스태프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꺼안을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벽을 느낀 게 30년 전인데 지금도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내가 비빌 언덕은 어디인가 그럴 때 극장들 혹은 문화 공간, 딱딱한 곳에서는 제 작업을 펼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대안적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좀 더 열려 있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극장이나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행정가 혹은 기술 스태프의 다원에 합당한 여러 가지 교육 혹은 인문학적 소양이 같이 넓어져 가야 하고 그런 분들이 이런 토론의 장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다음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서 제람 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원예술 사업을 지원받으셔서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피드백은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원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신청이나 공모 사업의 공모 요강이나 혹은 심사의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 그 작업 결과물을 선보이거나 이런 과정이 다른 장르의 창작지원금 사업이랑 크게 다른 점을 잘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해왔던, 다원예술이라는 개념도 사실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가 해왔던 작업 활동들을 반추해서 보자면 미술계 내에서의 아니면 다른 장르 안에서의 피드백보다는 현장에서 필드워크를 하면서 생겨났던 질문이나 연구 주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동력으로 사업을 끌고 갔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아까 결과보고서에서도 보면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원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뭔가 막막하구나. 연구 주제라든지 작품의 소재나 주제가 새로운 것이거나 생소한 것이거나 쉽게 작품 주제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작가들이 많고 형식 실험에 있어서도 어떻게든 다른 분야의 방법론들을 차용해서 자신만의, 다원예술 안의 새로운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고 혹은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생산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분야가 다원예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원예술 사업을 하거나 발표를 하고 나면 되게 뭔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장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원예술은 특히나 플랫폼 자체가,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전시 형태로 끝나기가 쉽지 않고, 무형의 자산으로 남거나 텍스트로 끝나거나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더 작품 내적으로 비평이 오거나 공론화가 되거나 재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게, 아니면 작가들이 정보를 잘 접근을 못 해서 모르거나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만 해결돼도 힘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저는 다원예술 사업이나 이런 논의들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다원예술의 어떤 가치들이나 정의들을 재정립해간다고 했을 때 특히나 더 작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했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스크포스지만 다원예술 분야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이런 식으로만 조망해 줘도 참 논의가 풍부하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작품 발표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제람

저는 아까 권병준 작가님께서 경험하셨던 거 전해 주셔서, 그게 되게 좀 먹먹했거든요. 50년이라는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는 것이 되게 꿈같은 일이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가지는데요.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다원예술 분야에서 또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지원이 끊기면서. 그랬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앞서서는 어떤 작업들을 했을까 하면서 같이 논의들과 정의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삭제됐다는 것이, 이후에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공동의 경험 자산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이, 정말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소연

아마도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이 어떻게 지원 정책 안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앞서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나고, 일단 박혜강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다양성 증진과 실험적 예술 지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징후인 거고,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지원 제도 명칭의 문제는 아니었고 다원 소위만이 아니라 장르 소위가 다 없어졌는데 소위원회가 폐지된 것이 중요한 양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람 작가님하고 이다은 작가님하고 다원예술에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대로 진상 규명조차도 중단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블랙리스트 극복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리스트는 무엇인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 투쟁과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다은 작가님이나 제람 작가님이 조금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박혜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느 장에서든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병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스태프 부분이 결국은 담론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다원예술 담론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다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끝나고 나면 서운하다고, 공허하다고 하신 것들은 결국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저는 문제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극 지원 사업이 한국 연극의 연극 정책을 다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한국 예술계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모든 걸 다 소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아예 질문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정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니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없었어도,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제도가 생기는 거지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다원예술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이 있는 거고, 현장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 개입이 있는 건데 또 제도가 잘 개입하면 현장과 굉장히 상호 흥미로운 영향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기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원예술이라는 언어로 포괄이, 담론화가 됐던 거고, 그 담론화의 과정이 중단되어버리고 흩어져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이 해야 할 일은 다시 담론을 복원하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예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다른 방식, 그동안 했던 지원 방식과 다른 걸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줬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나면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앞서 라운드 테이블 정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방향과 각도, 이해 속에서 정의되는 다원예술이라 불리는 장에 대한 정책 생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지원 사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원 사업을 잘 만드는 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는 한데, 다원예술 정책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워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 소위원회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은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과 접촉면을 많이 가지려면 장르 소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원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정책 생산의 역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분야에서 정책 생산 역량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역량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위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TF 같은 임시적인 조직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정책에도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상상력을 갖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원예술 분야의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논의와 입안 구조를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같은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위원회 안에 설치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담론화하고 정책으로 다시 정돈하고 피드백하는 구조, 틀을 문화예술위원회가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박혜강

다원예술의 태생이 정책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태초에 예술이, 예술의 움직임들

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고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원예술 생태계 가치를 위해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이 종합적인 질문이라면 저는 다원예술이 어떤 특정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 특정적 예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진입에 대한, 권병준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폐쇄적인 것들을 뚫고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보였던 거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설정됐을 때, 제 생각에는 아까 TF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결국은 장르 예술이 다원예술화되어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비전으로 보자면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걸 다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르는 또한 굳건할 것이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반적인, 타 분야의 지원 제도 또한 같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원예술이 블랙리스트를 겪고 그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또 파행을 겪고, 이런 것들이 타 분야에 지원하는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득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득력을 주는 그러니까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원예술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설정했던 것하고 다르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아까 김소연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공모안 자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기에 기존 장르 예술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포괄했는데, 다원예술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돌이켜 보면, 다원예술이 지원 사업으로 출현하고 나서 다원예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부터 적극적 해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원예술을 정의해나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충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르 예술에 영향을 미쳤어요. 현재 장르 예술이라고 대척점으로써 볼 게 아니라 이를테면 지난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예술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 역사적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맥락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시각예술이 굉장히 다원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지금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작업들이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망들이 다양하고 이미 장르나 매체적 특성 하나로 귀결될 수 없는, 또 주제 또한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시각예술은 이런 주제만 취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다원예술이 마치 소수적 가치, 독립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다른 지원 분야의 예술은 그걸 다루지 않는가. 저는 그런 역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봤을 때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에서 다원예술을 그사이에 활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작가나 기획자나 현장도 다원예술화돼 있거나 다원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정책적으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으로 카테고리화해서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다원예술 이렇게 2개를 묶어놨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성 증진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서 성격 규정을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지원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 세심한 매만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다 열어놓는 것만이 마치 가치적으로 옳은 것인 양 얘기하기보다 다른 지원 분야에서도 설득이 가능하고 또 다른 지원 분야에서도 다원예술 지원 공모 사업의 안 개념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있다, 현재 시의적절하다고 하는 설득력을 줘야지만 다원예술이 정책의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과 기술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예술 지원 사업, 기초 예술 분야 말고 이렇게 국제 교류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에 심의 구분인지 모르겠지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유형이 아니라 보면 거기에 문학, 음악, 다시 장르 구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다원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지원 정책 사업에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예 거기는 카테고리를 빼야 하거든요. 그것이 문학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로지만 공공 예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의 작가나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다원예술적 가치로써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책의 부분에서 엄밀하게, 다른 지원 분야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혹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같이 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다원예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현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논의하는, 다른 어떤 예술 지원 분야와도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장연호**

제도의 취약성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아니면 한국에서 다원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관한 건데요. 좋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 주셨고요. 권병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적인, 기술적인 스태프 아니면 행정가들, 다원예술적인 소양이나 같이 해나가는 부분들이, 행정가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같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네덜란드에 50년의 연속성을 지닌 공간이 진, 그 공간의 기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을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공간을 통해서 사실 50년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세대를 지나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다원예술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창작되고 있지만, 되게 파편적으로 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어디서 다원예술 활동이 진행되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엮어줄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김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복원돼서 다원예술의 현장에서 지금 세대가 일단 끊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위원회 전문가분들이 이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원돼서 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식들도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혜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다원예술의 정책적인 방향, 용어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타 장르 간에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성격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명확하게 해야지 이걸 현장에 돌리듯이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일 수 있다, 저도 역시 거기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후 토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주**

아무래도 다원예술TF에서 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비판적이지만 뚜렷하게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하는 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패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강 대표님께서 '왜 사과가 그냥 하느냐. 이런 악순환이, 즉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라졌고 작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인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원예술에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와 정책,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예술위가 깊이 고민해서 현장과 소통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판은 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이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권병준 작가님께서도 왜 이런 결정, 이런 블라인드 동료 평가라는 새로운 제도 실험의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들은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 질문은 박혜강 대표님께서 하신 질문과 굉장히 연결되는 질문이어서요.

그리고 또 김소연 평론가님께서도 이것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핀잔이죠,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문예위의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 그럼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제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순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본인들의 역할, 다원예술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어떤 지원 정책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권병준 작가님이나 박혜강 대표님께서 해 주신 말씀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 핀잔을 잘 받아들여서, 지원총괄부 담당자님도 와 계시니까 이것이 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작년 지원심의제도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왔어요. 예술인의 소리하고 두 번 간담회하면서 블라인드 동료 평가에 대한 폐지를 결정했는데, 사실 간담회 참여한 건 몇 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마침 그런 질문도 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중순에 의결을 해서 리부트 사업에 블라인드 동료 평가가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써 운영이 됐고요. 물론 내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복원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너무 많은 기대를 다원예술에 걸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6월 11일에 1차 예심 통과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심의 피드백 내용에 여성 혐오와 성차별 내용이 포함됐고, 몇 개 언론사에 보도가 됐고, 실제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예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원예술 동료집단 심의 평가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6월 17일에 구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18일에 최초로 언론 보도 이후, 국민신문고로 총 21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예술위는 다원예술 동료 집단 심의 평가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민원이 접수되면서 언론 보도와 함께 예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전에 이 공모가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대응 TF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예술가 단체 중 한 분을 지역에 가서 만난 바가 있고요. 리부트 지원 사업 최종 심의 결과 발표가 7월 27일에 있었는데, 그때 이와 관련해서 예술위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예술인의 소리에서 발표한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공개됐고 이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고요. 예술위는 8월 20일에 예술인의 소리 측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국민신문고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예술위는 9월 23일에 예술인의 소리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구요. 그때 15명 내외의 예술가분들이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동료집단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폐지가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결정은 간담회 진행 후에 언론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도됐고요. 12월 2일에 대응TF에서 예술인의 소리 측과 2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때 모두 함께 협의를 해서 블라인드 동료집단 심의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당시 문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사례비는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12월 16일에 의결이 됐고요. 12월 20일에 사과문과 후속조치 안내문을 예술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럼 1부에서 지원총괄부 정 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 이후에 약속됐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지로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드렸던 종합토론에서 패널분들이 이런 부분들, 즉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해명하라는 말이나, 도대체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위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블랙리스트로 폐지됐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6년을 기다렸고 작년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들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현장 예술가들의 요구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전에 주셨던 의견들에 연결해서 혹시 의견 주실 분이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소연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라운드 테이블 보고에서 자립성, 독립성 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소위원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이라든가 다시 다원예술 정책이 예술위 안에 기입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시행착오가 결국은 현장과의 소통면을 넓게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특히 다원예술이 더 취약하냐는 부분은, 여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 물론 현재 장르 협회들도 장르 현장을 다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는데 다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어떤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 유튜브에 다원예술이 뭔지 좀 패널들 한 사람씩 정의해 보라고 질문이 왔는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원예술에서, 지원 기관에서 주목해야 할 다원예술이라는 건 지원 기관이 이건 새로운 예술이다, 이건 가치 있는 예술이라는 것들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책을 입안할, 특히나 다원예술 같은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가는데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야말로 소위원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 김장연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으로 31건의 작업이 지원받게 됐는데,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내신 분들은 833건이거든요. 이 작업의 97%가 탈락하게 된 상황이고, 경쟁이 너무 섰던 거죠. 예산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억 8,000만 원이 된 거예요. 내년에도 현장에서는 다원예술을 더 많이 공모할 거라고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올해 800건의 작업을 못 하게 됐고,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현장의 다원예술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고 연결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증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패널로 오신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심리적인 지원들,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권병준 작가가님이 얘기해 주신 네덜란드에서의 그 공간이 예술가들한테 상당한 심리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 문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열었으면 좋겠고, 또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을 예술가들이 대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조금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상생하려면 이름 있고 유명한 예술인들만 쓰게 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도 소개되고 누구나 작품이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 권병준

저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줄 몰랐고요. 그 말은 현장의 니즈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다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물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주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다르게 시작하고 변방에서 경계를 넓히는 그리고 또 다른 작업과의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작년에 있었던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료 평가를 어디서 하나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조직 관리하는 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부장님이 전에 저한테 이랬어요,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다원예술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넘어서서 뭔가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은 아마 더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방향들이 정말로, 예를 들면 수혜를 받지 못한 800명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발 좀 현장에 오셔서 만나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작업과 그들이 뭘 원하는지, 저희가 백날 여기서 떠돌아보야 그 800명, 우리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행정을 하시고 또 기술 스태프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직접 좀 가서 만나보시고 얘기를 나누시는 노력을 꼭 좀 들여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혜강

이게 마지막 이야기라면,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라운드 테이블 때 제가 아마 정책 보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어떤 지원 사업에 심의위원 제안을 받고 참여했었는데 꽤 놀라웠어요. 이 심의위원이, 심의위원 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하고 나서 사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락이 계속 와서 등록을 독려하는 전화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도는 실험을 해야겠죠, 기획에 필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제도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이라는 건 어떤 것을 예시하고 있냐면, 보완과 개선을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걸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혼란스럽고. 이런 동료 심사, 아까 제가 정책도단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 지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 동료 심사 제도를 표방하는 지원 기관의 이 문맥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 제도에서도,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어떻게 거기에 그 심의위원이 올 수 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 현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심의 제도는 엄격하게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원 행정 기관의 이력테면 안목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공공예술 지원 사업,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단위들이 행정가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풀로 운영해서, 무슨 제로 돌려서, 이걸 시가 돌려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걸 좀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동료집단 심의 이런 것도 그냥 행정이 책임을 피해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차선책으로 모르겠다, 현장에서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만 폐해도 큰 거거든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앞서갔을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심의 제도에서 한 가지만 더 꼭자면 공공예술이나 다원예술도 그렇지만 다시금 장르 매체적인 특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나면, 정말 공공예술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 단위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매체적 편성을 해요. 그래서 심의할 때 3대 매체가 설명해 주고 있고, 잘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안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예술에 좀 안배하죠, 시각예술에 좀 안배하죠.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심의위원을 참여해봤지만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예술계를 설명하는 것은 좋은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매체적 안배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행정적 안목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 또한 좀 더 지금 현장이 다매체적인, 장르 간의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보다는 다른 미학적인 언어나 개념으로 더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번역이 필요 없는 심의위원이 들어와서 심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심의 제도에서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경주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항상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별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없다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원예술 생태계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술위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외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 제람

일단 여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권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선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보다 거기에 비껴나가 있는 많은 작가들과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다은

권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원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작가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매체나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더더욱 다원예술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다 다원예술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너무 폭넓게 공모의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너무 폭넓게 열어주는 것도 아마 지원자들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박혜강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원예술의 어떤 정의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끌고 나가야 하는지 치열한 논의 속에서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게 그냥 단순한 매체 간 결합이 아닌데 마치 매체 간의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오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역시 어떤 한 매체나 형식에 국한되는 그런 분류 체계보다는 정말 종합적으로 이 작업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심의위원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혜강

저는 다른 분야에는 과연 이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주신 여러 질문에 시각예술도 넣어보고 공연예술도 넣어서 다시 읽기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2022년 현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 좀 같이 보게 됐는데, 아무튼 다원예술이 이렇게 TF가 구성돼서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의 하나의 경계 지점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시금 지원 기관이 다원예술 용어의 정서적 기준에서 쓰지 마시고 정확한 용어들과 문맥들을 써주십사, 제가 자꾸 텍스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현장에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소연

저는 이게 좀 비평가적인 관심인데요. 사실 제가 해 보고 싶은 연구,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구인데 지원서들의 텍스트들을 다 놓고 빅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원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자기 작업을 설명할 때 어떤 용어들이 더 많이 나오나, 이게 예술위만이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이나 다 해서 그런 텍스트들을 양적 분석을 하는 거죠. 정성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분석을 해서 예술계 안에서 다원예술은 어떤 말들로 설명되고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못 하더라도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 저는 항상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훨씬 확장해서 이걸 계속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권병준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원이 어떤 예술이냐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하셔서, 간단히 도식화시키면 연극이 있고 무용이 있으면 교집합이 분명히 있잖아요. 연극적인 무용도 있고 무용적인 연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르 화돼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우리가 장르적으로 구분 짓는 것에 여러 가지 교집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집합들, 여집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집합이 넓을수록, 여집합이 넓은 판을 짜주실수록 사람들은 더 그 영역으로 나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다원예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숨 쉴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 김장연호

짧게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장에 다원예술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정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술 분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각지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어떤 외국 작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의 이태원이 사운드아트에 기원이래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운드아트를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작가들이 한국의 이태원을 무조건 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새로운 예술이 나오고, 새로운 예술의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생각 외로 해외에 있는 사운드아트하는 작가들이 지원받아서 한국에 상당히 많이 오고, 아예 유학을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의 다른 학과를 다니지만, 목적은 이태원에서 사운드아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운드아트는 정책적으로 배제된 장르거든요. 그나마 다원예술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작가들의 소통 그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내려면 장기적인 플랫폼 그다음에 매개 공간, 축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인자

저는 다원예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에 2005년도인가 예술 장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받아서 거리극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후에 장소 특정한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술위원회에서 새장르 공공예술 지원 사업이 다원예술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공공예술이라는 분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와 작가분들이 기술 융복합 사업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역시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다원예술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태도나 관점, 과정들이 계속 제도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한 사람들, 예술가들은 고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권병준 작가님께서 여집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원예술을 하면서 또 연극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연극이 아닌 연극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극과 무용, 무용과 연극이 아닌 연극을 말하고 싶었고, 이상한 것,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도래하는 것들,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 빈 공간. 오히려 정의 내리지 말자고 얘기해야 하는 그 빈 공간이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소수의 가치와 독립예술의 중요성입니다. 다원예술이 장르화되면서 실험과 형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술가들이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목소리,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원예술에서 다뤄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분야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지원총괄부에서 다원예술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때로 이게 부가적인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서 그리고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와 현장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교류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더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예술위원회가 우리의 동료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서도 분명히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 TF를 하기 전에 제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어렵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없어졌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활동하고 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원예술이 문화예술진흥법의 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장르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연극이 뭔지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다원예술이 무엇인가 정의를 요구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더 이상 없어지거나 아니면 비빌 언덕을 찾아서 애쓰는 시간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또 예술과 사회와 여러 가지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경주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고지영 PD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여쭙봤더니 이제 듣는 거 그만하고 예술가들이 말하는 것을 반영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다원예술 포럼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현장의 절실한 얘기들이 많이 왔고 또 좋은 조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혜강 대표님이나 김소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형태의 어떤 실험이 아니라 보수적인 형태의 긴 안목의 지원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2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예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다원예술 생태계를 위한 예술가와 공공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생산적인 담론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포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V

다원예술TF 회의록





PART V

다원예술 TF 회의록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1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1.14.(금) 15시 ~ 18시
- ②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온라인 병행)
- ③ 출석인원 : 총 6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임인자((전)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한솔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2인
 - 비상임위원(1인) : 흥태림
 - 외부위원(1인) : 박지선(프로젝트그룹 도트 대표)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TF 운영 방식 논의
 - 2022년 다원예술 공모 계획 세부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① 다원예술 TF 운영 방식 논의 및 사업 관련 생각 공유

- **(정준화)** 다원예술 TF 주요 역할은 '22년 다원예술 사업 개선안 논의 및 확정하고 동료심의제도로 인해 피해받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 조치 및 다원예술 연구 포럼을 진행할 예정임. 이 역할은 다원예술 활동지원 후속조치 사과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박경주)** 다원예술 TF가 후속조치를 깔끔하게 처리하여 다원예술 사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함.
- **(김장연호)** 작년 다원예술 리부트를 관심 있게 보았고 그 이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애정이 있음. 다원예술이 빨리 복원돼서 활성화를 가졌으면 하고 향후 증액이 되어 인정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함.
- **(김건희)** 작년 심의부터 참여했음. 그때 사업이 재기된다는 것에 반가웠고 심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깊었음. 현장에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후 현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내겠음.
- **(임인자)** 다원예술이 작년 복원되었을 당시,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가지고 오신 지원제도인 동료평가에 우려를 표했음. 그 이후 다원예술 복원에 힘을 써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음.

② 2022년 다원예술 공모 계획 방향성 및 세부 논의

- **(정준화)** 올해 사업을 잘해서 잘 꾸려가야 함. 작년 공고와 심의를 해보니 예술과 기술 융합사업과의 변별성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본 사업은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의 공모사업의 틀을 가져가되 처음 시도했던 문제를 담아 논의할 예정임. 회의자료의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와 또 다른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다르게 정액유형으로 다섯 가지로 갔는데,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동료평가를 폐지했기 때문에 심의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예술과 기술 융합 사업과의 변별성을 논의해야 함.
- **(김장연호)** 이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축제와 같은 다양한 퍼포먼스, 연극과 영화를 접목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음. 다원예술은 다양한 매체들이 오히려 재료이고 동시대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출연시키고 등장하는 것에 방점을 둬. 예술과 기술은 기술이 중점이고 심사위원도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봄. 다원예술이 현장에서 자리 잡고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다원예술이 했던 목소리들이 플랫폼으로 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함.
- **(김건희)** '21년도 다원예술 공고문에는 다원예술의 자가 정의라고 하는데 기존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형식과 조건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음. 예술위에서 다원예술을 복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현장에서도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함. 구체화가 될수록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어찌 되었든 다원예술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을 불러져오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역할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함.
- **(김장연호)** 작년에 자가 정의를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용어로 제안했으면 함. 기존의 다원예술 정책 사업이나 개념을 보면 새로운 장르, 탈장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새로운 장르를 지향하는 장르라고 하면 기존 장르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것으로 제약을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박경주)** '21년 공고문의 사업목적과 취지에서 다원예술을 새롭게 공론화하는 부분은 뺏으면 함. 이전의 다원 예술 TF에서도 다원예술의 정의는 하지 않기로 함. 또한 활동이라는 말은 고민해 봐야 함. 생활예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함. 현장에서는 작년 지원신청을 못한 분들도 지원신청을 할 거니 올해까지는 돌려보고 예술위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정책적 개념은 본 사업에서 가져가지 않았으면 함.
- **(김장연호)** 지원규모와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했으면 함. 사전 연구지원을 넣거나 또한 심의기준은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봄.
- **(임인자)** 정액지원은 반대함.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고 자유롭게 예산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정준화)** 심의기준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추후 사무처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함.
- **(김건희)** 역으로 제시한 금액이 길잡이가 될 수 있음. 자유롭게 가되 트랙을 나눌 경우 구간을 두는 게 좋다고 봄.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유와 의지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봄. 기존 사업 목적 및 취지에서 기존 형식과 ~ 취지가 오히려 대상으로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음.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2차 회의 : 2022.1.26.(수) 13시 / 나주본관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2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1.26.(수) 13시 ~ 16시
- ② 회의장소 : 나주 본관(온라인 병행)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대표), 임인자((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한솔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흥태림
- ⑤ 논의안건
 - 동료심의제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
 - 다원예술 연구 및 포럼 계획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동료심의제도 후속조치 < 예술인심리치료 > 논의
 - **(정준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치료 서비스는 수요가 많음. 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음. 복지재단 심리치료는 예술활동증명이 있어야함. 다원예술 지원신청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그다음 복지재단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음. 올해 복지재단의 사업은 문체부와 협의 후 진행 되면 사업공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그 시기를 맞추려면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재단과 협의해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해야 함.
 - **(김건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가능함. 만약 본 사업으로 한다면 리부트 선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는지

- **(정준화)** 재단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문제는 복지재단에서 제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절차는 최대한 복지재단이 처리할 수 있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음.
- **(박경주)** 지원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만들어 수요조사하고 예술인활동증명의 유무를 체크하여 그 이후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음. 이런 심리상담은 초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음.

㉔ 다원예술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한 개별 의견 공유

- **(김건희)** 포럼의 구성주체가 잘 설계되면 좋을 것 같음. 다원 장르의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니 다원예술 활동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면 함. 포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작부터 명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과의 신뢰도 중요함. 지원사업이 시발점이 되었으나 다원예술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 설계에서도 현장의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고 과업지시서에 언급자 하는 것을 잘 설계해야 함. 연구과제 발굴 포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김장연호)** 한국의 독창적으로 있는 다원예술 형태와 현장에서 다원이라는 분야가 어디까지이고 진행되는지 조사 반영되어야함.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로 중단된 사업을 보고 새롭게 등장한 다원예술의 흐름을 봐야 함. 연구를 통해 블랙으로 복원되지 못한 사업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봐야함. 연구 내용과 범주는 다원예술의 현재성 조사, 기존과의 차별성, 한국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야 함.
- **(박지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① 다원예술 현장에서 편의상 연극, 무용처럼 장르로 얘기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다원예술을 하나의 장르보다는 일종의 예술 경향성으로 봄. 지원의 사각지대로 있던 부분과 다르고 현재 다원예술인이라는 칭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의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봐야 함. ② 전체 예술계에서 보면 예술작품 중심임.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창작과 다양한 유통하는 관계 속에서 다원예술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그래야하면 다원예술이 어떤 장르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예술활동이라는 설득력이 만들어질 것임. 개별적 예술가의 작업이 연결-구조화되는지 다른 영역과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함.
- **(임인자)** 예술가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다원예술이라 생각함. 다원예술을 생각할 때 지원구조나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연구에서 있어 생태계 연구라든지 포럼은 박지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그냥 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성, 약간의 축제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음. 새로운 방식의 포럼이 기획되거나 연구와 포럼을 연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㉕ 포럼 진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논의

- **(김건희)** 연구와 포럼을 연계한다면 창작에 집중하는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임인자)** 지역을 찾아가는 포럼을 진행하면 어떤지, 지역을 청취하고 아젠다를 모아 포럼을 하는 형태도 좋을 것 같음.
- **(김장연호)** 위원 한 분당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리더가 되어 참여예술인을 섭외 구성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포럼을 만들면 어떤지? 그게 가장 빠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임.

- (박경주) 좋은 의견임. 현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럼이 기본 받침이라 생각함.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3차 회의 : 2022.2.16.(수) 14시 / 예술가의 집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3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2.16.(수) 14시 ~ 16시
- ②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온라인 병행)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대표), 임인자(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한솔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흥태림
- ⑤ 논의안건
 - 동료집단심의 후속조치 <예술인심리상담>수요조사(안) 검토
 -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 계획(안) 검토 및 세부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동료집단심의 후속조치<예술인심리상담>수요조사(안) 검토
 - **(정준화)** 아르코 자체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안정성이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을 파악하는데 용이함.
 - **(박경주)** 내부 시스템 이용은 동의함. 다만 1차적으로 예술인심리상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수요 조사 후 예술인활동증명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김장연호)** 내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예술위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의함.

- (박지선) 예술인심리치료 안에서 어떤 유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가 필요함.

②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의기준 세부 논의

- (김건희) 작성하신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 계획서에서 크게 이견은 없음. 다만 트랙1 준비지원의 경우 심의기준의 사업수행 역량은 조금 더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음.
- (박지선) 다원예술의 초기 진입자의 경우 이전 활동 없을 가능성이 있음. 사업수행역량은 조금 더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음.
- (김장연호) 기존의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는 사업수행역량이 좋은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작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창작준비 지원은 오로지 사업 수행계획으로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음. 다만 창작발표 지원은 사업수행역량을 3개년 활동 경력 등을 두어 판단할 수 있게 두면 좋겠음.
- (정준화) 지원신청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도 이전 활동경력이 없다고 0점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도록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겠음. 이전 혹은 기존의 사업에서는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기여성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음. 본 사업 트랙1 창작준비 지원은 '지원신청자가 준비하는 사업이 향후 기획하는 사업에 기여하는 가'를 담고 있음. 기존 다른 사업과의 차별점인데, 행정상의 용어로 인해 해당 부분이 잘 표현 되지 않은 것 같음.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하겠음

③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의방법 세부 논의

- (박경주) 사업혁신TF에서도 다원예술은 전담위원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 이유는 기존 다원예술 심의를 특화해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작년 7기 위원에게 추천한 부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음.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한 심의위원은 한명도 되지 않았음. 제가 다원예술 담당위원이므로 올해는 제가 2배를 추천하고 사무처가 2배 추천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봄. 그래야 다원예술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
- (김장연호) 다원예술이 안정화가 되려면, 전담심의회가 옳다고 생각함.
- (박지선) 동료평가제는 사실 외국에서는 전문가 심의임. 다원예술은 상호평가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 예술위의 풀을 가지고 하는 적격자 방식도 괜찮다고 보는데, 타 장르에 비해 다원예술 분야는 넓은 범위이고 지금의 예술위 풀 안에서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봄. 그래서 전담 심의위원제가 옳다고 봄
- (김건희) 내년 정기공모에 포함되기 전까지 모델링이 될 것이고, 작년 대비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심의회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봄.

④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트랙별 세부 논의

- (박경주) 임기 2년 동안 다원예술이 사라진 만큼에 대한 복원하는 것이 꿈이었음. 매개공간이나 축제사업이 잘 안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걱정이 있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나눴지만 그전의 매개공간이나 작은 축제 커뮤니티도 신청이 가능하게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음. 복원되는 것이 작년에도 잘 안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라도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었으면 함. 트랙1 창작지원사업의 지원세부내용으로 활동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작은 커뮤니티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음. 또한 트랙2 창작발표지원에서 형태가 공연이나 전시가 아니라도 출판도 넣었으면 함. 큰 축제나 작은 축제를 하는 분들도 트랙2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 **(김장연호)** 트랙2 창작발표지원 지원세부내용에 매개 지원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23년도 매개공간이 나 행사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개를 넣었으면 함
- **(임인자)** 트랙 3으로 매개 지원을 넣었으면 함. 구체적으로 다원예술 활동에서 새롭게 해볼 만한 것, 즉 창작 준비지원이나 창작발표지원 트랙뿐만 아니라 더 있을 것으로 보임.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형태로 매개를 넣었으면 함.
- **(김건희)** 지금 사업에서 트랙이 추가되는 건 무리이고 어렵다고 봄. 준비, 매개, 발표가 혼란을 줄 것 같음.
- **(임인자)** 준비와 발표가 과정을 포함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고 있진 않다고 봄. 지역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다양한 트랙이 있었으면 함.
- **(박지선)** 매개가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 **(임인자)** 창작은 하나의 작품인데, 매개는 누군가와 연계되고 활동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서울에 도 있었고 지역에서도 있다가 사라졌음. 그런 매개활동 및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면 함.
- **(박지선)** 사업명이 다원예술 활동지원에서 창작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지원의 강점은 창작에 있는 거임. 지금 말씀하신 매개는 신청을 주체인 것 같음. 다양한 다원예술의 예술적 활동으로서 예술활동으로 갈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음. 창작준비지원과 발표지원은 예술작품을 지원하는데, 매개지원은 매개자 주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섞이는 느낌임. 지원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창작지원인지 다원예술 활동을 모든 것을 지원하는지 혼란이 있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함.
- **(박경주)**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5억원임. 큰 사업명에 활동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함. 임인자 위원의 말씀은 이해가 감.
- **(김장연호)** 임인자 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고, 매개공간,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영역에 포함을 시킬 건지 고민을 해봐야함. 지난 회의 때 그러한 고민을 했고 예산이 워낙 작다보니 창작자 중심으로 하되 지난 회의 때 두 트랙으로 고려를 해보자하고 끝이 났음. 박경주 위원님도 임기가 끝나니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매개공간을 넣는 것은 위원들 간의 의견을 담아야한다고 생각함.
- **(김건희)** 매개를 넣으면 현장에 더욱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음.

㉔ 다원예술 사업의 향후 방향성 논의

- **(임인자)** 매개나 플랫폼 지원은 운영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예술로 가야하는 지원이라고 봄. 앞으로의 고민이 활발히 되었으면 함. 창작 발표가 하나의 작품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면 함. 다원예술 지원은 단일한 활동 지원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규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박경주)** 앞으로 다원예술의 전략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 올해는 창작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김장연호)** 다원예술TF 활동과 결과들이 다원예술 내년도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박경주)** 다원예술TF 보고서를 잘 담아 문체부 혹은 기재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4차 회의 : 2022.2.23.(수) 13시 / 예술가의 집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4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2.23.(수) 13시 ~ 15시
- ②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온라인 병행)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재(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한솔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성 계획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성(안) 개별 방식 공유
 - **(김장연호)** 시각·미디어 분야 다양한 나이대의 다원예술인 중심으로 계획하였음, 전체 라운드테이블에서 공통된 질문이 있었으면 하여 리스트를 만들음. 다원예술복원과 의미 그리고 다원예술 지원경험과 활동, 현장에서의 다원예술 활동의 연결성 등을 들어보고자 함. 덧붙여 23년도 사업의 개선방향을 포함하였음. 본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정책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라운드테이블마다 녹취기록자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함.
 - **(김건희)** 심의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원의 기획자 역할을 중요성을 깨달음. 21년 지원자 중 실무를 진행한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함. 크게 거시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업운영단계, 양식 혹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의견 받고자 함. 다원분야의 지원이 현장 수요 대비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22년도 실무적인

부분, 지원심의방식, 단계별로 어떻게 읽히는지도 의견 수렴해 보면 좋을 것 같음. 이번 TF를 통해 다원예술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음.

- **(박지선)** 공연 쪽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을 염두에 두어 작성함. 다원예술 복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므로, 이것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공유하고 현재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의 개념과 의미가 어떤지, 예술가로서 바라보는 다원예술, 실제 생태계에서 다원예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 개인의 예술 생태계 생각들이 간극 없이 잘 맞춰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있어 어떤 지원제도와 수혜를 받는지, 다원예술은 유통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단일성인지 반복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는 지도 듣고자 함. 마지막으로 예술위의 지원 시기나 방식, 예산 등 직간접적으로 어떤 지원제도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 보고자 함. 참여인 구성에서 2030세대를 더 추가할 예정.
- **(박경주)** 임인자 위원님께서서는 다원예술 플랫폼이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였음. 라운드테이블을 플랫폼 공간 위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잡은 것 같음. 1회차로 진행으로는 다 못할 것 같아, 임인자 위원님의 라운드테이블에 제가 참여하여 2회차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구함. 임인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서 소수자의 이야기도 있으니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함.

②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개별 방식 및 운영 논의

- **(박경주)** 개별 의견을 살펴보니, 공통질문이 몇 가지가 있음. 라운드테이블에서 공통질문을 2가지로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지
- **(김장연호)** 동시대의 다원예술의 의미와 복원이 같이 들어간 공통질문이 있으면 함. 결과를 분석하기 쉽게 공통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음.
- **(김건희)**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라운드테이블 구성(안)을 작성해보겠음.
- **(김장연호)** 총 회차는 5회로 하고 최소 10인 이하의 소수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③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활용 및 향후 포럼 계획 논의

- **(김장연호)**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박지선)** 라운드테이블 참여자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것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술위의 다원예술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박경주)** 포럼 토론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섭외하여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 **(임인자)** 다원예술 TF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제언론을 쓴다고 생각했음. 라운드테이블 이후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며, 포럼 이후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적어도 4월 초·중순에는 포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음.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5차 회의 : 2022.3.16.(수) 17시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5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3.16.(수) 17시 ~ 18시
- ② 회의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 ③ 출석인원 : 총 5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한솔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3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외부위원(2인) :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자(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후속조치 <예술인심리상담>수요조사(안) 확정
 -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일정 세부 논의
 - 연구용역 및 포럼 일정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다원예술 후속조치 <예술인심리상담> 수요조사(안) 확정
 - (TF 구성원) 사무처에서 작성한 예술인심리상담 수요조사(안)으로 진행 동의하며, 일정 확인하여 수요조사 진행
- ②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일정 세부 논의
 - **(박경주)** 김장연호 위원님께서서는 시각미디어 창작자, 김건희 위원님은 기획파트, 박지선 위원님은 공연예술

중심, 저와 임인자 위원님이 지역과 매개를 맡아서 진행하겠음.

- **(김건희)** 행정 부분은 공모사업 공고문 중심으로 제안 드렸으나, 지난번 회의 논의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다르게 풀었으면 하여 그 부분은 제외하였음. 외부 자문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밀도를 가지고 반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대신 분야, 경력별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음. 인프라 라는 표현은 네트워크나 다른 분야와의 콜라보를 하고 싶은 하지 못하는 막연함에 대한 부분(의견)을 듣고자 하며,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기술 융합과 본 사업이 다른 점이 무엇일지 체감하고 있는지를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김장연호)** 김건희 위원님 내용 중 코로나로 인해 예술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부분과 공통질문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음. 또한,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건희 위원님이 기획자를 중심으로 기획과 행정을 하신다면 기획 혹은 창작, 기획 혹은 제작으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음.
- **(박경주)** 임인자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김건희 위원님께서 기획자를 하시면 저는 매개를 매개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됨.
- **(김장연호)** 임인자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참여자를 보면 축제도 있으므로, 매개에 공간과 축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또한 지역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됨.
- **(박경주)** 축제와 매개공간을 전국적으로 아우르고, 지역은 창작자로 하여 임인자 위원님과 논의해보겠음.

㉓ 포럼 및 연구용역 관련 논의

- **(박경주)** TF 위원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포럼 준비를 주도할 분을 정해서 별도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함.
- **(김연호)**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하면 포럼 날짜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말로 포럼 날짜를 가안으로 확정해두고, 그 기획들을 좀 더 논의를 하여 진행된다면 어떨지, 4월 15일 즈음에 어느 정도 포럼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경주)** 라운드테이블 구성안을 잡을 거니, 대부분의 참여자를 파악하고 포럼에서 참여하실 수 있을 만한 후보자를 1~2순위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 중 두 명 정도 별도 회의를 진행하여 날짜를 확정하는 게 어떨지.
- **(김연호)** 라운드테이블 리더가 사회와 경청을 하기 때문에 포럼 자료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형태는 어떤지, 각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신 패널이 그거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번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1부는 공통질문, 2부는 개별질문, 3부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제안함
- **(김건희, 박경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준화)** 정책연구용역 배정된 예산은 3천만 원임. 포럼과 관련해서는 녹취와 가급적 기록형태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업체 섭외를 진행하고 있음. 포럼의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수 대면진행과 영상 송출하는 방식이 가장 좋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함.
- **(박경주)** 포럼 전에 과업지시서와 관련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함. 과업지시서도 책임자가 있으면 함.
- **(김건희)** 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과업지시서 작성을 맡겠음.

- **(박경주)** 김장연호위원님과 김건희 위원님 두 분께서 소통하면서 하시고 과업지시서(안)에서 나온 의견을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음.

3. 향후 계획

- 다원예술 TF 라운드테이블 일정 확정 및 섭외 준비



다원예술 TF 6차 회의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3.29.(화) 13시~15시
- ②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③ 출석인원 : 총 6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재(독립기획자)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오성근 주임
- ④ 불참인원 : 총 2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TF 운영 방식 및 계약 체결 관련 논의
 - 다원예술 정책연구 과업설정 세부사항 논의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준비 현황 공유 및 일정 조정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① 다원예술 TF 운영 방식 및 계약 체결 필요성 논의

- **(박지선)** TF 활동 조건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이 불명확하게 불명확한 상태로 시작되어 이어져오고 있음. TF 활동은 단순 회의체 운영이 아닌 사전 준비 및 기획 활동이 수반되는 사안임. 라운드테이블 진행을 예로 볼 때, 참여자 섭외부터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단순 회의 참여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현 시점에서라도 TF 활동에 대한 조건 내용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박경주)** 박지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아울러 TF 회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기획안 등 원고의 경우 지침 상 마련되어있는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필요. TF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무처와 별도 논의 진행하겠음.
- **(임인자)** 예술인복지법에 의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원TF가 시작되었음. 다원예술 장르 활성화라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진행되는 TF인 만큼 운영시스템 측면에서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기본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② 다원예술 정책연구 과업설정 세부사항 논의

- **(박경주)**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다원예술 생태계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파악이 연구 배경으로써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박지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로 논의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예술정책 측면에서 다원예술이 갖는 위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김건희)** 배정예산(3천만원) 측면에서 연구용역 과업 규모를 고려하면 다원예술 연구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쌓아나가기 보다는 기존 연구 자료들을 2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면 어떠한지 제안함. 한정된 예산에 비하여 연구 범주와 규모가 방대할 경우 내실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염려됨.
- **(임인자)** 이번 연구 과업은 총체적 관점에서 다원예술 전반의 지원제도를 살피고, 어떻게 다원예술 생태계가 변화하였으며 현 상황은 어떠한지 다원예술의 흐름을 통해 생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블랙리스트 등 다원예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해보아야 함.
- **(김장연호)** 다원예술 범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블랙리스트로 인해 다원예술 분야 사업만 폐지되었다는 점을 짚어볼 때, 현재까지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이 유동적으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에 다원예술 장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예술 및 기술 상황에 맞는 다양성 지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예술 또한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
- **(박경주)** 다원예술 지원 사업 부재 중 생겨난 타 지원사업(예술기술융복합, 공공예술 등)과의 경계 구분 및 지원 범위는 어떤 기준을 통해 설정 해야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다원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형태나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 필요.
- **(박지선)** FGI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키워드(지역, 사회소수자, 청년, 비평 등)를 설정 및 제안 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본 과업 취지에 적합한 연구 기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함.

③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준비 현황 공유 및 일정 조정

- **(김장연호)** 1차 라운드테이블 3.31(목) 진행 예정이며 참여자 확정 상태. 참여자 연락처 취합 후 사무처 전달 하여 라운드테이블 전일 안내 요청.
- **(박경주)** 2차 라운드테이블 4.8(금) 추진 예정이며, 외국인 패널 참여를 위한 화상회의 기술지원 확인 요청
- **(박지선, 김건희, 임인자)**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구성 마무리 단계이며, 확정 후 패널 연락처 사무처 전달 예정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7차 회의 : 2022.4.1.(금) 15시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7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4.1.(금) 13시 ~ 15시
- ② 회의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 ③ 출석인원 : 총 6인
 - 비상임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임인자(독립기획자)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오성근 주임
- ④ 불참위원 : 총 2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외부위원(1인) :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리뷰
 -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사례비 지급 기준, 다원예술 TF 계약 추진 관련
 - 다원예술 포럼 진행(안) 논의
 - 다원예술 정책 연구 과업설정 추가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리뷰
 - (김장연호)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중 예술위 지원사업 수혜자는 거의 없음. 탈락 경험의 축적을 통해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학습효과가 있으나, 다원예술 사업 자체의 폐지로 인해 경험 축적의 기회조차 상실되었음.
 - (박경주) 공통 질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참여자분들께서 사전에 상당히 조사/학습을 하시고 참여

하셨다는 점을 알게 됨.

②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사례비 지급 기준 및 다원예술 TF 계약 체결 관련

- **(사무처)** 모든 사례비 기준은 기재부에서 정한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름. 라운드테이블 진행 관련하여, 지침에 따른 사례비 지급기준을 안내드리자면 사회자의 경우 기획/조사/운영 등 심층자문을 적용하여 20만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포럼의 경우, 참여자별 세부 역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기금운용계획 상 세미나/포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자, 토론자 등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
- **(임인자)** 예술현장에서도 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예술인복지법 상으로도 서면 계약은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있음. 금액을 떠나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함. TF의 경우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그 범위와 역할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TF 운영 성격을 되짚어 볼 때 자문 회의 성격으로 시작된 다원예술 TF가 실행 조직 형태로 발전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이 다소 부족했음.
- **(박경주)** 긴박하게 다원예술 TF가 구성 및 운영되면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 이번 계기를 통해 추후 예술위원회에서 구성, 운영될 소위원회와 TF 운영방식에 대해 매뉴얼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③ 다원예술 포럼 진행(안)

일 시		담 당	내 용
개회	6분간	사회자(박경주)	• 개회 및 소개
		위원장	• 인사말씀
경과 보고 및 질의	10분간	지원총괄부장 정준화	• '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이후 후속조치 진행경과 보고
	10분간	사회자(박경주)	• 후속조치에 대한 예술인의 질의에 대한 응답
1부 발제	(30분)	사회자(박경주)/ 다원예술TF 위원	• 다원예술TF에서 실시한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
휴식	(6분간)	Break Time	
2부 자유 토론	(90분간)	사회자(박경주)/ 라운드테이블 참여예술가 5인 + 다원예술TF 위원 + 문체부 담당자	• 토론주제 - “다원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자유토론 (온라인 방청객 토론 참여 포함)
폐회	(10분간)	사회자(박경주)	• 폐회 및 위원회 향후 일정 공유

- **(박경주)**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님이 포럼에 참석해주시길 희망. 섭외 공문 발송 등 행정협조 진행 요청. 사회자와 패널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 진행. 이후 사전 접수된 질의내용과 온라인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추진 제안.

④ 다원예술 정책 연구 과업설정 추가 논의(FGI 구성 관련)

- **(박경주)** 다원예술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FGI 구성 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원예술 1차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을 통해, 장르사업 자체의 폐지로 인해 지원 신청 기회를 잃게 된 간접피해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돌아볼 수 있었음.
- **(김건희)** 과업 수행 주체 입장에서 직접/간접 그룹을 설정하는 범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박경주)** 박지선 위원님 정리 내용 바탕으로 행위자(창작 주체) 중심 그룹 구성에 있어서는 예술가/기획자/극장/축제/미술관/장소특정발표/기관/비평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3. 향후 계획

- (2차)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 2022. 4. 8.(금) 13:00 / 온라인화상회의
- (3차)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 2022. 4. 11.(월) 13:00 / 온라인화상회의
- (4차)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 2022. 4. 12.(화) 13:00 / 온라인화상회의
- (5차)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 2022. 4. 13.(수) 13:00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8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4.21.(목) 16:30~18:00
- ②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재(독립기획자)
 - 사무처(2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정책혁신부 조강주 책임연구원
- ④ 불참인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정책연구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과업 설정 구체화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① 다원예술 정책연구 과업설정 논의 주요 내용

- **(조강주)** 현재(안)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다원예술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더욱 주요 방점에 대해 구체화 필요. 1차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은 다원예술의 연혁적 정리보다는 현재 다원예술의 생태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화하는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미시적으로 접근하자면, 다원예술가들의 창작 형태, 장르 베이스, 협업 방식, 타 장르와 구별되는 특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접근(조사) 방법은 전년도 지원신청서 메타분석, 신청인 대상 설문 조사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FGI 등으로 사료됨.
- **(임인재)** ‘다원예술의 현재성’을 이야기 할 때, 다원예술 장르 지원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생태계의 왜곡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제도 폐지로 위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활동 방식을 전환하거나 중단해야 했던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 ‘과거로부터 거쳐 온 현재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 필요.

- **(박지선)** 연구과업이 다루어야 할 요점(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①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왜 폐지되었는가. 유동적·탈장르적 특성에 기인하여 다원예술 장르가 지원제도 안에서 고착화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해 파악 필요. ② 동시대의 다원예술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는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원제도 초기부터 수혜를 받아온 예술가들과 이제 다원예술 현장에 진입한 예술가 간, 다원예술을 바라보는 간극·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현재 다원예술은 전체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독립적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것인지, 기존 장르 생태계와의 교차점을 만들어나가며 다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③ 다원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예술가를 위한 지원제도, 매개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관·플랫폼 등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함.
- **(김장연호)** 다원예술 참여 패널들이 가장 궁금했던 지점중 하나는 다원예술의 비정형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다원예술의 범위와 범주에 대한 일정 수준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음. 현재 다원예술의 유형들을 파악하여 예술인들에게 공유·안내·제안 할 수 있는 가이드 필요.
- **(김건희)** 다원예술 지원사업 선정 작품들의 경향성 분석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 도출해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지 생각하였음. 기존 자료들 안에서 장르 문법이 언급되고, 다원예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 데이터가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 정형화되기를 원치 않는 예술가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언 등에서 언급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함. 가능하다면 이번 연구에서 입체적인 예술 현장을 아우르는 압축된 분석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음.
- **(박경주)** 박지선, 임인자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 다원예술에 대한 동시대적 관점의 명확한 분석이 없다면, 현재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 예술지원 정책에 있어 정부가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하는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박지선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세 가지 요점에 집중하여 연구 과업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안함.

3. 향후 일정

- 다원예술 TF 9차 회의 : 2022.4.28.(목) 13시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9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4.28.(목) 13:00~15:00
- ② 회의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재(독립기획자)
 - 사무처(2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정책혁신부 조강주 책임연구원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정책연구 과업 설정 수정(안) 세부 논의
 - 다원예술 TF 계약 추진 관련 사안 논의
 - 다원예술 포럼 추진 일정 변경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다원예술 정책연구 제안요청서 수정(안) 논의 주요 내용
 - **(조강주)** 과업 내용을 크게 세 단위로 구분하여, ① 다원예술의 예술사적 의미 고찰, ② 한국 다원예술계 현재성 분석, ③ 다원예술 지원방안 도출로 안을 구성하였음. 구체적인 방법론은 과업 수행주체(연구자)가 직접 설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
 - **(박경주)** 블랙리스트로 인해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폐지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존재했음. 과업 연구 제목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과업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다원예술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다시 피해 입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 다원예술 연구용역 과업의 제목은 다회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

- **(박지선)** ‘블랙리스트 이후’라고 설정하였을 경우,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가 블랙리스트 시점 이후로만 연구/논의 되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연구의 범위를 생각할 때, 현재 다원예술의 생태계만을 고찰할 것인지,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이전 생태계와 현재 생태계의 비교/분석까지 포함되는지 고려 필요. 연구 배경에서 다원TF 논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 된다면, 연구자 관점에서 과업 제목 자체는 범주가 넓게 설정되는 것이 나은 방향이 아닐지 생각함.
- **(임인자)** ‘블랙리스트’라는 워딩의 사용에 있어 제한 두는 것은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당초 협의 확정사항인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방안연구’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였으면 함. 단절된 범위로서 현재의 생태계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다원예술 장르/생태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없음.
- **(김건희)** 연구보고서가 현 시점에서 다원예술 연구에 대한 상징성을 가짐과 동시에 향후 예산 확보, 다원예술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음. 블랙리스트와 다원예술 생태계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다원TF의 구성 목적이 ‘예술현장과의 신뢰회복’이라고 생각. 한정된 예산으로 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현실적인 판단도 고려 필요.
- **(김장연호)** 블랙리스트로 인해 다원예술 사업이 없어진 경험이 있음. 진취적, 비판적으로 다원예술을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존재함에도 지난 5년간 다원예술 정책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음. 정권/정치를 떠나 이번 연구용역이 예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연구 범위(대상)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과업 제목과 관련하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적에 집중하였으면 함.

② 다원예술 TF 계약 추진 관련 논의 주요내용

- **(사무처)** 이전 회의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지침에 따라 편성 가능한 항목은 모두 해당 기준 적용하여 집행 예정
- **(박경주)** 회의 등은 기존 규정, 지침에 따라 회의 참여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음. 이외 기획 부분 관련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 제안.
- **(박지선)** 현 시점에서 바로 개선·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다만, 현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가능한 부분 진행 요청. 다만, 향후 TF 및 회의 진행에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술위 측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제안.
- **(임인자)** 이번 계기를 통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TF가 진행되어지길 희망함.
- **(김장연호)** 향후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의/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김건희)**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범주에서 진행 해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TF가 자문회의 성격에서 실행조직 성격으로 변화한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TF 운영시에는 개선되어지길 희망.
- **(사무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도의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보겠음.

3. 향후 계획

- 다원예술 TF 10차 회의 : 2022.5.13.(금) 13시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10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5.13.(금) 13:00~15:00
- ② 회의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젝트 그룹 도트 대표), 임인재(독립기획자)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지현 대리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정책연구 제안요청서 최종 검토
 - 다원예술 포럼 진행 및 토론 운영방향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① 다원예술 정책연구 관련 현황 공유 및 의견
 - (사무처) 연구 과업내용은 8, 9차 TF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반영하였고, 과업명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로 진행 예정
 - (박경주) 연구 수행기관 선정 이후 구체적인 방향 설계 시, 연구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해 TF와 논의하는 단계가 마련되길 바람

② 다원예술 포럼 진행방식 논의

- (박경주) 토론패널 5인은 당초 라운드테이블 운영 취지와 같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던 기획, 소수자, 비평, 공간 등 주요 영역의 예술인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 적절할 듯함
- (박지선) TF 의견은 1부 발제를 통해 전달하고, 2부 토론에는 TF 참여를 최소한으로 하되 TF 구성원의 입장이 아닌 현장 예술가로서 참여. 김장연호, 임인자 위원을 모더레이터로 추천함. 자유토론 방식이더라도 원활할 토론 진행을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한 대략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 (임인자) 동의함. 토론문을 미리 받지는 않고 주요 질문만 사전 안내하는 정도로 하여 현장에서 이야기 들으면 좋겠음.
- (김장연호) 발제 세션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발제문은 공동으로 구성하되 한 명이 대표로 발표하는 것이 진행상 바람직해 보임
- (박지선) 각자 진행한 회차의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리뷰, 정리한 뒤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함
- (박경주) 포럼은 줌 웨비나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하였으면 함. 발제·토론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 다만 생중계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포럼 종료 후 녹화 영상을 따로 게시하여 지속 확산하면 좋겠음. 단, 참여자 얼굴 및 음성이 공개, 기록되므로 초상권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
- 다원예술 포럼 진행(안)

구분	시간	내 용
개회	14:00-14:10	개최 및 소개
		인사말씀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14:10-14:20	[경과보고]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의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도입에 대한 사과 이후 후속조치 진행 경과보고
	14:20-14:30	[질의응답] 후속조치에 대한 포럼 참여자 질의응답
발제	14:30-15:00	[발제]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보고 - 발제자 다원예술 TF 위원 4인(김건희, 김장연호, 박지선, 임인자) * 발제문 공동 작성 후 박지선(다원예술 TF 위원) 대표 발제
중간휴식 15:00-15:10 (10분)		
토론	15:10-16:40	[토론] '다원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사회자 박경주 위원(다원예술 TF 팀장) - 모더레이터 김장연호(다원예술 TF 위원/아이공 대표) 임인자(다원예술 TF 위원/독립기획자) - 토론자 권병준(미디어아트 작가) 김소연(연극평론가) 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 대표) 이다은(시각예술 작가) 제람(시각예술 활동가)
폐회	16:40-16:50	폐회 및 위원회 향후 일정 공유

3. 향후 계획

- 다원예술 TF 11차 회의 : 2022.5.26.(목) 13시 / 온라인화상회의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11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5.26.(목) 13:00~15:00
- ②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③ 출석인원 : 총 7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4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듀서그룹도트 대표), 임인자(독립기획자)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지현 대리
- ④ 불참위원 : 총 1인
 - 비상임위원(1인) : 흥태림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포럼 발제문 내용 구성 논의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다원예술 포럼 발제문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

-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회차별 요약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
- [발제]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보고' 주요 내용
 - 오늘날 다원예술, 현재 활동 기반에서 경험한 '다원'
 - 다원예술은 장르의 개념이 아닌 태도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갇히지 않는 열린 태도라고 할 수 있음
 - 다원예술은 기존의 장르를 벗어나 마음껏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분야인데 다원예술에 대한 심상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음. 다원예술이 또 하나의 장르로 고착화 되는 것은 예술현장 및 지원제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것

- 다원예술 지원 폐지, 복원의 의미
 - 제도적 불안정 속에서도 예술을 다양하게 사유하고 표현하는 다원예술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임
-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와 아트앤테크놀로지 지원 확대에 따른 다원예술의 변화 및 관계성
 - 최근 예술과 기술 융합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술 접목 프로젝트가 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되는 현상이 나타남. 그러나 정책적으로 어느 한 축에 기울어지지 않고 예술을 다양하게 실험하도록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함
- 다원예술 지원 변화의 필요성과 지원 방향성
 - (심사) 예술위원회 타 지원사업의 심사기준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하는 작품은 특정 경향성을 띠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지원정책 및 제도) 다원예술 지원정책은 '예술가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며, 결과물이나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 그 자체로도 가치를 인정해주었으면 함
 - (예산 및 지역) 지원예산 확대와 더불어 비수도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술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다원예술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품을 유통할 플랫폼이 절실하며, 다원예술 비평과 연구 지원 확대로 창작자들에게 동력을 제공해야 함
- 다원예술 분야 기획자의 역할, 입지, 기획자-창작자의 관계성
 - 기획자의 역할이 지원사업 행정 지원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창작자와 더불어 다원예술 생태계를 이루는 기획자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다원예술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
 - 다원예술은 이미 공고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관습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
- 향후 과제
 -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원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함



보고안건

다원예술 TF 12차 회의 결과보고

다원예술TF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6.10.(금) 10:00~12:00
- ②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③ 출석인원 : 총 6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듀서그룹도트 대표), 임인자(독립기획자)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지현 대리
- ④ 불참위원 : 총 2인
 - 비상임위원(1인) : 홍태림
 - 외부위원(1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TF 백서 발간 계획 논의
 - 다원예술 TF 활동 종료 계획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① 다원예술 TF 백서 발간 계획 논의

- 백서는 당초 TF 구성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아래 네 가지 활동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 '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동료평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22년 공모사업 내용 논의
 - 다원예술 지원방안 연구 방향 설정
 -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운영

- 추후 외부(국회, 문체부 등) 발신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라운드테이블과 포럼 결과자료집도 백서에 수록
- TF 개요 및 주요 활동 내용 전반은 지원총괄부에서 작성하며, 정책 제언은 TF 자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TF 위원(김장연호, 임인자)이 최종 정리. 구체적인 제언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예술위의 다원예술 지원 변동 과정과 지원내역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백서 발간 이후 다원예술 TF 활동결과와 제언을 보도자료를 통해 확산하고자 하며, 정책혁신부에서 준비 중인 아코웹진에 TF 좌담이 마련되길 희망함
- 백서 목차 구성(안)

구분	내 용
A. 발간사	A. 백서 발간사
B. 다원예술 TF 개요	B-1. TF 구성 배경
	B-2. TF 위원 소개
	B-3. TF 활동 경과
C. 다원예술 TF 주요 활동	C-1.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동료집단 심의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C-2.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공모 검토
	C-3. 다원예술 지원방안 연구 과제 방향 설정
	C-4. 다원예술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회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녹취록 전문 수록
	*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 활동 결과는 포럼 발제문을 기본 내용으로 삼되, TF 위원별 수정/보완 의견을 최종 반영
D. 제언	D. 다원예술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TF 자체 라운드테이블(6.24.) 결과를 토대로 TF 공동 제언의 형식을 취하며, 논의 주제는 이전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키워드로 선정

㉔ 다원예술 TF 활동 종료 계획

- 다원예술 TF는 13차 회의 개최와 TF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6월 말 공식 활동 종료

3. 향후 계획

- 다원예술 TF 13차 회의 : 2022.6.24.(금) 10:00 /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 TF 활동 정리 다원예술 정책 제언
- 다원예술 TF 백서 1차 원고 공유·취합 : 2022.6.30.(목)
- 다원예술 TF 백서 제작 : ~ 2022. 7월 둘째 주



다원예술 TF 13차 회의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① 회의일시 : 2022.6.24.(금) 10:00~12:00
- ②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③ 출석인원 : 총 6인
 - 비상임 위원(1인) : 박경주(팀장)
 - 외부위원(3인) : 김장연호(아이공 대표), 박지선(프로듀서그룹도트 대표), 임인자(독립기획자)
 - 사무처(1인) :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
 - 다원예술 TF 간사(1인) : 지원총괄부 이지현 대리
- ④ 불참위원 : 총 2인
 - 비상임위원(1인) : 흥태림
 - 외부위원(1인) : 김건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⑤ 논의안건
 - 다원예술 TF 활동 성과 점검
 - 다원예술 TF 백서 발간을 위한 정책 제언
- ⑥ 소관부서 : 예술창작본부 지원총괄부

2. 논의 결과(요지)

- (박경주) 다원예술 TF 백서 제작 관련, 조율된 일정에 따라 원고 취합 및 검토 추진되길 바람
- (김장연호, 임인자) 다원예술 정책지원 제언 부분 협의하여 공유 예정
- (박경주) 라운드테이블 녹취 관련하여 참여자 피드백 진행 요청

3. 향후 계획

- TF 활동 종료